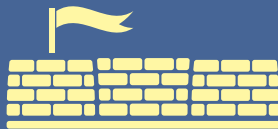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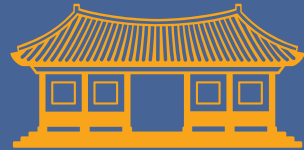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유산

실태조사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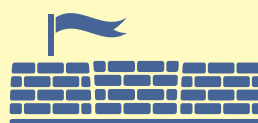
I. 지정 유산	5
1. 동부권	5
1) 무주	7
2) 진안	20
3) 장수	26
4) 임실	40
5) 남원	48
6) 순창	76
2. 서남권	99
1) 부안	101
2) 정읍	105
3) 고창	126
3. 북부권	131
1) 전주	133
2) 익산	136
3) 군산	141
4) 완주	145
5) 김제	159

Ⅱ. 비지정 유산	171
1. 동부권	171
1) 무주	173
2) 진안	180
3) 장수	190
4) 임실	197
5) 남원	208
6) 순창	221
2. 서남권	229
1) 부안	231
2) 정읍	241
3) 고창	250
3. 북부권	259
1) 전주	261
2) 익산	268
3) 완주	278
4) 김제	281

I

지정 유산

1. 동부권



1) 무주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서벽정(棲碧亭)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92.06.20.	
2	원통사지(圓通寺址)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83.08.24.	
3	칠연의총(七淵義塚)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76.04.02.	

(1) 서벽정(棲碧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3일)

기본정보			
명칭	서벽정(棲碧亭)	소재지(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1868-30 (두길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92.06.20.
시대	1886년(고종 23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일곽
소유자	송 * * *	관리자	송 * * *
GPS 정보	북 35.95, 동 127.76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O(간이 화장실)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전체적인 내부 공사 진행 중이었으나 보존 상태가 나쁨 양호함
특이사항	· 조사 당시 공사 진행 중이었음(공사기간 : 24.11.05.-12.04.)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서벽정은 유학자 송병선(宋秉璿)이 고종 23년(1886)에 지은 정자이다. 중앙 2칸은 마루이고 양옆에 온돌방이 있으며 왼쪽 방 앞쪽은 누마루처럼 꾸며졌다. 원래의 정자는 불에 타 고종 28년(1891)에 다시 지었고, 현재의 정자는 1971년에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이다.</p> <p>이 정자가 있는 지역 일대는 경치가 매우 좋아서 예로부터 많은 선비들이 즐겨 찾았으며, 남송의 학자 주희가 학문을 닦으며 숨어 살았다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떠 무계구곡(武夷九曲)이라 불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무이구곡을 학문적 이상향으로 동경했고, 송병선 역시 이곳의 경관에 매료되어 서벽정을 짓고 청정 자연을 벗삼아 여생을 보내고자 했다.</p> <p>송병선(宋秉璿)</p> <p>송병선은 조선시대의 대학자인 송시열의 9세손이다.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고종 22년(1885) 무주로 이주하여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고종 42년(1905)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처형할 것 등을 고종에게 강력히 건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사후 고종이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1962년에는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수여됐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근현대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1868-30[두길리 2109]
시대 : 근대/개항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2.06.20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무주문화대전-서벽정
<p>[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원당천 주변에 있는 개항기 정자.</p> <p>[개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1836~1907]이 낙향하여 머물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의 선비들과 시국을 논하고, 후진을 양성하던 곳이었다. 서벽정(棲碧亭)이 자리하고 있는 일대는 천연의 절경을 이루어 예부터 많은 선비들이 즐겨 찾았으며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떠 각 계곡을 ‘무계구곡(武溪九曲)’이라 명명하고 아홉 군데의 명소마다 명칭을 붙였다. 서벽정은 그 중에 제4곡인 일사대(一士臺)에 위치한다. 본래는 수성대(水城臺)라 부르던 곳으로 송병선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할 때 이 고장 사람들이 송병선의 학리(學理)를 보고 ‘동방에 하나밖에 없는 선비’라 하여 ‘동방일사(東邦一士)’라는 별호를 붙이고 송병선이 사는 곳이라 하여 일사대라 하였다고 한다. 서벽정을 건립한 송병선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으로 자는 화옥(華屋)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학문과 절제 있는 행동으로 천거 받아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으나 취임하지는 않았다. 송병선은 『벽사설(關邪說)』을 지어 양학(洋學)과 천주교를 배척하고, 일본과의 개국 통상을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단식하여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형할 것, 현량(賢良)을 뽑아 쓸 것, 기강을 세울 것 등의 십조봉사(十條封事)를 올렸으며, 일본에 대한 경계를 건의하여 고종(高宗)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고종에게 상소하려 하였으나 윤철규(尹喆圭) 경무사(警務使)에게 속아 일본 헌병에 의해 고향으로 이송 당하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음독자살하였다. 죽은 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962년에는 대한민국 건국 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저서로는 『무계만집』과 문집으로는 『연재집』이 간행되었다.</p> <p>[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번지[구천동로 1868-30]에 자리한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나제통문(羅濟通門)과 구천동을 잇는 국도 37호선을 따라 5km 가다 보면 좌측 원당천(元塘川) 주변 동산 위에 있다.</p> <p>[변천] 1886년(고종 23)에 건립되었으나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891년(고종 28)에 재건하였다. 1897년(고종 34)에 무주 군수인 조병유(趙秉瑜)가 주자(朱子)와 송시열의 초상을 봉안하기도 하였다. 6·25 전쟁 때에는 북한군의 숙영지이기도 하였으며, 1971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p> <p>[형태] 서벽정은 담장 안에 자리하며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겹처마 건물이다. 덩벙주초 위에 사각형 기둥을 세웠는데 건물은 정자의 형태가 아니라 서원의 강당 형식으로 건립되었다. 정면 우측 1칸은 누각처럼 바닥을 기둥 가운데에 올려 아궁이를 만들었다. 건물의 연면적은 367㎡ 내외이다.</p> <p>[현황] 서벽정에는 1970년까지 송병선의 판목(板木)이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아 사료로서 가치를 잃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원에 있던 일부 판목을 보관하던 사당이 허물어져 서벽정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1992년 6월 20일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p> <p>[의의와 평가] 서벽정은 조선 시대 사대부의 단아한 재실의 형태를 띠고 있어 화려하지는</p>

않지만 주변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건립된 조선 후기 정자의 형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 『무주 지방 문화재 지표 조사 보고서』(전주 대학교 박물관·전라북도·무주군, 1988)
 - 『문화 유적 분포 지도-무주군』(무주군·원광 대학교 마한·백제 문화 연구소, 2007)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2) 원통사지(圓通寺址)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원통사지(圓通寺址)	소재지(주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원통사로 676, 외 2필지 (죽천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83.08.24.
시대	1698년(숙종 24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 8,643m ²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원통사 외1	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원통사 외1
GPS 정보	북 35.81, 동 127.69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20대)	화장실	O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상근() / 기타(원통사 스님 상시 상주)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input checked="" type="checkbox"/>) / 중() / 하()		판단 이유
			원통사 관리 양호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통사 스님들이 관리, 보존 중 · 진입로가 매우 좁으며 급경사임(겨울철 진입 주의) · 반달곰 출현 주의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터는 원통사가 있던 자리이다. 원통사는 신라 때 처음 짓고, 조선 숙종 24년(1698)에 고쳤다고 하는 유서 깊은 사찰이나, 1949년 여순사건 때 모두 불타 없어졌다. 지금의 건물은 1975년 이후에 새로 지은 것이다. 덕유산의 깊은 계곡에 자리한 원통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싸운 의병들의 요람 이었다. 특히 을사 보호조약(1905)과 정미칠조약(1907)이 체결되었을 때, 문태서(文泰瑞), 신명선(申明善), 김동신(金東臣) 등의 의병장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불교
유형 : 기관 단체/사찰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원통사로 676[죽천리 1-1]
시대 : 현대/현대
문화재 지정 일시 : 1983.08.24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무주문화대전-원통사
<p>[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소속 사찰.</p> <p>[건립 경위 및 변천] 원통사(圓通寺)의 창건과 관련하여 1698년(숙종 24)에 세워진 원통사 중창비(圓通寺重創碑)에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창건 이후 고려 시대까지 원통사의 역사를 전해 주는 사료는 없다. 다만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금산군 불우조에 덕유산 원통사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이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가람고(伽藍考)』, 『범우고(梵宇攷)』 등에도 사명(寺名)이 등장하지만, 사찰의 위치와 이름만을 알려 주는 정도이다. 원통사는 조선 후기에 와서 일대 중흥기를 맞게 되는데, 1698년(숙종 24)에 승려인 탄언·도영·혜왕·일확이 법당과 종각을 중창하였다고 사적비에 전하고 있다. 이전의 원통사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때의 중창 불사로 어느 정도 사격(寺格)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1905년(고종 42)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이후, 의병장 김동신(金東臣)·문태서(文泰瑞)·신명선(申明善) 등의 의병 부대가 원통사를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1949년 여순 사건의 병화(兵禍)로 전당우가 소실되었다. 이후 6·25 전쟁 당시 주지이던 황범인(黃梵仁)이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p>

<p>명천 마을에 임시로 법당을 마련하고 불법을 전하다 1957년에 가람 중창에 착수하여 인법당과 산신각을 건립하였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승려 배정공(裵正空)이 옛터에 서울 삼보 법회 회장으로 있던 승려 황범인의 둘째 아들 황경석(黃慶石)의 시주로 초연교(超然橋), 선초당(善超堂) 등을 지었고 1985년에 대웅전, 1996년에 명부전을 새로 중창하였다.</p> <p>[활동 사항] 정기 예배로 매일 말 천배 묵언 기도를 하며 자비 도량 참법 기도를 수행한다. 신도는 약 300여 명 정도이다.</p> <p>[현황(조직,시설 현황 포함)] 법당, 선방, 산신각, 요사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p> <p>[관련 문화재] 대웅전 영산회상도, 원통사 칠성 탕화, 「원통사 산신각 독성 탕화(圓通寺山神閣獨聖幀畫)」, 「원통사 원통보전 신중 탕화(圓通寺圓通寶殿神衆幀畫)」, 원통사 중창비, 원통사 남봉당 탑(圓通寺南峰堂塔), 원통사 사당 선혜 탑(圓通寺舍堂善惠塔)이 있다. 원통사지(圓通寺址)는 1983년 8월 24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67호로 지정되었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무주 군지』(무주군, 1990) - 『무주 군지』하(무주 군지 편찬 위원회, 2004)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해당 사항 없음

(3) 칠연의총(七淵義塚)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2일)

기본정보			
명칭	칠연의총(七淵義塚)	소재지(주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8 (공정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76.04.02.
시대	1908년	규모/수량/재질	묘소/일원
소유자	산림청, 무주군	관리자	산림청, 무주군
GPS 정보	북 35.83, 동 127.70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덕유산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화장실	O(국립공원 주차장 내 화장실)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덕유산 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시간에 따름 (조사 시 07:00 이후 가능)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덕유산 국립공원 직원 상근)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국립공원 내 위치 및 관리로 인해 상태 매우 양호		
특이사항	· 덕유산 국립공원 내 위치, 탐방로 개방시간에 맞춰 개방 시간 상이 · 반달가슴곰 출현 지, 반려동물 출입 제한 · 조사 당시 공사 중(2024.06.27.-12.05, 배수로 및 마사토 정비)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칠연의총은 구한말에 일본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의병장 신명선(申明善)과 그의 부하들이 잠든 곳이다. 시위대 소속 군인이었던 신명선은 순종 원년(1907) 정미칠조약이 체결되어 우리의 군대가 해산당하자 무주에 들어와 덕유산을 거점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박춘실, 김동신, 문태서 등과 무주·장수·순창·용담·거창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p> <p>순종 2년(1908) 4월 신명선은 계속된 전투로 인해 피로에 지친 부하들과 함께 이곳 칠연계곡 송정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기다리고 있던 일본군에게 기습을 당하였다. 이에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수적인 열세로 150여 명의 대원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p> <p>그 얼마 후 생존해 있던 의병과 인근 부민들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수습하여 이곳저곳에 묻어 두었던 것을 1969년 이 고장 향토예비군들에 의해 흩어진 유해를 다시 수습, 성분하고 묘역을 정리하여 백의총으로 부르다가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칠연의총이라 했다.</p> <p>칠연의총은 기울어져 가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이 서린 곳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근현대
유형 : 유적/능묘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61공정리 답173
시대 : 현대/현대
문화재 지정 일시 : 1976.04.02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무주문화대전-칠연의총
<p>[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구한말 전사한 신명선 의병 부대의 유해를 합장한 무덤.</p> <p>[위치] 칠연의총(七淵義塚)은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통안 마을 은반대에서 0.1km 지점 계곡 왼편에 있다.</p> <p>[변천] 1907년 일본의 강압으로 정미 7조약이 체결되어 군대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조직된 의병 신명선 부대가 일본군의 기습으로 150여 명의 의병들이 전사한 후, 의병 문봉호(文奉鎬)가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유해(遺骸)를 수습하여 송정골에 안치하였다. 1969년 지역의 향토 예비군에 의해 흩어진 유해를 다시 수습하여 성분(成墳)하고 묘역을 정비한 후</p>

<p>‘백의총(百義塚)’이라 불렀다. 1976년 4월 2일 ‘칠연의총’이라 명명하였다. 2003년 12월 11일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을 통해 다시 정비되었다.</p> <p>[현황]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분묘를 정비하고 호석(護石)을 돌렸으며, 계단을 설치하였다.</p> <p>[의의와 평가] 개항기 무주 덕유산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한 신명선을 비롯한 의병군의 유해를 모신 공간으로 항일 의병사에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 지방 문화재 지표 조사 보고서』(전주 대학교 박물관·전라북도·무주군, 1988) - 『무주 군지』중(무주 군지 편찬 위원회, 2004) - 『문화 유적 분포 지도-무주군』(무주군·원광 대학교 마한·백제 문화 연구소, 2007) - 문화재청(http://www.cha.go.kr)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해당 사항 없음

2) 진안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이산묘(驕山廟)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2004.07.30.	

(1) 이산묘(驕山廟)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이산묘(驕山廟)	소재지(주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32, 78-1, 산 23-13 (동촌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2004.07.30.
시대	1907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일원(5,724㎡)
소유자	이산묘봉찬회	관리자	이산묘봉찬회
GPS 정보	북35.75, 동127.39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마이산 도립공원 제 3주차장 이용(70대)	화장실	마이산 도립공원 화장실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X
입장료	X	관람시간	개방 여부 확인 불가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상근(<input type="checkbox"/>) / 기타(<input type="checkbox"/>)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봉찬회 관리로 보존 상태 매우 양호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시 “이산묘 봉찬회”로 검색해야함 · 봉찬회 상시 거주 중 · 봉찬회 소유지로 개방 여부 확인 필요(조사 시는 확인 불가) · 각재 오채열 공적비 비문이 이산묘 앞쪽에 위치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산묘는 조선 건국의 정신과 구한말 구국항쟁의 뜻을 기리는 사당이다. 지역과 전국의 유림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울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순국지사 공병선 선생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의 애국충정을 이르고, 1925년 건립한 이산정사(驕山精舍)가 이산묘 이름의 기원이다. 해방 후 1946년 회덕전(懷德殿)을 건립한 데 이어 영모사(永慕祠)와 영광사(永光祠)를 완공해, 각각 단군 · 태조 · 세종 · 고종의 4성위와 조선 개국 이래의 충신과 유림 40위, 구한말 을사늑약 이후의 충신 · 열사 34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p> <p>사당의 왼쪽 암벽에 주필대(駐蹕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주필대는 태조 이성계가 남원 운봉 환산대첩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개선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금척(金尺)을 받은 것을 기념해 잠시 머물러 시를 읊은 곳으로 전한다. 주필대 암벽 윗부분에는 제사를 지내던 황단(皇壇) 터가 자리하는데, 이곳은 1907년 의병장 이석용을 비롯한 의병들이 국권 수호와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위해 결성한 호남의병창의동맹단의 집결지이다.</p> <p>대한이산묘</p> <p>해동의 명산인 마이산 자락에 자리한 여기 이산묘에는 1924년 12월에 항일순국의 충의를 지키신 한말의 거유 연재 송병선, 면암 최익현 선생의 문인들이 선사의 유적을 추모하고 망국의 혼을 씻고자 이산정사를 창건하고 1946년 9월 회덕전을 건립한데 이어 영광사와 영모사를 건립하였다.</p> <p>회덕전은 국조인 단군왕검, 조선개국조 이태조, 민족문화의 중흥조인 세종대왕, 대한제국의 고종황제 등 4위를 봉안한 곳이고, 영광사는 구한말 을사늑약 이후 국권회복을 위해 항일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순국선열 34위를 봉안하였으며, 영모사는 조선개국 이래 충신명현 41위를 봉안하였다.</p> <p>매년 음력 3월 12일을 기해 백의민족의 민족정기와 얼을 높이 받들고 계승하기 위해 대한이산묘에서 추모대제를 올리고 있다.</p>

이 시설을 2003. 9. 15.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외부 안내문(이산묘)과 내부 안내문(대한 이산묘) 상이함, 안내판 사진에는 내부 안내문 삽입, 특이사항란에 외부 안내문 사진 삽입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32[동촌리 78]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문화재 지정 일시 : 2004.07.30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진안문화대전-
<p>[정의]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있는 사당.</p> <p>[개설]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마이산에 있는 이산묘(驕山廟)는 면암(勉庵) 최익현의 제자이자 고종의 스승인 연재(淵齋) 송병선의 제자들이 친친계(親親契)[송병선 제자 모임]와 현현계(賢賢契)[최익현 제자 모임]를 구성하여 건립하였다. 이산묘에는 회덕전(懷德殿)·영광사(永光祠)·영모사(永慕祠)·대한 광복 기념비 등이 있다. 이산묘가 위치한 마이산은 1907년 정재 이석용이 조직한 호남 의병 창의 동맹단의 집결지였으며, 고천제(告天祭)를 행하던 곳이다. 또한 조선 태조 이성계가 장군 시절 운봉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개선하는 길에 들렀다는 전설이 서려 있기도 하다. 이산묘에는 단군, 태조 이성계, 세종, 고종을 비롯하여 을사년 이후 순국한 의사·열사 및 조선의 명현들을 포함한 79위를 배향한 국내 최대의 사당이다.</p> <p>[위치] 이산묘는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마이산 도립 공원의 남부 주차장 입구 오른쪽에 있다. 호남 고속도로 익산 IC를 지나 익산 분기점에서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를 거쳐 진안 IC로 진출해 바로 만나는 30번 국도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이 길을 따라가다 화전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산 남부 주차장이 있다. 마이산 도립 공원 남쪽 입구 좌측에는 ‘주필대(駐蹕臺)’라 각자가 새겨진 암벽과 그 윗부분에 1907년 호남 의병 창의 동맹단의 집결지인 황단(皇壇) 터가 있다. 이산묘는 황단 터의 아래쪽에 있다. 주필대는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르고 개선하던 중에 머물렀던 곳으로 전한다.</p> <p>[변천] 진안 사람들 중에는 연재 송병선과 면암 최익현을 존중하고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많았다. 송병선은 제자 이도복이 진안에 우거하자 여러 번 진안을 찾아 왔으며, 최익현은</p>

1906년 진안군 성수면 도동리에 있는 삼우당에 머물면서 진안을 순행하였다. 이에 송병선과 최익현을 기리기 위해 친친계(親親契)와 현현계(賢賢契)를 결성하였다. 1924년 친친계와 현현계 회원들은 마이산에서 두 계를 통합하고, 송병선과 최익현을 기리는 사당을 짓기로 뜻을 모았다. 1924년 12월 18일에 충청남도 공주 숙모전(肅慕殿)에서 개최된 경향 유회(京鄕儒會)에서 진안 대표 오채열(吳采烈)의 제안으로 사당 설립을 추진하여 1925년 3월에 이산묘 건축을 시작하였다. 사당은 모두 4칸으로 서쪽은 인지재(仁知齋), 동쪽은 여택헌(麗澤軒)이라 하였다. 또 고경각(高京閣)을 건립하여 송병선과 최익현의 진영을 봉안하고, 그 역내를 통칭하여 이산 정사라 하였다. 문은 치종문(致宗門)이라 불렀으며, 회덕전(會德殿)을 건립하여 조선 태조 고향제를 배향하고 같은 해 9월 12일 향사를 지냈다. 이듬해 봄에 제사를 지내고자 했으나 일제의 탄압이 심하자 제일(祭日)을 바꾸고 제관(祭官)은 10인으로 한정하여 몰래 제사를 지냈다. 그 뒤 일본의 방해와 파괴 공작으로 1927년에 훼손되었다. 광복 후인 1947년 회덕전에 단군과 조선 태조, 세종대왕 등을 배향하고 명칭을 이산 정사(驕山精舍)에서 이산사(驕山祠)로 바꾸었다. 이후 임금을 배향했기 때문에 이산묘라고 개칭하는 것이 옳다는 성균관 사람이 의견에 따라 이산묘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회덕전 아래 동서 양쪽에 사우를 지어 동쪽은 영모사(永慕祠)라 이름하여 조선의 명유(名儒) 40위를 배향하였고, 서쪽은 영광사(永光祠)라 이름 하여 을사늑약 이후 순국한 선열 34위를 배향하였다. 1984년에 전라북도 전주시 건지산에 있던 고종 황제의 위판을 회덕전으로 이전 봉안하여 4위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영모사에 후산 이도복을 추가 배향하였다. 한편 1966년에 한문본 『대한 이산묘지』가 발간되었으며, 1998년에는 진안 문화원에서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형태] 이산묘의 묘우로는 회덕전, 영모사, 영광사, 이산 정사, 강당, 비각, 외삼문, 관리사 등이 있다.

[현황] 이산묘 건립 초기에는 인지재(仁知齋)와 여택헌(麗澤軒) 등이 있었으나 도중에 훼손되고 지금은 회덕전, 영모사(永慕祠)[동무(東廡)], 영광사(永光祠)[서무(西廡)], 제관실,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덕전에는 단군·태조 이성계·세종·고종을 배향하고 있다. 영모사에는 전문식(全文軾)·정희계(鄭熙啓)·남재(南在)·신이충(愼以衷)·하연(河演)·최진형(崔進亨)·이귀산(李貴山)·김만서(金晩緒)·전자온(全自溫)·전자량(全自讓)·박심문(朴審問)·강이성(姜利誠)·김기(金機)·전혜(全惠)·이달손(李達孫)·송림(宋琳)·이숙남(李叔男)·정광필(鄭光弼)·박계현(朴啓賢)·이광필(李光弼)·이항복(李恒福)·오빈(吳玘)·오형(吳珩)·손승경(孫承憬)·신중윤(辛重胤)·태한정(太漢鼎)·윤응남(尹應南)·전대승(全大昇)·김성진(金聲振)·전동흙(全東屹)·정동협(鄭東俠)·김응철(金應哲)·김감(金鑑)·김응종(金應鍾)·원성모(元成模)·이만정(李萬禎)·김경원(金慶元)·이여정(李如瑔)·최만성(崔萬成)·양하룡(梁夏龍) 등 40인이 배향되어 있다. 영광사에는 송병선(宋秉璿)·최익현(崔益鉉)·조병세(趙秉世)·민영환(閔泳煥)·홍만식(洪萬植)·이상설(李相高)·이준(李僑)·고광순(高光洵)·기삼연(奇參衍)·김준(金準)·민공호(閔肯鎬)·이석용(李錫庸)·전기홍(全基泓)·고제량(高濟亮)·김용구(金容球)·김익중(金翼中)·오인수(吳仁洙)·이재명(李在明)·안중근(安重根)·홍범식(洪範植)·김석진(金奭鎭)·정재건(鄭在健)·정동식(鄭東植)·이만도(李晩薰)·장태수(張泰秀)·유도발(柳道發)·김도현(金道鉉)·이회령(李會寧)·황왕석(黃王奭)·이봉창(李奉昌)·김근배(金根培)·윤봉길(尹奉吉)·백정기(白貞基)·설진영(薛鎭永) 등 34인이 배향되어 있다. 이산묘는 2004년 7월 30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20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

<p>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p> <p>[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 지방 문화재 지표 조사 보고서』(전북 대학교 전라 문화 연구소, 1989) - 『진안 군사』(진안 군사 편찬 위원회, 1992) - 『전북 향교 원우 대관』(전라북도 향교 재단, 1994) - 『대한 이산묘지』(진안 문화원, 1998) - 정영태, 「이산묘의 건립과 변천에 대한 연구」(전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8)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3) 장수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논개사당(論介祠堂)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81.04.11.	
2	수열비(樹烈碑)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84.04.01.	
3	월강사(月岡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84.04.01.	왜란
4	절렬양정씨지려 (節烈兩丁氏之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2000.11.17.	

(1) 논개사당(論介祠堂)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논개사당(論介祠堂)	소재지(주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3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81.04.11.
시대	1954년 창건, 1974년 이건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28,274㎡
소유자	장수군	관리자	장수군
GPS 정보	북 35.64, 동 127.52	기타	논개시비공원, 의삼사 내 위치
실태조사표			
주차장	30대 주차 가능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하절기 : 09-18시 동절기 : 09-17시

전시관(실)	기념관 O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소화전, 방수총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관리가 매우 잘되어 있음		
특이사항	· 관광사무소 및 관광 안내소 有 · 논개생장향수명비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논개사당은 임진왜란때 진주 축석루에서 일본군 장수 게야무라 로꾸스케를 꺾이고 의롭게 죽은 주논개^{朱論介:1574-1593}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이 사당은 원래 1955년 남산공원에 지어졌으나, 1974년 현재의 위치로 확장 이전하였다. 논개의 영정은 윤여환 화백이 그렸으며, 현판은 함태영^{咸台永}선생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쓴 것이다. 장수군에서는 의암 주논개가 태어난(음)9월3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논개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대제를 지내고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참고문헌: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2) 수열비(樹烈碑)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수열비(樹烈碑)	소재지(주소)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35-4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1984.04.01.
시대	정유재란(1597)	규모/수량/재질	비석/1기
소유자	장수군	관리자	장수군
GPS 정보	북 35.70, 동 127.58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공용주차장(50대)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관리상태 매우 양호
특이사항	공용 장애인 주차공간(3대) 및 전기차 충전공간(1대) 有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수열비는 열녀^{烈女} 해주 오씨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양사순의 아내였던 오씨 부인은 정유재란¹⁵⁹⁷때 왜병이 집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며 희롱하자, 자신의 가슴을 칼로 잘라 왜병에게 던지고 자결하였다. 오씨부인의 이 같은 행동은 마을에 열녀의 기상을 심은 것이라 하여 나라에서 비를 세워 주고 마을의 이름도 수열이라 고쳤다.</p> <p>비문은 조선 선조 임금의 손자인 낭선군^{郎善君} 우^侯가 쓴 것이다.</p> <p>***열녀의 열 한자 확인 필요</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참고문헌 :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3) 월강사(月岡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월강사(月岡祠)	소재지(주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도장골길 37-6 (월강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1984.04.01.
시대	1828년(순조 28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일원
소유자	월 * * *	관리자	장 * * *
GPS 정보	북 35.73, 동 127.59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간이주차장 10대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미개방(내부 공사중)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O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현판 도색이 모두 벗겨짐		
특이사항	· 현재 미개방 · 내부 공사 중이지만, 공사 사항 및 일정에 대해 바깥쪽에 게시되어있지 않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월강사는 순조 28년(1828)에 학문과 충절로 유명한 백장 · 송보산 · 김남택 · 최경희 등 네 분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월강사가 세워진 곳은 임진왜란 때 장수 현감이었던 최경희가 의병을 모아 병사를 훈련시키던 곳이라고 한다.</p> <p>고정 5년(1868)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1948년에 장수 유림의 추진으로 다시 세워졌다. 1974년에는 백여옥 · 김남중 · 송수산을 추가로 모시면서 지금은 일곱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p> <p>이곳은 지역의 여러 문중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조들의 업적을 내세우고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곳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제31호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참고문헌 :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4) 절렬양정씨지려(節烈兩丁氏之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절렬양정씨지려 (節烈兩丁氏之閭)	소재지(주소)	전북 장수군 산서면 계월로 319-23 (하월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2000.11.17.
시대	1819년(순조 19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1동
소유자	정 * * *	관리자	정 * * *
GPS 정보	북 35.56, 동 127.39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3대(경로당 주차장)	화장실	0(경로당 화장실)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옥외 소화정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현판의 벗겨짐 등은 없으나 전반적인 관리에 아쉬움이 존재		
특이사항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절렬양정씨지려는 조선시대 절부와 열녀로 칭송받은 두 여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두 여인 모두 정황(1512~1560)의 후손이므로 '절렬양정씨지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한 분은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봉변을 당하자 물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고, 가른 한 분은 도둑에게 만행을 당하는 남편을 몸으로 막아 지켜낸 후, 남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다가 남편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p> <p>현재의 건물은 1944년에 세운 것이며 본래 위치가 아니다. 그러나 정려는 받은 때는 선조 37년(1604)과 경종 3년(1723)으로 그 시기가 빨라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유교적 윤리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참고문헌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4) 임실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상이암부도(上耳庵浮屠)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1995.06.20.	
2	이석용생가(李錫庸生家)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97.07.18.	

1) 상이암부도(上耳庵浮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상이암부도(上耳庵浮屠)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산길 658 (성수면, 상이암)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95.06.20.
시대	조선 중기	규모/수량/재질	석탑/3기 중 무명스님의 부도 1기
소유자	상이암	관리자	상이암
GPS 정보	북35.63, 동127.42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5대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연중무휴)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상근(<input type="checkbox"/>) / 기타(상이암 내 스님 상시)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소화장치가 있으나 절 특성상 초가 항시 켜져 있음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상이암 내에서 관리중이나 풍화 등으로 인한 벗겨짐이 많음
특이사항	· 상이암 절 위쪽에 위치 · 400M 아래 문화 관광 해설사 有(11:00-11:30 / 13:30-14:00 / 15:00-15:30) · 진입로가 매우 좁아 차량 이동 시 주의를 요함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상이암 안에 있는 3기의 부도이다. 오른쪽 부도 1기는 유형문화재 제150호로 조선 중기에 조성되었다. 부도의 몸체나 덮개돌 위에 얹은 노반, 노발(露綵), 보개(寶蓋) 등의 형식과 구조, 조각 수법이 매우 뛰어나다.</p> <p>왼쪽의 부도 2기는 문화재자료 제12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해월당 부도는 향아리 모양의 몸체 위에 8각형의 옥개석(屋蓋石)을 올리고 그 위에 보주를 갖춘 것으로 높이는 194cm이다. 두곡당 부도는 석종형 부도종로 8각의 하대석 위에 고복형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보주를 얹었으며 높이는 126cm이다. 현재 부도의 상태와 형식 면으로 볼 때 조선 중기에 조성된 것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디지털임실문화대전
참고문헌 :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2) 이석용생가(李錫庸生家)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이석용생가(李錫庸生家)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봉3길 56-3 (성수면, 이석용생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97.07.18.
시대	19세기 후반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일곽512㎡
소유자	이 * * *	관리자	이 * * *
GPS 정보	북 35.64, 동 127.34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10대 주차 가능	화장실	O(잠겨있음)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O	O	옥외 소화전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전반적인 관리가 매우 잘되어 있으나, 문 한쪽이 떨어져 있음
특이사항	· 진입로가 매우 좁음 · 화장실이 잠겨 있음 · 초가지붕, 황토 외벽 등 전반적인 관리가 매우 잘되어 있으나 문 한쪽이 떨어져 있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집은 이석용이 태어나서 1903년까지 살던 곳으로 19세기 후반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석용은 대한제국 융희1년(1907)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기삼연(奇參衍)등 호남의 유림들과 호남의병창의동맹단(湖南義兵倡義同盟團)을 결성하였다. 이후 이석용은 의병장 김동신(金東臣)과도 합세하여 진안, 장수 등지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이석용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14년 4월 서른여섯의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 그에게는 1962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이 집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석용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깃든 곳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디지털임실문화대전
참고문헌 :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5) 남원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구천사(龜川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84.04.01.	왜란
2	남원교룡산성 (南原蛟龍山城)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73.06.23.	왜란
3	남원읍성(南原邑城)	사적	1982.11.03.	왜란
4	남원 만인의총 (南原 萬人義塚)	사적	1981.04.01.	왜란
5	양대박부자충의문 (梁大樸父子忠義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2000.11.17.	왜란
6	용장서원(龍章書院)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84.04.01.	왜란
7	풍양사(楓陽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2000.06.23.	호란

(1) 구천사(龜川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구천사(龜川祠)	소재지(주소)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688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1984.04.01.
시대	조선 중-후기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일원
소유자	밀 * * *	관리자	밀 * * *
GPS 정보	북 35.37, 동 127.31	기타	미개방
실태조사표			
주차장	100M 앞 마을회고나 주 차장(30대)	화장실	O(100M 앞 마을회관)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미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보존 상태 양호		
특이사항	· 미개방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사당은 박춘성^{朴春成}, 박흥남^{朴興男}, 박연수^{朴延壽} 등 밀양박씨의 선조 세 분을 추모하여 세웠다. 조선 철종 7년 1856에 세운 것으로, 박흥남의 별칭을 따서 <구암사>라고 이름하였다. 이 구암사는 <삼충사^{三忠祠}>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 모신 세 분이 모두 충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박춘성을 밀산군^{密山君}에 봉해졌다. 박흥남과 박연수는 박춘성의 손자이자 형제간으로 임진왜란 때의 공으로 선무훈^{宣武勳}을 받았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688
시대 : 조선/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4.04.01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남원문화대전-구천사
<p>[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 있는 임진왜란 공신 3명의 충신을 모신 사당.</p> <p>[개설] 임진왜란 당시 충신이었던 박춘성(朴春成), 박흥남(朴興男), 박연수(朴延壽) 세 사람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삼충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춘성은 조선 중기 내시(內侍)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몽진(蒙塵) 당시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가를 호위하였다. 그 공로로 참판(參判)의 벼슬을 받고 밀산군(密山君)에 봉해졌다. 박춘성의 손자 박흥남과 박연수는 조선시대 의병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형제가 이치전투(梨峙戰鬪)와 웅치전투(熊峙戰鬪)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고 진주성(晋州城) 싸움에서 용전분투하전 중 진주성이 함락되자 김천일, 최경희 장군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란이 끝나고 1604년에 호성원종공신 3등에 올랐으며 조부 박춘성과 함께 '삼충(三忠)'이라 불리며 구천사에 봉안되었다.</p> <p>[형태] 앞면 3칸, 옆면 2칸 맞배지붕의 기와집이다. 규모가 아담하고 소박한 건축물이다. 옆 1칸 앞쪽은 높은주춧돌을 받친 겹처마 형태로 회랑처럼 공간을 두었다. 특히 3명의 충신의 행적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사우 벽면에 10점의 그림으로 그렸다.</p> <p>[현황] 처음 박춘성과 그의 손자 박흥남과 박연수 3명의 충신 위패를 모신 이후, 추가로 모신 사람은 없다.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58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p> <p>[의의와 평가] 건축물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겹처마 두리기등으로 건물 자체는 그리 낡지 않았으나 단청이 다소 변색되어 있다. 색이 바랬으나 그들의 충성심을 그림으로 그린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그림 표현이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지』(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 오병무 외 역, 『용성지』(남원문화원, 1995) - 이석홍, 『남원의 문화유산』(남원문화원, 2001) -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8-전북편-(기문당, 2005)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p>전경</p>	<p>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p>
	

(2) 남원교룡산성(南原蛟龍山城)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남원교룡산성 (南原蛟龍山城)	소재지(주소)	전북 남원시 산곡동 16-1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73.06.23.
시대	백제-임진왜란	규모/수량/재질	석조건축물/일원
소유자	남원시	관리자	남원시
GPS 정보	북 35.42, 동127.36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30대	화장실	O(50m아래)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교룡산 국민관광지내 위치로 인한 보존 양호
특이사항	· 교룡산 국민관광지 내 위치해 있음 · 3142m 길이의 산성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돌로 쌓은 이 산성은 해발 518m인 험준한 교통산을 에워싼 것으로, 둘레는 3.1km 가량에 이른다. 산 중턱에 성벽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며, 동쪽에 계곡이 있어 그곳에 반월형 출입문을 두었다. 성을 처음 쌓은 내력은 분명치 않으나, 그 터와 형식으로 보아 백제 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1592) 때 승병대장 처영(處英)이 고쳐 쌓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하였다. 성안에는 우물이 99개나 있었고 밀덕봉과 복덕봉 등 산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유사시 인근 주민이 대피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지였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1973.06.23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참고문헌 :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3) 남원읍성(南原邑城)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남원읍성(南原邑城)	소재지(주소)	전북 남원시 동충동 464-1번지
지정 유형	사적	지정일	1982.11.03.
시대	조선시대	규모/수량/재질	석조건축물/33,307㎡
소유자	남원시 등	관리자	남원시
GPS 정보	북 35.41, 동127.37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30대(읍성 뒤 주차장)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X	공사 중으로 인한 확인 불가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복원 공사중이지만 현재 상태가 매우 안 좋음		
특이사항	· 복원 공사 중(2025년 완공 예정) · 만인의총과 500m 거리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통일신라시대에 남원에는 지방 행정중심인 소경(小京)이 자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곽이 있었다. 중국식 읍성을 본 따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규모는 3.4km 가량의 둘레에 높이 4m 정도였으며, 사방에 문을 두었다. 정유재란(1597) 때 이곳에서 조명연합군(조선군 1,000명, 명군 3,000명)과 성안의 주민 6,000여명이 합세하여 오만 육천여 왜군의 공격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성은 함락되었고 만 여명에 달하는 민관군이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투 중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고 민가 몇 채만 남았다고 하니 당시의 참화를 짐작할 수 있다.</p> <p>시련과 좌절을 딛고 선 조상들의 기상을 간직해 온 남원읍성은 동학 혁명과 전라선철도 개설 등으로 많이 허물어졌는데, 최근에 일부를 복원하였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유적(일반)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64-1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2.11.03
문화재 지정 번호 : 사적
출처 : 디지털남원문화대전-남원읍성
<p>[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석성.</p> <p>[위치] 남원읍성은 현재 남원시 왕정동 관왕묘(關王廟)가 있는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지산 학원까지의 남쪽 성벽, 여기서 북쪽으로 남원시 농협 창고가 있는 곳까지의 동쪽 성벽, 그리고 서쪽으로 옛날 충열사가 있던 마을 뒤를 지나는 북쪽 성벽, 다시 여기서 휘어져 관왕묘 사거리 동쪽 성벽의 서쪽 끝부분에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지리적 위치는 북위 35° 24' 39", 동경 127° 22' 44.7", 해발고도 93m이다.</p> <p>[건립경위] 통일신라시대에 남원에는 지방 행정 중심인 소경이 자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석성은 중국의 성을 모방하여 조선 초기에 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p> <p>[현황] 남원읍성의 축성은 판상 활석을 사용한 협축법을 이용하였으며, 규모는 둘레 2.5 km 정도, 높이 4m 정도이고 내부 부속 시설로는 문루·옹성·적대·우물·해자 등이 있었다. 그</p>




러나 동학농민운동과 전라선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허물어졌으며, 동충동의 옛날 충열사가 있었던 마을 뒤 약 180m 만이, 그것도 헐린 채 기단부만 남아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 성의 일부를 복원하였다. 1982년 11월 3일 사적 제298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사적으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문화재지』(전라북도, 1990)
- 『남원지』(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 『남원문화유적분포지도』(남원시·전북대학교박물관, 2004)
- 강원종, 「남원지역의 산성 소고」(『연구논문집』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사진1	사진2
	

<p>사진3</p>	<p>사진4</p>
	
<p>전경</p>	<p>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p>
	<p>해당 사항 없음</p>

(4) 남원 만인의총(南原 萬人義塚)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남원 만인의총 (南原 萬人義塚)	소재지(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3 (향교동, 만인의총)
지정 유형	사적	지정일	1981.04.01.
시대	1597년(조선 선조 30년)	규모/수량/재질	목조 건축물/89,168㎡
소유자	국가유산청	관리자	국가유산청
GPS 정보	북 35.42, 동 127.37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150대(장애인 구역 및 대형 주차 가능)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3-10월 : 09:00-18:00 11-2월 : 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관(실)	○(만인의 총 역사 문화관)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보존상태	상(<input checked="" type="checkbox"/>) / 중() / 하()		판단 이유
			관리 상태 매우 양호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월요일 휴관 · 예약시 문화관광해설 가능 · 남원부팔출신사적비, 만인의총비, 만인의사순의탑 존재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들의 임진년 침공(1592년)의 패인이 호남 점령 실패에 있다고 여기고 전라도를 철저히 공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왜군은 경상, 전라, 충청을 잇는 요충지인 남원에 병사 5만6천 여 명을 보내 8월 12일 남원성을 포위하였으니 이복남 등이 이끌던 1천 여 군사와 양원이 이끌던 명나라 군사 3천 여 명 그리고 돌맹이, 농기구 등으로 무장한 남원성민 6천 여 명이 필사적인 항전을 벌였다. 하지만 슬프게도 남원성을 지키던 민·관·군 1만 여 명은 죽임을 당하고 남원성은 8월16일 함락되었다.</p> <p>전란이 끝난 후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한 곳에 묻어 1612년(광해군 4년)부터 사당을 세워 제향하였으며 1964년 향교동 현재 만인의총 자리로 이전하여 그 숭고한 넋을 기리고 있다.</p> <p>남원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뜨거운 열이 서려있는 곳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능묘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628
시대 : 조선/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1.04.01
문화재 지정 번호 :
출처 : 디지털남원문화대전- 남원 만인의총
<p>[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정유재란 때 왜적과 맞서 싸우다 순절한 사람들을 합장한 무덤.</p> <p>[건립경위] 임진왜란이 끝난 뒤 남원 백성들이 성민 6,000여 시신과 병사 4,000여 시신을 한 무덤에 묻고 묘역을 정리하였다. 1612년(광해군 4) 총렬사를 건립하여 접반사 정기원 등 8충신의 위패를 모셨으며, 1653년(효종 4)에 사액받았다. 1675년(숙종 1)에 남원 동충동으로 이건되었다. 1879년(고종 8) 사우가 철폐되어 단을 설치하고 봄 가을에 향사했다. 일제강점기에 단소(壇所)가 파괴되고 재산이 압수당했으며 제사를 금지당했다가 해방 이후 다시 사우를 일으키고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남원군</p>

과 군민이 합심으로 196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사적 102호였던 이곳은 임의 이장 사유로 해제되고 지방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었다가 1981년 4월 1일 다시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사적으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남원 만인의총 광장에 안내판과 안내소가 있다. 철문을 지나면 맞배지붕 형태의 외삼문을 지나서 솥을삼문 형태의 내삼문이 있고, 정면 5칸 측면 2칸의 충렬사가 있다. 뒤편에 정유재란 당시 순국한 1만여 명을 합장한 대형 무덤이 있다. 철문·외삼문·내삼문·사당·무덤이 앞뒤 순서대로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현황]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유적 정화 사업을 마쳤다. 남원 만인의총에서는 정유년 음력 8월 16일에 해당하는 매년 9월 26일에 제향하며 뜻을 기리고 있다. 잘 단장되고 정돈된 시설로, 모든 사람이 무료로 입장하는 문화재이다.

참고문헌

- 『용성지』
- 『남원지』(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 이석홍, 『남원의 문화유산』(남원문화원, 2001)
-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8-전북편-(기문당, 2005)

④ 유적지 사진



<p>사진3</p>	<p>사진4</p>
	
<p>전경</p>	<p>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p>
	<p>해당 사항 없음</p>

(5) 양대박부자충의문(梁大撲父子忠義門)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양대박부자충의문 (梁大撲父子忠義門)	소재지(주소)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530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2000.11.17.
시대	조선 정조 20년(1796)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1동
소유자	남원양씨충장공파종중	관리자	남원양씨충장공파종중
GPS 정보	북 35.39, 동 127.34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10대(유적 앞 임시주차가능)	화장실	O(200m 밖 마을회관, 주말 미개방)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도색이 약간 벗겨졌으나 종중 관리 로 인한 보존 상태 양호
특이사항	· 종중 총무 연락 시 안내 가능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구조물은 조선 중엽의 충신 양대박과 그의 아들을 추모하여 1796년에 세운 정려이다. 양대박은 임진왜란¹⁵⁹² 때 남원에서 모은 의병을 지휘하여 운암전투에서 왜병을 격파하였고, 그의 아들 경우^{慶遇}는 군량미를 모아 명나라 군대에 제공하였다.</p> <p>건물 앞면에 팔각으로 다듬은 돌기둥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건물 안에는 양대박 부자가 행한 충절의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 들어있다. 정려의 외관은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530
시대 : 조선/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2000.11.17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남원문화대전-양대박부자충의문
<p>[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있는 임진왜란 때의 충신 양대박 부자를 추모하기 위한 비와 비각.</p> <p>[개설] 양대박(梁大樸)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아서 고경명과 함께 금산에서 왜적과 싸웠고, 그의 아들과 진산을 지키다 진중에서 병을 얻어 1592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 양경우(梁慶遇)는 군량미를 모아 명나라 군대에 제공하였다.</p> <p>[변천] 1796년 양대박 부자의 충의를 추모하기 위해 비석과 정려를 세웠다. 정려각은 조선 후기 형태이며, 정려각 지붕과 주변 담장의 기와가 양기와인 것과 정려 대문이 페인트 칠한 철문인 것으로 보아 비교적 최근에 재정비한 듯하다. 2000년 11월 17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0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p> <p>[형태] 양대박부자충의문은 전면에 팔각으로 다듬은 돌기둥을 세운 것이 특이하며 공포의 형태나 화반(花盤)의 모습, 전체 외관은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 정면 1칸,</p>

<p>측면 1칸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 형태에 근래에 양기와를 입힌 조선 후기 정려 양식이다. [현황]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에 맞배지붕 형태의 자그마한 정려로 바깥 현판에 부자충의문(父子忠義門)이라 하였고, 안쪽에 유명조선국충신(有明朝鮮國忠臣)으로 시작하는 충의 행적을 새긴 비석이 있다. 검정 바탕에 전서체 흰 글씨의 현충각(顯忠閣) 현액, 전왈차인절의(傳曰此人節義)로 시작되는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된 어제(御製) 현액,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양대박의 행적 현액이 안쪽 위 삼면에 걸려 있다. 비석에는 “유명조선국충신 증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 통훈대부 제용감 주부 양대박지려(有明朝鮮國忠臣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通訓大夫濟用監主簿梁大樸之間)”라는 글귀가 새겨 있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절의록』 - 『호남삼강록』 - 『용성지』 -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의병사』상(선명출판사, 1990) - 『남원지』(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 이석홍, 『남원의 문화유산』(남원문화원, 2001) -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8-전북편-(기문당, 2005)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6) 용장서원(龍章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용장서원(龍章書院)	소재지(주소)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동길 7-1 (상동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1984.04.01.
시대	고려-조선시대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일원
소유자	남 * * *	관리자	남 * * *
GPS 정보	북 35.39, 동 127.34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50m 앞 20대 주차 가능)	화장실	50m 앞 마을 회관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공사중으로 인한 폐쇄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내부 공사중으로 인해 자세한 판단은 불가하나, 가시적인 상태 양호		
특이사항	· 양대박부자충의문 250M 거리 · 현재 화장실 보수 공사중으로 인한 진입 불가 (공사기간 : 2024.11.07.-2025)		

② 유적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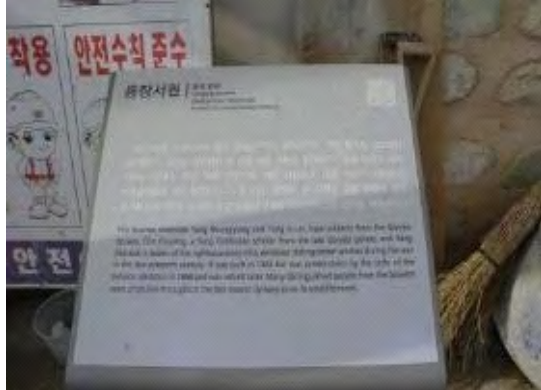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서원은 고려시대의 충신 양능양^{梁能讓}과 양주운^{梁朱雲}, 고려 말기의 성리학자 김구용^{金九容}, 그리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의병장 양대박^{梁大樸} 등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다. 조선 태종 2년¹⁴⁰²년에 처음 세웠으나, 고종 5년¹⁸⁶⁸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헐렸다가 그 후 다시 세웠다. 이 서원은 설립 때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유교 교육의 산실로 자리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644
시대 : 고려/고려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4.04.01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남원문화대전-용장서원
<p>[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있는 고려 충신 양능양 등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p> <p>[개설] 용장서원은 고려 목종 때 김치양 일파의 난으로 은거한 절의의 충신 양능양(梁能讓)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고려 때 삼별초의 난을 평정한 양주운(梁朱雲)과 고려 후기에 대사성을 지낸 김구용(金九容), 임진왜란 때의 공신 양대박(梁大樸)을 봉안하고 있다. 매년 음력 3월 17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5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p> <p>[변천] 1302년(충렬왕 28) 처음 세웠을 때는 서원의 이름을 용성사(龍城祠)라 하였다. 그 후 1402년(태종 2년)에 용장 서원(龍章書院)이라 개칭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된</p>

<p>것을 조선 정조 때 지금의 위치에 중건하였다. 그 후 1868년(고종 5)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훗날에 다시 세웠다.</p> <p>[형태] 건축물 출입구에 용장서원이라는 현판이 내걸린 솟을삼문이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강당이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칸 반의 팔작지붕 형태이다. 기둥의 경우 전면의 것은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방주이다. 양기와 지붕을 덮었다. 평면에는 중앙 2칸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각 1칸씩 방을 배치하였다. 강당 중앙에 경의당(敬義堂)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강당 뜰 앞에는 1962년에 세운 기적비가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다. 팔작지붕으로 겹처마 형태이다. 기둥은 두리기둥이며, 양쪽 박공 머리에 병풍판을 달았다. 정면 3칸은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분할하고 두 짝 열 개의 교살문을 달았다. 정면 중앙에는 송덕사(崇德祠)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서원은 돌담장으로 둘러쳐 있으며 사당 정면 중앙에 내삼문을 내었는데 평상문이다. 내삼문은 두리기둥이 쓰였으며 양기와를 얹었다.</p> <p>[현황] 강당과 사당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주위 경관도 좋을 뿐 아니라 뜰 앞의 정원을 잘 가꾸어놓아 경관이 좋다.</p> <p>[의의와 평가] 남원 충신들의 사당으로, 김구용을 제외하면 모두 남원양씨 충신들을 모셨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충절들을 모신 서원으로서의 의의가 크며, 특히 외삼문, 강당, 내삼문, 사우 등이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는 건축물이다. 십노사와 함께 호남 지방의 전형적인 서원 형태의 특징을 보여준다. 용장 서원과 십노사는 사당이 팔작지붕인 점 또한 공통적인 특징이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지』(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 오병무 외 역, 『용성지』(남원문화원, 1995) - 이석홍, 『남원의 문화유산』(남원문화원, 2001) -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8-전북편-(기문당, 2005)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1</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2</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3</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4</p> 
<p style="text-align: center;">전경</p>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사항 없음</p>

(7) 풍양사(楓陽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풍양사(楓陽祠)	소재지(주소)	전북 남원시 대강면 곡촌안길 34-18(풍산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2000.06.23.
시대	1905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일원
소유자	밀양박씨무은공파종중	관리자	밀양박씨무은공파종중
GPS 정보	북35.42, 동 127.26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4대)	화장실	O(150m 아래 경로당)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미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현판이 약간 벗겨지긴 했으나, 전반적인 보존 상태 양호
특이사항	· 주차 후 150m 가량 마을길 도보 이동 · 미개방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사당은 밀양박씨 박세중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으로, 1685년에 처음 짓고 1905년에 고쳤다. 1595년 남원에서 태어난 박세중은 어려서부터 강하고 용맹하였으며, 23세 때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공을 세워 각각 <정사원종공신>과 <진무원종공신>에 올랐다. 사당 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박세중 집안의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126-1
시대 : 조선/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2000.06.23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남원문화대전-풍양사
<p>[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사당.</p> <p>[개설] 조선시대 무신 무은(霧隱) 박세중(朴世中)을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 이른바 ‘박세중가전고문서(朴世重家傳古文書)’를 보관하고 있다. 박세중은 고려시대 문신 밀성부원군(密城府院君) 박언부(朴彦孚)의 13세손이며 참판이 된 박검종(朴儉宗)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아 23살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 1등에 오르고,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는 원수 장만(張晩)을 따라 많은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2등에 올랐으며, 1640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건축물은 밀양박씨 무은공파(霧隱公派) 종중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2000년 6월 23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55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p>

<p>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p> <p>[변천] 1685년(숙종 11)에 건립되었고 1905년(고종 42)에 고쳐 지었다.</p> <p>[형태] 면적은 417㎡이다. 전면 3칸, 측면 1칸의 일(一)자형 맞배지붕 건물로, 부연(附椽)과 방풍판을 달고, 앞에 뒷간[退間]을 두었다. [현황] 비교적 훼손은 없지만, 무너질 듯 약간 기울어 축대로 받쳐놓았다가 최근에 보수하였다. 단청을 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퇴색하였다.</p> <p>[의의와 평가] 호남 지방에서 개인이 세운 전형적인 사당이다. 조선 후기의 사당이나 재실의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지』(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 오병무 외 역, 『용성지』(남원문화원, 1995) - 이석홍, 『남원의 문화유산』(남원문화원, 2001) -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8-전북편-(기문당, 2005)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1</p>	<p>사진2</p>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6) 순창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구암정(龜岩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90.06.30.	
2	설진영서실(薛鎭永書室)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98.01.09.	
3	순창객사(淳昌客舍)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1974.09.27.	
4	어은정(漁隱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90.06.30.	왜란
5	영광정(迎狂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90.06.30.	

(1) 구암정(龜岩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구암정(龜岩亭)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28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1990.06.30.
시대	1901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1동
소유자	남원양씨종중	관리자	순창군
GPS 정보	북 35.43, 동 127.20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6대)	화장실	O(공용, 푸세식)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나, 현판 벗겨짐이 있으며 앞뜰 관리가 부실함
특이사항	· 주차장 진입로가 매우 좁아 진입이 힘들 · 표지판이 없어 거의 눈에 띄지 않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구암정은 조선 성종 대의 순창 출신 학자인 구암 양배^{龜巖 楊培}를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901년에 지은 정자이다. 양배는 일찍부터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연산군 때의 사화^{士禍}로 선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동생인 양돈^{楊墩}과 함께 고향에 은거하였다.</p> <p>구암정이 있는 만수탄 천변에는 원래 양배와 양돈이 정자를 짓고, 낚시를 즐기던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를 일러 배암 또는 돈암이라 부르며, 합쳐서 형제암이라고도 하난.</p> <p>정조 12년¹⁷⁸⁸ 적성면 지북리에 지계서원을 세워 양배를 비롯한 선현들을 추모하였다. 그러나 이 서원은 고종 5년¹⁸⁶⁸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졌다. 이를 안타까워한 후손들은 양배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양배가 동생과 함께 낚시를 즐기던 자리에 지금의 정자를 다시 지었다.</p> <p>일제 강점기 항일 우국지사였던 송병선과 송병순 형제는 이곳 구암정에 자취를 남겼다. 형인 송병선이 쓴 ‘구암정기’와 동생인 송병순이 쓴 시가 편액으로 전한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생활·민속/생활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28
시대 : 근대/개항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0.06.30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제131호
출처 : 디지털순창문화대전-구암정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 있는 개항기에 중건된 누정.

[개설] 구암정(龜巖亭)이 있는 만수탄(萬壽灘) 천변은 순창 출신의 덕망 높은 선비인 양배(楊培)가 노닐던 곳이다. 양배의 자는 이후(而厚), 호는 구암(龜岩)으로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와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순창의 강호(江湖)에 낙향하여 아우 양돈(楊墩)과 함께 만수탄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세상 시름을 잊고자 하였다. 지금까지도 적성강(赤城江) 상류 만수탄에는 양배와 양돈 형제가 고기를 낚던 바위가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위를 일러 배암(培巖) 또는 돈암(墩巖)이라 부르며, 이 둘을 합쳐서는 형제암(兄弟巖)이라고도 한다.

[위치] 구암정이 위치한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의 '구미(龜尾)'는 거북 형상의 바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남원 양씨(南原楊氏)의 종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운데골(中洞), 동쪽 마을인 장작골(龍洞), 서쪽 마을인 뒤주골[注書洞] 등 총 3개 마을을 통칭하는 것이다. 뒤주골 남쪽 길가에 있는 거북 바위를 지나 동남쪽의 섬진강 상류인 만수탄 위에 구암정이 자리하고 있다.

[변천] 구암정의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6세기 초로 짐작하고 있다. 양배가 세상을 떠난 후 사림(士林)에서는 지계 서원(芝溪書院)을 건립하여 배향해 왔으나, 1868년(고종 5) 서원 철폐령에 의해 서원이 철거되자 이를 안타까워한 후손들이 양배의 덕망을 흠모하고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1901년 구암정이 원래 있던 자리에 정자를 중건(重建)하여 현재까지 보존해 오고 있다.

[형태] 구암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가운데 1칸의 방이 가설되어 있다.

[현황] 구암정 일대의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서술한 「구암정기(龜巖亭記)」를 보면, 맑은 만수탄의 물 흐름에 주변의 특출한 세 봉우리가 감지된다. 이러한 경치를 정면으로 굽어볼 수 있는 곳에 구암정의 터를 잡았기 때문에 경치가 매우 뛰어나다. 예전에는 정자 둘레에 수십 그루의 오동나무가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을 뿐이다. 또한 구암정 뒤쪽으로는 두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다. 2013년 현재 구암정의 정면을 제외한 삼면에는 나지막이 돌담이 둘러져 있고, 경내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야만 한다. 1990년 6월 30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남원 양씨 대종회에서 관리한다.

[의의와 평가] 양배의 아우인 양돈이 뒷날 인근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로 옮겨 살며 세운 광제정(光霽亭)과 형의 정자인 구암정은 두 형제의 풍류가 녹아든 장소성의 중심 공간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91)
- 최승범, 「전북의 누정-낙덕정」(『전북 일보』, 1996. 7. 26)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순창군 동계면(<http://dg.sunchang.go.kr>)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p>전경</p>	<p>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p>
	

(2) 설진영서실(薛鎭永書室)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설진영서실(薛鎭永書室)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 25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98.01.09.
시대	1869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1동
소유자	설 * * *	관리자	순 * * *
GPS 정보	북 35.33, 동 127.09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9대 주차 가능)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미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O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문중 관리로 인한 보존 상태 양호		
특이사항	· 방문시 미개방 상태였으나, 인근 주민들 청취 시, 평소 개방한다고 함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남파 설진영(1869~1940)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던 곳이다.</p> <p>설진영은 1895년부터 기우만(奇宇萬)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체결되자 민족사상을 갖춘 제자를 기르기 위해 서실을 열고 학문 연구와 애국지사 배출에 온 힘을 바쳤다.</p> <p>그 후 1940년 일본이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창씨개명령을 내리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姓)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서실 앞 우물에 몸을 던져 순국하였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 25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8.01.09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순창문화대전-설진영서실
<p>[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의 유학자 설진영이 세운 서실.</p> <p>[개설] 설진영(薛鎭永)[1869~1940]은 본관이 순창(淳昌), 자는 도홍(道弘), 호는 남파(南坡)·울재(栗齋)이다. 1895년(고종 32) 명성 황후가 시해되자 스승 기우만(奇宇萬)[1846~1916]과 함께 장성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국권이 강탈당하자 순창으로 낙향하여 아미산(峨眉山) 남쪽에 서실(書室)을 세우고 이곳에서 글을 읽으며,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설진영의 서실을 통해 많은 인재와 항일 애국지사가 배출되었다. 1940년 일본이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인 일본식 성명 강요[創氏改名]에 분함을 참지 못하다가 성씨는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절명시(絶命詩)를 적은 유서를 남긴 채 우물에 투신 자결하였다.</p> <p>[위치] 설진영서실(薛鎭永書室)은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 25번지 동전 마을 동쪽 끝자락에</p>

<p>있다.</p> <p>[변천] 1910년에 설진영이 후학을 양성하고 민족 사상을 배양하기 위해서 건립하였다.</p> <p>[형태]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왼쪽부터 방과 방, 그리고 대청으로 이어지며 방과 대청 사이는 분합(分閤)이 설치되어 필요에 따라 모두 터서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모아 놓고 강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청 전면에도 분합을 달아 여름에는 걸어 올려 사용하였다. 건물의 앞면과 뒷면 모두에 툇마루가 붙어 있다. 건립 당시에는 초가였으나 현재는 시멘트 기와로 바뀌었으며, 마당 오른쪽에는 뒷간이 있는 헛간채를 배치하였다. 초가지붕을 제외하고는 거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물 뒤로는 대숲이 자리하고 있다.</p> <p>[현황] 1998년 1월 9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9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순창 설씨(淳昌薛氏) 후손인 설상환이 소유, 관리한다.</p> <p>[의의와 평가] 설진영은 근대 유학자로서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는 두문불출하며 절의를 지키다 끝내 자결하였다. 설진영서실은 설진영의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p> <p>참고문헌 - 『순창의 문화재』(순창 문화원, 2011)</p>
--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3) 순창객사(淳昌客舍)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순창객사(淳昌客舍)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7길 40 (순창읍, 순창초등학교)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74.09.27.
시대	1759년(영조 35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1동
소유자	전라북도교육청	관리자	순창군
GPS 정보	북 35.37, 동 127.13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O(평일 이용 가능)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개방
전시관(실)	O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교내 위치로 인한 인근 인력(교사 등))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O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교내 위치 및 관리로 인한 보존상태 양호
특이사항	· 순창초등학교 내 위치(교내 차량 및 애완동물 출입 금지)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객사는 조선시대에 관청의 손님이나 사신이 머물던 곳이다.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는 정당^{正當}과 숙소로 사용하던 익실^{翼室}. 본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에 딸린 방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반드시 객사에 와서 참배를 해야 했으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그리고 국상^{國喪} 등 큰일이 있을 때에도 이곳에서 궁궐을 향하여 절을 올렸다.</p> <p>순창객사가 처음 지어진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영조 35년¹⁷⁵⁹에 중건되었다. 원래는 가운데 정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대청이 있었는데, 왼쪽 서대청은 없어졌다. 일제강점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 초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까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p> <p>고종 42년¹⁹⁰⁵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과 임병찬은 이곳에 진을 치고 항일 의병 본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들 의병장은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p> <p>객사의 오른쪽 동대청에는 2014년에 새롭게 마련한 ‘옥천지관^{玉川之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옥천은 마한 시대 순창의 지명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순창의 옛 이름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7길 40[순화리 313]
시대 : 조선/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74.09.27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48호
출처 : 디지털순창문화대전-순창객사
<p>[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객사.</p> <p>[개설] 객사(客舍)는 조선 시대에 관청의 손님이나 사신이 머물던 곳이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반드시 객사에 와서 참배를 해야 했으며, 국상(國喪)을 당한 때에도 궐패(闕牌)[조선 시대에, 중국 황제를 상징한 ‘闕’자를 새긴 위패 모양의 나무패]에 망배(望拜)하였다. 1905년(고종 42)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정읍의 무성 서원(武城書院)에서 임병찬(林炳瓚)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켜 순창객사(淳昌客舍)에 진을 치고 일본군 및 시위대에 맞서 격전을 벌였고,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항일 의병 본부로 사용하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힌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p>

[위치] 순창객사는 순창군 순창읍 순창7길 40[순화리 313] 순창군청 옆 순창 초등학교 내에 있다.

[변천] 순창객사가 처음 지어진 연대는 알 수 없고, 현재의 건물은 1759년(영조 35)에 중건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순창 공립 보통학교, 8.15광복 후 1970년대 말까지 순창 초등학교의 교실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 초 교실을 철거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81년 2월 전면을 해체하여 기와를 깔고, 뒷면 북쪽 지붕의 서까래 일부를 완전 보수하였다. 1983년 11월 단청 공사를 하였으며, 1988년 9월 순창객사 벽체를 보수하였고 주변에 철책을 설치하였다. 1991년 순창객사 뒷면의 기와를 깔고 동대청의 일부 서까래를 교체하였으며, 1996년 11월 단청을 다시 칠하였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 순창객사 주변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형태] 원래는 가운데 정당(正堂)을 중심으로 왼쪽에 동대청(東大廳), 오른쪽에 서대청(西大廳), 앞쪽에 중문(中門)과 외문(外門), 옆쪽에 무랑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둥은 민흘림기둥이고, 주춧돌은 장대석(長臺石) 또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덩벙 주초이다. 건물은 포작(包作) 형태로 보아 익공집이면서도 외목도리를 하여 처마를 길게 밖으로 빼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정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동대청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서대청은 없어졌으며, 나머지 건물은 초등학교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 정당과 동대청 사이에 앞뒤 벽을 만들어 맞배지붕의 형태로 처리한 탓에 얼핏 보면 팔작지붕에 맞배지붕을 단 것처럼 보인다. 건물 내부는 한때 순창 초등학교에서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 천장에 판자를 넣어 우물천장으로 만들었다.


[현황] 원래는 정당 안에 벽돌을 깔고 '전하 만만세(殿下萬萬歲)'라 쓴 궐패(闕牌)를 봉안하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나라에 일이 있을 때 궁궐을 향해 절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석도 궐패도 없으며, 한때 교실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외형과 실내가 원래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순창객사는 비어 있는데, 순창군청 옆에 있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974년 9월 27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한편 동대청 건물에 걸려 있었던 '순화아문(淳化衙門)'이라는 현판은 원래 순창 관아 출입문이었던 수옥루(漱玉樓)에 걸려 있던 것이다. 8.15 광복 후 찾을 수 없었던 '순창객사' 현판 대신에 지금까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전주 객사인 '풍패지관(豊沛之館)'처럼 순창객사를 의미하는 제대로 된 현판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순창군에서는 조선 시대 지방 행정 중심 공간으로서의 순창객사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현판을 제작하고자 관련 자료 검토와 지역 향토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 결과 마한시대 순창의 지명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옥천(玉川)'을 사용한 '옥천지관(玉川之館)'으로 현판 명칭을 정하고, 2014년 12월 30일에 새로 현판을 걸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황숙주 순창 군수, 이기자 순창군의회 의장, 양상화 삼인 문화 선양회장, 김기곤 순창 문화원장, 김영배 순창 노인회장, 김갑용 순창 향교 전교 등이 참석했다. 자료 제공(순창 군청 문화 관광과 강신영)

참고문헌

- 『순창의 문화재』(순창 문화원, 2011)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1</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2</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3</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4</p>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4) 어은정(漁隱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어은정(漁隱亭)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평남길 107-32(적성면)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1990.06.30.
시대	1567년(명종 22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1동
소유자	남원양씨종중	관리자	순창군
GPS 정보	북 35.42, 동 127.21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4대)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O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미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O	O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관리인이 있으나 도색 벗겨짐, 낡은 기와 등이 있음	
특이사항	· 관리인 비 허가 시 출입 금지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어은정은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문신인 어은 양사형^{漁隱 楊士衡}이 명종 22년¹⁵⁶⁷에 지은 정자이다. 양사형은 동계면 구미리 출신으로 혼인을 한 뒤 적성면 평남리 구남마을로 분가하였다. 이때 이 정자를 세워 영하정이라 하였는데, 이후 후손들이 어은정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어은’은 강에서 낚시를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p> <p>양사형은 선조 21년¹⁵⁸⁸ 과거에 급제한 뒤 군자감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선조 25년¹⁵⁹² 벼슬에서 물러나 남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을 모아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병조정랑에 임명되었다. 이후 예조정랑을 거쳐 영광군수소 재임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p> <p>어은정은 여러 차례 고쳐 지었으며, 지금의 건물을 1919년에 지은 것이다.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가운데에 방을 두고 주위에 마루를 둘렀다. 마루에 올라서면 섬진강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자 안에는 양사형의 후손들이 남긴 시문을 적은 현판이 걸려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생활·민속/생활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평남길 107-32[평남리 435]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0.06.30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순창문화대전-어은정
<p>[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에 있는 조선 전기의 누정.</p> <p>[개설] 어은정(漁隱亭)을 지은 양사형(楊士衡)[1547~1599]은 자가 계평(季平), 호는 영하정(映霞亭)·어은(漁隱)이다. ‘어은’은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낙향한 선비들이 내수어(內水魚)가 많이 나는 이곳 섬진강 지역에서 낚시를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p> <p>[위치] 순창 나들목을 빠져 나와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원촌 삼거리에서 적성로 인계면 방면으로 좌회전한다. 1.4km가량 이동한 뒤 우계길에서 우회전하여 약</p>

1km, 그리고 다시 좌회전한 후 약 439m 가다가 평남길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약 485m 가면 어은정이 나온다.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는 서북부에 두류봉이 솟아 있으며, 100~300m의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섬진강과 오수천이 구남 마을 바로 앞에서 합류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는 곳에 어은정이 있다. 풍수 형국을 보면,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북쪽의 용굴산[지명 변경 전 명칭: 용골산]은 용(龍)이 승천하려는 형상이고, 남쪽 무량산(無量山)은 물산을 헤아릴 수 없음을 뜻하지만 선조들은 예부터 거북 형상, 즉 거북 구(龜), 큰산 악(岳)을 쓰는 '구악(龜岳)'으로 불러 왔다. 구남 마을은 금거북이 남수(南水)로 들어가는 금구남수(金龜南水) 형상이다. 거북은 수명이 길고 물에서도 물에서도 살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금거북은 하늘에 사는 영물로 천지의 기운을 흡수해서 만물을 낳는다고 한다. 거북이 땅속의 기운을 더욱 힘차게 빨아들이므로 집터로 더 바랄 것이 없다. '남수'란 서하수(西河水)의 의미로 동계천과 섬진강 원류가 합수되는 지점이자, 섬진 3지맥이 섬진강으로 숨어드는 어은정 앞을 칭한다. 원래의 남수는 중국 산시 성(山西省)에 있는 시냇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북이 남수에 내린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변천] 어은정은 양사형이 1567년(명종 22) 혼인을 한 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재너머인 평남리 구남 마을로 분가하면서 세운 것이다. 처음에는 영하정이라 하였는데, 여러 차례 중건되는 과정에서 양사형의 호를 따서 어은정으로 바뀌었다. 1892년(고종 29) 1차 중건에 이어 현재의 건물은 1919년에 고쳐 지은 것이다. 1988년 어은정 남원 양공 기적비(漁隱亭南原楊公紀跡碑)를 어은정 담장 안에 세웠고, 1991년 기와 및 목재를 보수하였다.

[형태] 누정의 현판은 양사형의 9세손 양재절(楊在節)의 글씨이다. 어은정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건물 좌향(坐向)은 남남동향으로, 담장 돌림에 난 문(좌측면)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약간 경사가 있는 뒤쪽 담장 밖에서 앞의 섬진강을 바라보면 누정의 지붕선과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평야가 멀리까지 조망된다. 편액으로는 어은정의 현판을 비롯하여 9세손 양재회(楊在晦)의 「어은정 중수기(漁隱亭重修記)」, 양진영(楊璉泳)의 「구남어사서(龜南漁社序)」, 9세손 양재전(楊在田)의 시문, 윤병관(尹秉觀)의 시문 등이 걸려 있다. 그 가운데 당시 지방관이던 윤병관의 「어은정에 제하다[題漁隱亭]」는 1892년 4월 상순에 지은 것으로 새겨져 있다. 전반부는 누정의 옛 주인인 양사형의 기상을 추모하고, 후반부는 아름다운 누정을 노래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풍증불일사요(淸風曾不一絲搖)[맑은 바람 한 오라기 흔들리지 않았는데] 하인당시결성조(何忍當時訣聖朝)[어떻게 차마 당시 성조(聖朝)를 떠나셨을까] 산상지금다백일(山上至今多白日)[산 위에는 오늘까지 밝은 햇살이요] 수중의구견단하(水中依舊見丹霞)[물속에는 예전처럼 붉은 노을 비취 있네] 허함송성진몽오(虛檻松聲塵夢悟)[빈 난간 솔바람 소리엔 세속적인 꿈 깨치우고] 만정초색객혼소(滿庭草色客魂消)[뜰 가득한 풀빛엔 나그네 마음 녹아지네] 인은고정정미은(人隱古亭亭未隱)[사람은 옛 정자에 은둔하였으나 정자는 아직 숨지 못하여] 복래유자매소요(復來遊子每逍遙)[뒤에 오는 길손들 매양 이곳을 소요하네]

[현황] 어은정의 누마루에 올라서면 물 흐름이 아름다운 섬진강이 내려다보인다. 이렇듯 수려한 섬진강의 조망처로 안성맞춤인 언덕에 자리한 어은정 주위에는 수십 그루의 배롱나무 고목이 서 있어 장관을 이룬다. 1990년 6월 30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남원 양씨 어은공파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p>양호하다.</p> <p>[의의와 평가] 어은정은 조선 시대 어지러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 명리(名利)를 등지고 낙향한 순창의 선비 양사형이 낙시를 즐기며 소박하나마 그만의 공간에서 자존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한 풍류와 유유자적한 삶이 투영된 공간으로 해석된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91) - 이현우, 「16~18세기 누정 문화 경관의 의미론적 해석」(전북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1) - 최승범, 「전북의 누정-낙덕정」(『전북 일보』, 1996. 7. 26)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전북 산 사랑회(http://www.deungsan.pe.kr)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해당 사항 없음

(5) 영광정(迎狂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영광정(迎狂亭)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시산리 367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일	1990.06.30.
시대	1921년	규모/수량/재질	목조건축물/1동
소유자	영광정 보존계원	관리자	순창군
GPS 정보	북 35.48, 동 126.97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O(갓길 3개 주차 가능)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상시 개방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O	소화기 핀이 빠져 있음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최근 보수의 흔적이 보이거나, 도로 한복판에 있어 전체적인 관리 미흡		
특이사항	· 소방시설 노후화(소화기 핀이 빠져 있는 등) · 도로 갓길에 3대 가량 주차 가능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영광정은 금옹 김원중(錦翁 金源中)이 1910년에 쌍치면 둔전리 추령천 옆 기룡암 위에 지은 정자이다. 김원중은 순창군 쌍치면 출신 독립운동가로서, 항일 사상을 고취하여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구하고자 동지 7명과 뜻을 모아 정자를 지었다.</p> <p>이들은 이곳에서 모임을 가질 때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 일본인들의 감시를 피했으며, 정자의 이름도 영광이라고 하였다. 처마 끝에는 태극팔괘를 새겨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굳센 의지를 담았다.</p> <p>1950년 한국전쟁 때 현판만 남고 건물은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가, 1974년에 지역 유림이 주축이 되어 원래 자리에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정자를 다시 지었다.</p> <p>*경술국치 : 결승년(1910)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는 뜻으로, 일제의 침략에 의한 한일 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일.</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생활·민속/생활 ,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시산리 367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0.06.30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순창문화대전-영광정
<p>[정의]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시산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에 세운 누정.</p> <p>[위치] 영광정은 순창군 쌍치면 소재지에서 시산 마을을 지나 정읍 방향으로 따라가다 둔전교 못 미쳐 기룡암(騎龍巖) 위 냇가에 위치하고 있다. 기룡암에는 용의 발톱 자국이 남아 있다 하여 용암(龍巖)이라고도 부른다.</p> <p>[변천]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자 당시 순창에 살고 있던 금옹(錦翁) 김원중(金源中)[1860~1930]은 동지들과 함께 일본에 반대한다는 뜻을 알리고자 모임을 갖고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물자를 준비하여 광인(狂人) 행세를 하며 은밀히 항일 투쟁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뜻을 같이 한 사람은 김원중을 비롯하여 어초(魚焦) 이항로(李恒老), 안설(安高) 김정중(金正中), 우파(禹坡) 설문호(薛文皓), 취죽(翠竹) 이봉운(李鳳雲), 남곡(南谷) 안종수(安宗洙), 병산(瓶山) 송국빈(宋國貧), 백계(柏溪) 김요명(金堯冥) 등 총 8명이다. 1921년 6</p>

월 27일 항일 운동의 집회 장소였던 자리에 8명의 애국 동지의 뜻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정자를 세우고, 처마 끝에 태극 팔괘(太極八卦)를 새겨 망국의 설움을 되새기며 정자의 이름을 영광정(迎狂亭)이라 하였다. 1950년 6·25 전쟁 때 순창군 쌍치면 관내의 모든 건물이 불에 타 잿더미만 남았는데, 영광정만이 유일하게 화마를 피하였다. 전쟁과 풍상에 허물어져 쇠락한 건물을 1974년 순창군의 유림들이 보수하였다. 1991년 담양~정읍 간 도로 확장 공사 때 건물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영광정을 해체 복원하여 현재에 이른다.

[형태]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영광정의 정면과 측면에는 누정의 이름을 새긴 현판 두 점이 걸려 있는데, 모두 김원중의 친필이다. 그리고 내부에는 5점의 시문 편액(詩文扁額)이 걸려 있는데, 모두 칠율(七律)의 「영광정운(迎狂亭韻)」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3편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후손 작품이 새겨져 있고, 다른 2편은 남곡 안종수와 금의후인(金義後人) 이종기(李種淇)의 작품이다.

[현황] 1990년 6월 30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영광정 보존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의의와 평가] 영광정은 일제 강점기에 뜻을 같이한 순창 지역 8명의 애국지사가 광인 행세를 하며 은밀히 항일 투쟁을 벌인 뜻을 기리고자 건립한 정자이다. 이 때문에 영광정의 처마 끝에 태극 팔괘를 새겨 통한과 울분을 토로하고 망국의 설움을 달래던 아픔의 현장이자, 당시의 시대사적 장소성을 오롯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최승범, 「전북의 누정-낙덕정」(『전북 일보』, 1996. 7. 26)
- 문화재청(<http://www.ch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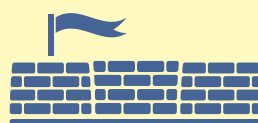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전경	도로명 주소 표기 사진
	해당 사항 없음

I

지정 유산

2. 서남권



1) 부안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정유재란호벌치전적지 (丁酉再亂胡伐峙戰蹟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0호	1976.04.02.	

(1) 정유재란호벌치전적지(丁酉再亂胡伐峙戰蹟地)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1월 25일)

기본정보			
명칭	정유재란호벌치전적지 (丁酉再亂胡伐峙戰蹟地)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96-4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76.04.02.
시대	조선	규모/수량/재질	일원
소유자	부안군	관리자	부안군
GPS 정보	35.6435, 126.6683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O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전적지 아래로 민층사에 화장실 및 소화기가 구비
보존상태	상() / 중(<input checked="" type="checkbox"/>) / 하()		판단 이유
			전적지 아래로는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주변 낙엽 정리가 부족

특이사항	관람 시간은 따로 없으며, 전적비 우측에는 코무덤이 있음. 전적비 아래로 2009년에 건립된 호벌치 전투의 순절자 146위의 영령을 봉안한 사당이 있음
------	--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언덕은 정유재란(1597) 때 왜적과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선현들의 넋이 서린 곳이다. 특히 채흥국과 그 아들들의 의로운 죽음은 이 지방 출신 의병들의 조국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왜적이 줄포만을 거쳐 부안읍에 쳐들어오자, 채흥국은 김영년 등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전투를 벌였으나 수적인 열세에 밀려 전사하였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즉 명달과 경달도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적진에 뛰어 들었으나 그들 역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만다. 당시 이들과 함께 산화한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에 전적비와 함께 순절비를 세웠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 시대
유형 : 유적/터
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17외 11필지/상서면 부안로 1521[감교리 796-4]
시대 : 조선/조선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76년 4월 2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0호
출처 : 디지털부안문화대전-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
<p>[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와 상서면의 경계에 있는 호벌치 일대에서 정유재란 때 의병들이 왜군을 맞아 싸운 싸움터. [개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영년(金永年), 채흥국(蔡弘國), 고덕봉(高德鵬), 조익령(趙益齡),李大俊(李大俊) 등이 흥덕(興德) 남당(南塘)에서 92명 삼혈 동맹(歃血同盟)을 맺고, 조군향사도감(調軍餉士都監)을 맡아 배풍(排風)에서 왜병과 싸워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영남 곽재우(郭再祐)의 의진에 군량미 300석을 보내면서 순천(順天)까지 진격하던 중 평양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되어 전세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창(淳昌) 적성강(赤城江) 변으로 회군하여 뒷날을 약속하고 각자 귀향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해로를 통하여 줄포에 상륙하여 부안 지역</p>

을 분탕질하였다. 이에 맞서 부안 지역에서도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김영년 등의 의병진은 92명 외에 33명을 추가하여 정유갱창 동맹(丁酉更倡同盟)을 맺고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일본군이 부안의 호벌치로 쳐들어오자 약 일주간에 걸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채홍국 삼부자와 김영년 부자를 비롯하여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김홍원(金弘遠), 유희방(柳希芳), 이유(李瑜)[함평] 등이 이끄는 의병들이 호벌치 일대에서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산발적인 전투를 전개하였다. 유희방은 호벌치 전투에 출전하여 수백 명의 적을 참수하는 전공을 세웠으나,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자 유정자 고개[유정치]에서 싸우다가 1597년 9월 15일 31세의 나이로 순절하였다. 이유[함평]는 왜군들이 청등들에 들어와 온갖 만행과 살육을 저지르자 이웃 고을에 격문을 보내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하여 일본군과 싸우다 3일 만에 중과부적으로 순절하였다. 정유재란으로 호남에 일본군이 밀려오자 조선 정부에서는 황신(黃愼)을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일본군을 방어하게 하였다. 의병장 김홍원은 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설득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에 전라도 관찰사 황신은 김홍원에게 변산에 오는 적을 무찌르도록 하였다. 김홍원은 왜선이 변산에 오자 조방장 원신(元愼)과 함께 복병을 설치하였다. 김홍원은 원신 휘하의 채춘봉과 함께 호벌치에서 왜적과 전투를 벌여 이들을 패주시켰다. 호벌치 전투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4월 설과 9월 설 등이 있으나, 9월에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천]

1965년 8월에 호벌치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1993년 정유재란 시 일본군이 의병들의 코를 잘라 일본으로 보낸 것을 묻어 두었던 일본의 무덤에서 담아온 흙으로 코무덤을 만들었다. 2009년 5월 19일 호벌치 전적비 앞에 민충사(愍忠祠)를 건립하였다.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과 상서면의 경계에 있는 호벌치로, 보안면 남포리 산17 외 11필지와 상서면 부안로 1521 일대이다.

[현황]

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에는 호벌치 전적비, 순절비, 오카야마 현 비젠[備前] 시에서 옮겨온 코무덤 등이 있다. 이 외에 석등, 호상(虎像) 한 쌍, 채홍국을 기리는 시비, 겁암 김영년의 추모시비, 민충사 등이 있다. 1976년 4월 2일 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면적은 3만 1635㎡이다.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는 부안 지역 선비들과 농민, 천민, 승려 계층이 의병으로 뭉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최후까지 대항하여 싸운 전적지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야수실기(野搜實記)』
- 『겁암집(樹庵集)』
- 『전북 의병사』상(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0)
- 조원래, 「흥덕 남당 창의와 채씨 일문의 의병 운동」(『한국사 연구』42, 한국사연구회, 1983)
- 하태규,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 활동에 대하여-전라도 북부 지방의 의병 활동을 중심으로」(『한일 관계사 연구』10, 한일관계사학회, 1999)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해당 사항 없음</p>	
<p>도로명 주소</p>	<p>정유재란 호별치 전적비</p>
	
<p>채흥국 장군의 시</p>	<p>정유재란 호별치 순절비</p>
	
<p>정유재란 호별치 전적지 전경</p>	<p>코무덤</p>
	<p>해당 사항 없음</p>

2) 정읍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남고서원(南臯書院)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84.04.01.	
2	도계서원(道溪書院)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1984.04.01.	
3	오봉 김제민 묘비 (鰲峯 金齊閔 墓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2020.06.05.	
4	임병찬장의유적지 (林秉瓚 倡義 遺蹟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1998.01.09.	
5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	1968.12.19.	

(1) 남고서원(南臯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남고서원(南臯書院)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보림1길 396 (보림리 880-1)
지정 유형	유적/건물	지정일	1984.04.01.
시대	조선/조선 전기	규모/수량/재질	일원
소유자	이 * * *	관리자	이 * * *
GPS 정보	35.5728, 126.9204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건물의 전체적인 색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기둥에 갈라짐이 있음
특이사항	남고서원까지 길이 협소하여 차량 이용 시 주의가 필요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남고서원은 성리학자 이항과 의병장 김천일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곳으로, 본래 선비들이 학문을 닦는 곳이었다. 선조 10년(1577년)에 처음 세웠으며, 숙종 11년(1685년)에 임금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액서원이 되었다. 고종 8년(1871년)에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으나, 1899년에 후손들이 다시 세웠다. 그 후 김점, 김복역, 김승적, 소산복 등의 위패도 모시게 되었다. 현재 이항의 문집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보림1길 396[보림리 880-1]
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4년 4월 1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정읍문화대전-남고서원
<p>[정의]</p> <p>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보림리 관동마을에 있는 조선 전기 서원. [개설] 남고서원(南臯書院)은 1577년(선조 10) 대학자 일재(一齋) 이항(李恒)[1499~1576]을 모시는 사우로 1577년 창건되었으며, 이후 이항의 제자인 의병장 건재(建齋) 김천일(金千鎰)[1537~1593]을 배향하였다. 이항은 대학자로 16세기 호남 사림의 한 맥을 형성하였으며 문도들에서 임진왜란 때 김천일을 비롯한 많은 의병장들이 나왔다. 이항은 한양 출신으로 30세에 학문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후 태인현 분동으로 이주하여 강학하였다. 임천군수를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경이다. 조선 후기 이항을 비롯하여 유희춘, 노진, 박순, 기대승 등 '호남 5현'을 향교 문묘에 배향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김천일은 나주 출신으로 학행으로 발탁되어 담양부사를 지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1593년 2차 진주성전투에 참전하여 진주성이 함락되자 아들 감상건과 함께 축석루에서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남고서원은 1685년(숙종 11) '남고'라는 편액을 받아 사액 서원이 되었다.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p>

료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바뀌었다.

[위치]

남고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보림1길 396[보림리 880-1]에 있다. 지방도 제708호[칠북로]를 타고 가다 마태실마을 부근에서 보림길로 들어가서 가정마을을 지나면 관동(冠洞)마을이 나온다. 서원이 있어 ‘관동마을’로 불렸다. 계곡을 끼고 도로를 따라 가면 관동마을 경로회관을 지나서 있다. 칠보산 자락에 있으며 일제 때 옛 샛갯을 많이 만들어 팔아서 갯점, 입점(笠店)마을로 불렸다.

[변천]

남고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 훼철되었다. 1899년 강수재를 중건하였으며, 1927년 사우를 중건하고 김점(金坵)·김복억(金福億)·김승적(金承績)을 추배하였다. 서원 건물이 퇴락하여 1982년 강수재를 중건하였으며, 1989년 사우를 중건하고 소산복(蘇山福)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때 내외삼문, 축대, 담장 등도 수축하였다. 1990년 장마로 사우가 붕괴되어 1991년 다시 사우를 중건하였다.

[형태]

남고서원은 홍살문 바로 위에 외삼문이 있고, 우측에 관리사가 있다. 외삼문 옆 담자락에 강학 공간으로 들어가는 협문이 있다. 외삼문을 지나면 강당 강수재(講修齋)가 있고 위에 내삼문을 지나 사우 문경사(文敬祠)가 있다. 홍살문 왼쪽 위에 2003년 건립한 남고학당이 있다. 문경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이다. 강당 강수재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중앙에는 마루가 있고 좌우에 협실이 있는 구조이다. 남고학당은 정면 4칸이다. 서원 전체가 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의의와 평가]

이항은 16세기 호남 사림 형성의 주역이고, 김천일은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이항과 김천일을 배향하고 있는 남고서원은 호남 유학사와 임진왜란 의병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이태연, 『전북 원우록』(전라북도향교재단, 1973)
- 『전북향교원우대관』(전라북도 향교재단, 1994)
- 『정읍문화재지』(정읍문화원, 2002)
- 『정읍시사』(정읍시사편찬위원회, 2003)
- 『문화유적분포지도』-정읍시(정읍시·원광대학교 박물관, 2006)
- 『전북의 향교와 서원』(한국문화원연합회 전북도지회, 2011)
- 이선아, 「일제 이항의 학문적 위상 확립 과정과 남고서원」(『지방사와 지방문화』17-2, 역사-문화학회, 2014)
- 국가유산청(<http://www.khs.go.kr>)
- 정읍시청(<https://www.jeongeup.go.kr>)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유산 도로명	남고서원 홍살문
	
남고서원 외삼문	남고서원 강당 강수재
	
남고서원 중건비	남고서원 중수비 등
	

(2) 도계서원(道溪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2월 01일)

기본정보			
명칭	도계서원(道溪書院)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1길 34-11(도계리 384)
지정 유형	유적/건물	지정일	1984.04.01.
시대	조선/조선 후기	규모/수량/재질	일원
소유자	의성김씨종중	관리자	의성김씨종중
GPS 정보	36.6623, 128.6965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건물의 전체적인 색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기둥에 갈라짐이 있음
특이사항	도계서원의 경우 잠겨있기에 내부로 들어가 관람은 할 수 없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이 서원은 조선 현종14년(1673년)에 세워, 이희맹, 김제민, 최안, 김지수 등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이후 김제안, 김흔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고종 5년(1868년)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헐렸는데, 1962년 다시 세워 김섬, 김습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김제민의 문집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내삼문 초석에 해서체로 ‘도계서원’이라고 새긴 글씨가 남아 있다.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1길 34-11[도계리 384]
시대 : 조선 / 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4년 4월 1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출처 : 디지털정읍문화대전-도계서원
<p>[정의]</p> <p>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에 있는 조선 후기 서원. [개설] 도계서원(道溪書院)은 1673년(현종 14) 서인 김창집 등의 주창으로 창건하여 이희맹(李希孟)[1475~1516]·김제민(金齊閔)[1527~1599]·최안(崔安)[1545~1615]·김지수(金地粹)[1585~1639] 4현(賢)을 향사하였다. 1697년(숙종 23) 김제안(金齊顔)[1530~1594]을 추향하고, 1840년(헌종 6) 김흔(金昕)[1558~1629]을 추향하였다. 1963년 김섬(金暹)[1560~1619]과 김습(金習)[1574~1638]을 추가 배향하여 총 8현을 모시고 있다. 서인 노론 계열의 고부 의성 김씨 문중 서원으로 변화되었다. 18~19세기 『고부읍지』에 정충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희맹은 본관이 고부이고, 호는 익재(益齋)이며 고부 출신으로 김종직의 문인이다.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도승지를 지냈다. 김제민은 본관이 의성이고, 호는 오봉(鰲峰)이며 고부 출신으로 이항의 문인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순창군수를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최안은 본관이 전주이고, 호는 모암(慕菴)이며, 고부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김지수는 김제민의 손자로 문과에 급제하고 종성부사를 지냈다. 김제안은 김제민의 아우로 호가 죽헌(竹軒)이다. 김흔은 김제민의 넷째 아들로 호가 학산(鶴山)이고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언양현감을 지내고 선무원종공신에 봉해졌다. 나주 총령사에 배향되었다. 김섬은 김제민의 다섯째 아들로 호가 퇴휴당(退休堂)이다. 김습은 김제민의 조카로 호는 안식와(安息窩)이며 경기전참봉을 지냈고 1757년(영조 33) 용계서원에 배향</p>

되었다. 도계서원은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바뀌었다.

[위치]

도계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1길 34-13[도계리 464|산84]에 있다. 구파로를 따라 가다가 ‘도계서원’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도계1길로 들어가 200m 정도 가면 도로 옆에 도계서원 홍살문이 나온다.

[변천]

도계서원은 1673년 건립되어 1866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913년 위패를 묻고 도계서원유허비를 건립하였으며 1963년 중건하였다.

[형태]

도계서원은 홍살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삼문과 강당이 있고, 강당 위로 내삼문과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강당 왼쪽에는 유물관이 별도의 구역으로 있으며, 오른쪽에 수직사가 있다. 유물관 앞에 도계서원유허비가 있다. 강당은 정면 3.5칸, 측면 3칸에 반누각 형태이며, 우진각 기와지붕으로 ‘도계서당(道溪書堂)’ 편액이 걸려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편액은 없다. 유물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편액은 없다. 수직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지붕이다. 내삼문 주춧돌에 해서체로 ‘도계서원’이라고 새긴 글자가 남아 있다.

[현황]

도계서원은 유물각에 김제민의 『오봉집』 목판 등을 보존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다. 음력 9월 중정(中丁)[두번째 정일(丁日)]에 향사한다. 의성 김씨 종중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도계서원은 전라도 지역 노론의 학맥과 전승, 문중 서원으로 변화상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 이태연, 『전북 원우록』(전라북도향교재단, 1973)
- 『전북향교원우대관』(전라북도 향교재단, 1994)
- 『정읍문화재지』(정읍문화원, 2002)
- 『정읍시사』(정읍시사편찬위원회, 2003)
- 이선아, 「전라도 고부 의성 김씨의 도계서원과 호남 노론」(『지방사와 지방문화』19-2, 역사문화학회, 2016)
- 국가유산청(<http://www.khs.go.kr>)
- 정읍시청(<https://www.jeongeup.go.kr>)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도계서원 홍살문</p>	<p>도계서원 외삼문</p>
	
<p>도계서원 강당 도계서당</p>	<p>도계서원 내삼문</p>
	
<p>도계서원 사당</p>	<p>도계서원 유물관과 도계서원유허비</p>
	

(3) 오봉 김제민 묘비(鰲峯 金齊閔 墓碑)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2월 02일)

기본정보			
명칭	오봉 김제민 묘비 (鰲峯 金齊閔 墓碑)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700-1
지정 유형	유적/비	지정일	2020.06.05.
시대	조선/조선 후기	규모/수량/재질	1기
소유자	의 * * *	관리자	의 * * *
GPS 정보	35.6198, 126.8381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묘비는 비교적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기울어있음
특이사항	김제민 신도비 우측 옆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장 위쪽에 있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김제민 비문에는 김제민이 일재 이항에게 학문을 익히고, 전라도사와 이조판서 등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큰 공적을 세운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란 후 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42조의 보방요무를 저술한 내용도 담겨 있다. 1653년에 당대의 대학자 윤순거의 친필이 새겨 있어 서예사적 가치가 크며, 비석 형태와 이수 조각은 조선 시대 묘비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p> <p>*이수 : 건축물이나 공예품 따위에 뿔 없는 용의 모양을 아로새긴 형상</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시대
유형 : 유적/비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700-1
시대 : 조선 / 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2020년 6월 5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출처 : 디지털정읍문화대전-오봉 김제민 묘비
<p>[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에 있는 김제민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조선 후기의 비석.</p> <p>[개설] 오봉 김제민 묘비(鰲峯 金齊閔 墓碑)는 임진왜란 때에 활동한 김제민(金齊閔)[1527~1599]을 추모하기 위하여 1653년 세운 비석이다. 2020년 6월 5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6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p> <p>[건립 경위] 오봉 김제민 묘비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한 김제민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p> <p>[위치] 오봉 김제민 묘비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700-1번지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천곡사지로 289[우덕리 628-1]에 있는 재실 왼쪽에 김제민 신도비가</p>

있으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가면 묘역 가장 위쪽에 오봉 김제민 묘비가 있다.

[형태]

오봉 김제민 묘비는 화강암의 기단 위에 비신을 올렸다. 이수(螭首) 부분 앞쪽에는 쌍용을 조각하였으며, 쌍용 주변으로 구름과 바람 문양을 규칙적으로 조각하여 예술적 감각을 더하고 있다. 뒤쪽에는 토끼가 달 속에서 계수나무 아래서 방아를 찧는 모습이다. 비석은 여산에서 생산되는 백대리석을 잘 다듬어 조각을 하였다. 비신은 높이 109cm, 폭 73cm, 두께 12cm이다.

[금석문]

오봉 김제민 묘비 비문에는 김제민이 일재(一齋) 이항(李恒)[1499~1576]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전라도사와 이조판서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큰 공적을 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란 후에는 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42조의 보방요무(保邦要務)를 저술한 내용도 담겨 있다. 비문은 윤순거(尹舜舉)[1596~1668]가 글을 짓고, 증손 김우기가 묘비를 세웠다.

[현황]

오봉 김제민 묘비 주변으로는 의성 김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아래쪽에 재실인 만종재(萬宗齋)가 있다. 만종재는 의성 김씨 세장산(世葬山)에 지어진 사당으로, 정면 5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제실의 상량문에 ‘송정후이백칠십삼년경자이월십칠일(崇禎後二百七十三年庚子二月十七日)’이라 쓰여 있다. 송정 원년, 즉 1628년으로부터 273년이니까 1901년 건립된 것이다. 제실 서쪽 비각에는 2기의 비가 있다. 첫 번째 비는 1908년 김제민의 10대손 김원재(金源載)와 9대손 김진천(金鎭天)이 세웠다고 되어 있다. 귀부(龜趺)로 된 두 번째 비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1836~1905]이 찬(撰)한 비문이 포함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오봉 김제민 묘비는 비석 형태와 이수 조각은 조선 시대 묘비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비문은 당대의 대학자 윤순거가 글을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서예사적 가치가 크다.

[참고문헌]

- 『향토문화유산 자료 조사』(정읍문화원, 2019)
- 『전라북도금석문대계』6(전북역사문화학회, 2019)
- 국가유산청(<http://www.khs.go.kr>)
- 정읍시청(<https://www.jeongeup.go.kr>)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오봉 김제민 묘비 정면</p>	<p>오봉 김제민 묘비 정면 이수</p>
	
<p>오봉 김제민 묘비 후면</p>	<p>오봉 김제민 묘비 후면 이수</p>
	
<p>오봉 김제민 묘비 도로명주소</p>	<p>오봉 김제민 신도비</p>
	

(4) 임병찬창의유적지(林秉瓚倡義遺蹟址)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2월 03일)

기본정보			
명칭	임병찬창의유적지 (林秉瓚倡義遺蹟址)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 276-1
지정 유형	유적/터	지정일	1998.01.09.
시대	근대/개항기	규모/수량/재질	일원(8,292㎡)
소유자	정읍시 외	관리자	정읍시 외
GPS 정보	35.5346, 127.0944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X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임병찬 선생 묘비나 기념비 주변 및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좋지 않 으며 안내판과 조감도 역시 교체가 필요해 보임
특이사항	유적지 전체적으로 터만 남아 있으며 현재는 후손들이 세운 임병찬 선생 의 묘와 기념비가 남아 있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임병찬 창의*유적지는 대한제국 시기에 임병찬이 의병을 훈련하던 곳이다. 낙안군수를 지낸 임병찬은 이곳에 사당을 지어 공자를 모시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한편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의병을 훈련하였다. 마침내 최익현을 스승으로 모시고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순창에서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해산했다. 그 뒤 의병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항일독립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이곳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어났던 의병들의 의로운 숨결이 느껴지는 유적지이다.</p> <p>*창의: 의병을 일으킴</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시대
유형 : 유적/터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276-1
시대 : 근대/개항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8년 1월 9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출처 : 디지털정읍문화대전-임병찬창의유적지
<p>[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에 있는 의병장 임병찬이 의병들을 모아 훈련시킨 장소.</p> <p>[개설] 임병찬창의유적지(林炳贊唱義遺蹟地)는 대한제국 시기 임병찬(林炳贊)[1851~1916]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들을 모아 훈련시켰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임병찬은 공자를 모시는 영소전(靈召殿)을 짓고, 일제에 항거할 수 있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흥학재(興學齋)’라는 학당을 열어 제자를 가르쳤다. 또 임병찬은 주변 산중에 무기고 및 탄약 제작소, 숙영지 등을 분산 설치하고 의병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다. 임병찬창의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개남이 체포된 장소이기도 하다. 임병찬이 김종섭(金縱燮)을 태인현 너디[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사승마을의 옛 지명]에 있던 김개남에게 보내 너디보다 더 험하고 높은 곳에 있는 태인현 종송리(種松里)[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옛 지명]의 송두용(宋斗鏞) 집으로 유인하도록 시켰다. 그런 다음 김송현(金松鉉), 임병욱(林炳昱), 송도용(宋道鏞)을 시켜 전라도관찰사 이도재(李道宰)에 고발하였다. 이도재의 명을 받은 황헌주(黃憲周)는 강화병 80명을 거느리고 송두용의 집을 포위하고 1894년 12월 1일 새벽 김개남을 체포하</p>

<p>였다. 체포된 김개남은 이도재에게 압송되어 전주 서교장(西教場)[서쪽에 있는 군사 훈련장]에서 처형당하였다. 임병찬창의유적지는 1998년 1월 9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9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p> <p>[위치] 임병찬창의유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276-1번지 일대에 있다. 임실군, 순창군, 정읍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회문산 자락에 있으며 섬진강댐 수변공원 전망대 맞은편 ‘산호수마을’ 이정표를 따라 높이 400m 이상의 산간 오지에 있다.</p> <p>[현황] 임병찬창의유적지는 현재 건물 터만 남아 있으며, 후손들이 세운 ‘대한독립의군원수부사령총장 돈헌 임선생지묘(大韓獨立義軍元帥部司令總長 遯軒 林先生之墓)’라 쓴 비와 정읍시에서 설치한 ‘구한말 호남의병 유적지 조감도’, ‘임병찬창의유적지 안내판’, 임병찬선생 창 의 기념 표석 등이 남아 있다. 주변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호수마을이 물레방앗간, 생태 늪지, 산책로, 농촌 체험장, 전통주 체험코너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농촌 체험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임병찬창의유적지는 임병찬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호남 의병을 모아 훈련시켰던 장소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국사편찬위원회, 1986) -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신아출판사, 1994) - 조광환,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살림터, 2014) - 조광환 외, 『정읍동학농민혁명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20) - 이병규,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전라도 지역 농민군의 활동」(『2016년 동학농민혁명 정학술대회-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6)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유적지 조감도</p>	<p>임병찬장의유적지 임병찬 묘비와 기념비</p>
	
<p>임병찬장의유적지 임병찬 묘비</p>	<p>임병찬장의유적지 기념비</p>
	
<p>임병찬장의유적지 묘비와 기념비 전경</p>	
	<p>해당 사항 없음</p>

(5) 무성서원(武城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2월 06일)

기본정보			
명칭	무성서원(武城書院)	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무성리 500)
지정 유형	유적/건물	지정일	1968.12.19.
시대	조선	규모/수량/재질	8,015㎡
소유자	무성서원	관리자	정읍시
GPS 정보	35.6019, 126.9839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유적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단장되어있으며 보수가 필요한 곳도 현재 공사가 진행에 있음
특이사항	관람시간은 따로 없으나 사당의 경우 현재 단청 보수공사로 관람이 불가함. 최익현과 임병찬이 이곳에서 일제에 저항하여 의병전쟁에 돌입하였는데 1992년 12월 10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읍 지방유림들이 병오창 의기적비를 세웠으며 강당 우측을 통해 나가면 볼 수 있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서원은 강학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제향을 통해 지역의 선현을 배향하였으며, 사림의 정치·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p> <p>정읍 무성서원은 신라말 우리고장 태산군수로 부임하여 유화적 교화로 선정을 베푼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p> <p>1615년 건립하여 태산서원이라 했는데 1696년(숙종 22년) 무성서원이라 사액되었다.</p> <p>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아니한 전라북도 내 유일한 서원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 조선 중종때 태인현감을 지낸 신잠, 상춘곡을 지은 불우현 정극인 선생, 이 외에도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 이 지역에서 성리학을 보급하고 학문을 장려한 7분을 배향하고 있다.</p> <p>특히, 이 고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고현동 향약을 시행하였으며 을사늑약 체결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에 항거하여 무성서원에서는 1906년 면암 최익현을 맹주로 호남 최초의 의병을 창의한 역사적 현장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p> <p>교류와 유식의 공간인 현가루와 강학 공간인 명륜당·강수재, 내삼문을 지나 제향공간인 태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 <p>무성서원은 서원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서원과 달리 자연경관보다는 접근성 및 서원 참여자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에 서원이 건립되어 성리학이 사림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전반으로 확대됨을 보여준다.</p> <p>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운’은 조선 후기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된 성리학의 증거라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무성리 500]
시대 : 조선
문화재 지정 일시 : 1968년 12월 19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사적
출처 : 디지털정읍문화대전-정읍 무성서원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조선 후기 서원. [개설] 정읍 무성서원(井邑 武城書院)은 최치원(崔致遠)[857~?]을 주벽으로 하여 신잠(申潛)[1491~1554]·정극인(丁克仁)[1401~1481]·송세림(宋世琳)[1479~1519]·정언충(鄭彦忠)[1491~1557]·김약묵(金若默)[1500~1558]·김관(金灌)[1575~1635]을 배향한 사액 서원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았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06년 최익현과 임병찬이 정읍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정읍 무성서원은 1968년 12월 19일 '무성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 7월 28일 '정읍 무성서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사적으로 변경되었다.

[창건]

정읍 무성서원 건립은 통일 신라 시대 태산태수 최치원을 모신 생사당(生祠堂)에서 비롯되었다. 최치원이 태수로 부임하여 유풍을 진작시키고 떠나자 태산 사람들이 월연대(月延臺) [현 무성리 성황산 서쪽]에 생사당을 짓고 모셨다. 생사당은 살아 있는 사람을 모시는 사우이다. 1483년(성종 14) 생사당을 정극인이 향학당(鄉學堂)을 열었다는 현재의 정읍 무성서원 자리에 옮기고 태산사(泰山祠)라고 하였다. 1615년(광해군 7) 태산사와 향학당을 결합하여 서원으로 발전시키고 태산서원이라고 하였다. 1696년(숙종 22)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아 국가 공인 서원이 되었다. [배향 인물] 정읍 무성서원은 1615년 서원 창건 시 최치원과 신잠을 모셨고, 1630년(인조 8) 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묵을 추배하였으며, 1675년(숙종 1) 김관을 추배하였다. 문창후(文昌侯) 고운(孤雲) 최치원은 885년 태산태수로 부임하였다. 영천자(靈川子) 신잠은 신숙주의 증손으로 현량과 출신이며, 1543년(중종 38)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6년간 재임하였다. 불우현(不憂軒) 정극인은 사간원정언을 지냈으며, 처가인 태인으로 낙향하여 고현동향약을 창시하고 「상춘곡(賞春曲)」을 지었다. 송세림·정언충·김약묵·김관 등은 태인 출신이다. 송세림은 본관이 여산이며 흥문관교리를 지냈다. 정언충은 본관이 경주로 진사이다. 김약묵은 본관이 도강이며 양주목사를 지냈다. 김관은 본관이 도강이며 진사이다.

[위치]

정읍 무성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무성리 500]에 있다. 앞으로 칠보천이 흐르고 뒤에는 성황산이 있다.

[변천]

정읍 무성서원의 강수재(講修齋)는 1887년(고종 24) 건립되었고, 현가루(絃歌樓)는 1891년(고종 28) 건립되었다. 강당은 화재로 소실되어 1828(순조 28)년 중건되었으며, 사당은 1830년(순조 30) 중수되었다. 흥학재(興學齋)는 1919년 건립되었으나 현재는 창건비만 서 있다.

[형태]

정읍 무성서원은 흥살문을 지나 현가루, 강당, 태산사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강당 좌측에 강수재가 있으며, 강수재 뒤편에 '흥학재 창건비'가 있다. 현가루 앞에는, 서원철폐령 때 삭감된 복호(復戶)와 보노(保奴)를 회복시켜 준 영의정 이최응[대원군의 형] 공덕비를 비롯

하여 비들이 줄지어 서 있다. 강수재 앞쪽에는 병오창의 기적비와 진사 최영대[동학농민군 최경선의 형] 불망비와 비각이 있다. 강당 서편에는 강당 중건에 공헌한 태인현감 서홍순 불망비와 전비서감승(前秘書監丞) 신용희 불망비가 있다. 비각 앞쪽, 홍살문 동쪽으로는 고직사가 있다. 현가루는 2층 누각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현가루’ 편액은 『논어』에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예악(禮樂)으로 무성(武城) 고을을 잘 다스린 데에서 연유하였다. 강당은 석축 기단에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3칸 대청에 좌우에 단칸 협실로 되어 있다. 대청 앞뒤가 탁 트여 있으며, 한가운데에 ‘무성서원’ 편액이 걸려 있다. 태산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에 맞배지붕이다. 강수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우진각지붕이다.

[현황]

정읍 무성서원은 2019년 7월 6일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8개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60여 종의 서원 관련 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향사일은 2월 중정일이다.

[의의와 평가]

정읍 무성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의 서원 중에서 마을에 있는 독특한 서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며, 많은 문헌이 남아 있어 전라도 유림과 서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향토문화유산 자료 조사』(정읍문화원, 2019)
- 『전라북도금석문대계』6(전북역사문화학회, 2019)
- 국가유산청(<http://www.khs.go.kr>)
- 정읍시청(<https://www.jeongeup.go.kr>)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유산 도로명</p>	<p>무성서원 홍살문</p>
	
<p>무성서원 문루 현가루</p>	<p>무성서원 강당 명륜당</p>
	
<p>무성서원 내삼문</p>	<p>무성서원 사당 태산사</p>
	

3) 고창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어사각(御賜閣)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1985.08.14.	

(1) 어사각(御賜閣)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2월 05일)

기본정보			
명칭	어사각(御賜閣)	소재지(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42(모양성로 76)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지정일	1985.08.14.
시대	조선/조선 후기	규모/수량/재질	1동
소유자	재 * * *	관리자	고 * * *
GPS 정보	35.4382, 126.7001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어사각 본전을 비롯하여 외삼문 등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으나 기둥 등 목재로 구성된 곳에 갈라짐이 보임
특이사항	관람 시간은 따로 없으나 어사각 본전은 관람할 수 없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어사각’은 조선 시대에 왕이 내린 크고 높게 지은 집을 말하며, 정려각이라고도 한다. 정려각은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서 정려 받은 사람의 이름과 행한 일 등을 기록한 나무판이나 비석 등을 세우고, 지방의 관리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였다.</p> <p>고창의 ‘어사각’은 왕명에 따라 지었다 하여 어사각이라고 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호남에서 전사한 김해 김씨 삼현파 김극일의 후손 25명과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순절한 부인 5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1605년에 이들의 충의를 기리고자 선조 임금이 ‘선무원종공신’을 하사하고, 옥쇄가 찍힌 공훈록 『단서철권』이라는 책을 내렸다. 1749년에는 영조 임금의 명으로 ‘각’을 하사하여 ‘어사각’이 되었다. 어사각에는 『단서철권』이 보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려각은 단칸 팔작지붕의 화려한 집이나, 고창 어사각은 솟을대문과 3칸의 맞배지붕으로 간략함과 검소함이 남다르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42[모양성로 76]
시대 : 조선/조선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5년 8월 14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출처 : 디지털고창문화대전-어사각
<p>[정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김해김씨 김극일의 직계 근친 25명의 의사와 다섯 명의 열부를 기리는 조선 후기 정려각.</p> <p>[개설] 어사각은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의 7년간의 전투에서 전사한 김해김씨 삼현파 한림공용(勇)의 후손들과 그 비보를 받고 자결한 부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다. 이들은 김해김씨[일명 삼현파]의 후예로 김해김씨 단도판서공파, 일명 삼현파의 절효공 김극일의 직계 근친 25명의 의사와 다섯 명의 열부들이다. 조정에서는 그들의 충의를 가상히 여겨 1605년(선조 38)에 「선무원종공신록」에 서훈하였다. 1749년(영조 25)에는 칙령을 내려 각을 하사하여 『단서철권』이라는 왕의 옥쇄가 날인된 책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p>

[위치]

고창군청에서 전주 방향으로 옛길을 따라 직진한 다음, 소방서 못 미처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 쪽으로 우회전하면 어사각이 나온다.

[변천]

1605년(선조 38) 4월 14일 『단서철권』을 하사받아 어사각을 창건하였다. 1762년(영조 38) 3월 김두남(金斗南)의 5세손인 김천오(金天五)와 김수오(金秀五)가 중건하였고 1874년(고종 11) 3월에 후손 김철원(金哲原)과 김정곤(金貞坤)이 중건하였다. 1881년(고종 18)에 삼문 및 홍살문을 후손 김봉회(金鳳會)가 중수하였다. 1940년 8월에 어사각 및 삼문 담장을 김호병(金鎬炳)과 김봉덕(金鳳惠), 김봉인(金鳳仁)이 중건하였고 1980~1981년에 어사각 3문, 홍살문, 번와를 참판공 현(軒)의 13대 종손 김정웅(金正雄)이 중수하였다. 1987년~1988년에 장원(牆垣)과 본전(本殿)을 김정웅이 중수하였다.

[형태]

솥을삼문을 둔 어사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집 건물이다. 원형의 가공 주초석 위에 원형의 민흘림기둥을 세웠다. 창방과 도리장여 밑, 간포가 놓이는 자리에는 태극삼문의 화반을 두었다. 앞 뒷간은 마루로 가구하였고, 어칸에는 2분합문을 달았으며, 좌우협간은 광살창 형식으로 마감하였다. 배면은 각 칸마다 중방과 수장재를 이용하여 여섯 개의 벽면을 형성하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대들보는 힘이 강하다.

[현황]

앞 뒷간 및 뒷면의 기둥과 초석은 원형이고, 건물 정면 본체 부분의 기둥과 초석은 사각형이라 근대기의 감모재와 비슷하다. 1985년 8월 14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09호로 지정되면서 어사각 본전과 외삼문 단청 및 조선식 담장을 쌓았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어사각은 김해김씨 삼헌파의 나라에 대한 충정과 부인들의 절의를 기리기 위해 영조가 내린 각이다. 일반적으로 정려각은 단칸의 팔작지붕의 형식을 지녀 매우 화려하나 이 어사각은 간략한 동시에 검소함을 지니고 있으며, 3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
- 『호남절의사(湖南節義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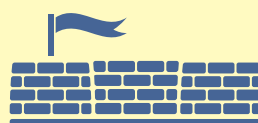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도로명 주소</p>	<p>어사각 홍살문</p>
	
<p>어사각 외삼문</p>	<p>어사각 본전</p>
	
<p>어사각 현판</p>	<p>어사각 전경</p>
	

I

지정 유산

3. 북부권



1) 전주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충신이흥발지려 (忠臣李興淳之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2000.11.17.	

(1) 충신이흥발지려(忠臣李興淳之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충신이흥발지려 (忠臣李興淳之閭)	소재지(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산64-3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2000.11.17.
시대	조선 영조 29년(1753)	규모/수량/재질	1동
소유자	한산이씨 운암공 흥발종중	관리자	이은옥
GPS 정보	35.79770, 127.08553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소화장치는 이흥발지려와 재실 안에 비치되어 있으나 감시카메라는 재실 안에만 배치되어 있었음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소화장치 또한 비치해뒀음. 소화장치 관리 일자가 최신이었음
특이사항	주차장이라는 느낌은 없으나 유적지 앞에 공간이 있어 중형 차량 4대 정도는 들어갈 정도임. 이흥발지려는 재실 위에 따로 위치해 있어 돌아가야 하며 길이 잘 조성되어 있지는 않음 홍문이 재실 앞에 세워져 있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정려각은 조선 중기의 충신이흥발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영조 29년(1753)에 나라에서 건립한 것이다. 이흥발은 정묘호란 이전 해인 인조 4년(1626)에 상소를 올려 청나라 사신을 목벨 것을 요청했으며,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패하자 관직을 버렸다. 이 정려각을 현존하는 정려의 대부분이 효자와 열녀에 관한 것인데, 비해 충신의 정려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전형적인 정려각 건축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정려각 위에는 이흥발의 표소가 있고, 아래에는 근래 건립한 종중 재실이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참고문헌 :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진입로 안내판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1</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2</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3</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4</p>
	
<p style="text-align: center;">전경</p>	<p style="text-align: center;">특이사항</p>
	

2) 익산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삼세오충렬유적 (三世五忠烈遺蹟)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82.08.30.	

(1) 삼세오충렬유적(三世五忠烈遺蹟)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삼세오충렬유적 (三世五忠烈遺蹟)	소재지(주소)	전북 익산시 용안면 현내로 448-29(중신리)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82.08.30.
시대	조선시대	규모/수량/재질	11,018㎡
소유자	익산시청	관리자	익산시청
GPS 정보	35.79857,127.29880	기타	기타 특이사항 작성
실태조사표			
주차장	√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비상근으로 보이거나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흔적이 보였음. 첫 번째 방문에 비해 상당히 관리가 되어 보였음 ex) 쓰레기봉투 비치, 잔디 관리 등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감시카메라가 유적지 입구에 있지 않고, 내부에 들어가서 복절문이라는 곳에 있었음. 복절문이라는 곳은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함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묘, 비석은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그 외 담장이나 건물은 관리가 되어있지 않음.
특이사항	주차장이 생각보다 넓어 대형 버스 5대 정도는 가볍게 주차 가능해보임 화장실 또한 주차장과 함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함 내부로 들어가면 중앙에 무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약간의 언덕진 부분이 보임.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삼세 오충렬 유적은 삼대에 걸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주 오씨 다섯 충신의 무덤과 이들을 기리는 사당인 충렬사가 있는 곳이다.</p> <p>원래는 오응정과 그의 아들 옥, 직, 그리고 직의 아들 방언을 모시고 사충사라 하였으나 근래에 오응정의 아들 동량도 함께 모시면서 오충사라 하고 있다.</p> <p>오응정은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두 아들 옥, 동량과 함께 순절했다. 오응정의 차남 오직은 광해군 때 중국 요동에서 후금군과 싸우다 전사했으며 오직의 아들 방언은 병자호란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자 셋강에 몸을 던졌다. 조선 숙종 7년 1881에 이들을 기리기 위해 충렬사를 세웠다. 이곳에는 다섯 충신과 그 선조의 무덤, 삼신단, 정려각, 신도비 등이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종교/유교
유형 : 유적/유적(일반)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로 448-29[중신리 131-5]
시대 : 조선/조선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82년 8월 30일/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군산문화대전-삼세오충렬유적
<p>정의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중신리에 있는 조선 후기 해주오씨 가문의 사당과 묘역.</p> <p>개설 삼세오충렬유적(三世五忠烈遺蹟)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해주오씨 오충신(五忠臣)의 무덤과 사당인 충렬사가 있는 곳이다. 충렬사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오응정과 아들 오옥, 오직, 오동량과 오직의 아들 오방언 3대를 추향(追享)하고 있다. 오응정(吳應鼎)[1548~1597]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전투에 참가하여 큰아들 오옥, 셋째 아들 오동량과 함께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실패하자 화약고를 터뜨려 두 아들과 함께 순절하였다. 둘째 아들인 오직(吳稷)[1574~1619]은 1619년 심하(深河)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오방언(吳邦彦)[?~1637]은 오직의 아들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 전투를 이어 갔으나 인조가 항복하자 심하전투 때 전사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함을 한탄하며 한강에 투신하였다. 삼세오충렬유적은 1982년 8월 30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61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p> <p>위치 삼세오충렬유적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중신리 131-5에 있으며 표지석과 안내판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p> <p>형태 삼세오충렬유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 형태의 충렬사가 있으며 기념관인 영국관, 그리고 신도비와 오응정의 묘, 정려각 등이 있다.</p> <p>현황 삼세오충렬유적은 정문인 충신문을 지나면 외삼문인 복절문(伏節門)에 이르고 복절문 왼쪽에는 기념관인 영국관이 있다. 영국관에는 1593년(만력 21) 작성된 오응정의 교지와 의복, 기타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내삼문인 장의문(丈義門)을 지나면 여산 권갑석이 쓴 현판</p>

<p>이 있는 삼세오충렬사가 있다. 중앙에 오응정, 왼쪽에 오동량과 오옥, 오른쪽에 오직과 오방언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아들 오방언만 학이 새겨진 문관 의복을 착용하였다. 충렬사를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오공 신도비와 오응정의 묘가 있으며 현판을 보존한 정려각이 있다. 정려각에는 ‘삼자일손삼세오충(三子一孫三世五忠)’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길을 따라가면 오응정 세 아들의 비와 묘가 있다. 외삼문과 중삼문 사이에는 올림픽을 기념하여 조성한 숲이 있다. 삼세오충렬유적은 관리와 보존이 양호하다.</p> <p>의의와 평가</p> <p>삼세오충렬유적은 해주오씨 충신 3대의 충절을 기리며 세운 사당과 묘역이다. 3대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의미가 깊은 유적이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문화유적총람』2(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사진1</p>	<p>사진2</p>
	

사진3	사진4
	
전경	특이사항
	
	

3) 군산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두정란 장군 묘역 (杜廷蘭 將軍 墓域)	향토문화유산	2019.10.22.	

(1) 두정란 장군 묘역(杜廷蘭 將軍 墓域)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두정란 장군 묘역 (杜廷蘭 將軍 墓域)	소재지(주소)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산 154-1
지정 유형	향토문화유산	지정일	2019.10.22.
시대	조선시대	규모/수량/재질	해당 사항 없음
소유자	군산시	관리자	X
GPS 정보	35.905150, 126.682823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X	유산설명 안내판	X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두정란장군 묘역은 보초하고 있음
특이사항	주변과 달리 별초가 안되어 있지만 두정란 장군 묘로 추정되는 곳은 별초가 되어 있음. 그러나 장군 묘로 올라가는 길은 안 되어 있음 주변에 다른 묘지들이 많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두정란(1550-1592)은 회현면 출신으로 마도만호와 어모장군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당시 웅치 및 이치전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워 전주성 방어에 기여하였고, 스승인 의병장 조헌과 함께 금산성을 탈환하기 위한 제2차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여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그의 묘비문과 문인석 등은 1831년에 건립됐으며 웅치 및 이치전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아버지 두사순(1525~1587)은 조선전기 무신으로 비인 및 강령현감 재직시 청백리이자 선정을 베푼 목인관이다. 묘비는 1691년에 세워졌으며, 연화문양과 조각수법이 뛰어나 예술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군산시는 두분의 묘역을 2019년 10월 22일 향토문화유산 제21호로 지정하였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해당 사항 없음
유형 : 해당 사항 없음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시대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일시 : 해당 사항 없음
문화재 지정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전경	특이사항
	

4) 완주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임진왜란 응치 전적 (壬辰倭亂 熊峙 戰蹟)	사적	2022.12.30.	
2	이치전적지(梨峙戰蹟址)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76.04.02.	
3	추수경장군묘역 (秋水鏡將軍墓域)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98.01.09.	

(1) 임진왜란 응치 전적(壬辰倭亂 熊峙 戰蹟)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임진왜란 응치 전적 (壬辰倭亂 熊峙 戰蹟)	소재지(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 51,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89 일원
지정 유형	사적	지정일	2022.12.30.
시대	조선시대	규모/수량/재질	11필지 232,329㎡
소유자	전라북도	관리자	전라북도
GPS 정보	35.79857,127.29880	기타	기타 특이사항 작성
실태조사표			
주차장	X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웅치전적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전적지 아래에 마을 또한 소개가 잘 되어 있음.	
특이사항	국가유산청에 의하면 ‘웅치전적’으로 검색했을 시 ‘임진왜란 웅치전적’과 ‘웅치전적지’가 나오는데 ‘웅치전적지’는 지정해제로 나오고 있음 전적지 근처에 웅치골이라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마을에 안내도와 표지판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음 마을안에는 ‘창렬사’가 있었고, 그 앞에 ‘웅치전투 기념비’가 세워져 있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왜군과 전투를 벌였던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원을 말한다. 음력 1592년 4월 13일 조선에 침략한 왜군은 6월 말경에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 하였다. 하지만 선조가 왜군을 피해 북쪽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순신의 활약으로 바닷길이 막혀 전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왜군들은 전라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p> <p>1592년 7월 8일 새벽, 왜장 고바야카와 타카카게가 이끄는 왜군이 전주로 진출하기 위해 웅치를 공격해 왔다.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이 이끄는 조선군은 진안 세동리부터 완주 신촌리까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쳐들어오는 왜군과 혈전을 벌였다. 결사적으로 맞섰지만, 왜군의 지속적인 공격에 조선군의 1차 · 2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최후 방어선인 웅치 정상부에서 정담을 비롯한 많은 장정들이 장렬히 전사하였다.</p> <p>『선조수정실록』 · 『징비록』 등 여러 사료에 따르면, 당시 전투가 끝나고 왜군들은 조선군의 충성심과 용맹함에 감탄하여 조선군의 시신을 묻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 <조조선국충간 의담>이라고 쓴 뜻말을 세웠다고 한다. 이후 7월 9일 웅치를 넘은 왜군은 안덕원 근처까지 진출했지만, 웅치 전투에서 입은 전력의 심각한 손실과 안덕원 전투에서 황진에게 패배, 이정란 장군의 전주부성 방어태세 등 때문에 전의를 잃고 7월 10일 진안으로 철수함으로써 전주부성 점령에 실패하였다.</p> <p>웅치전적지 일원에서 일어난 격전은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다. 이후 웅치전적지 일원에서 활약한 조선군이 이치 전투에도 참전하여 승리하면서 왜군의 전라도 점령 의욕은 꺾이게 된다. 결국 웅치 · 이치전투가 있었기에 전라도가 지켜졌고, 이는 임진왜란에서 조선</p>

군이 승기를 잡는 요인이 되었다.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문화유산/유형 유산 , 역사/전통 시대
유형 : 유적/터
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2022.12.30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군산문화대전-웅치전적지
<p>정의</p> <p>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있는 임진왜란 때인 1592년 7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웅치전투가 있었던 전적지.</p> <p>개설</p> <p>일본군이 금산을 점령하고 전주로 침공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전라감사 이광은 금산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웅치와 이치의 주요 지점에 방어사 곽영(郭嶸), 김제군수 정담(鄭澗), 동북현감 황진(黃進), 나주판관 이복남(李福男)을 나누어 배치해서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했다. 또한 전주부성에는 남원의 군사를 비롯한 남도의 여러 고을에서 동원된 군사들을 배치해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광주목사 권을 등은 남원, 장수, 임실 등지에서 방어하고 있었다. 황진은 웅치에 있다가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진안 방면으로 나가 일본군 선봉 부대를 격파하기도 했다. 7월 2일경에 일본군이 남원으로 침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광은 황진을 남원 방어를 위해 파견했다. 7월 5일에 일본군이 진안을 거쳐 웅치를 공격하려 하자 이광은 남원으로 파견되었던 황진을 다시 올라오도록 했다. 당시 전주부윤이던 권수(權燧)가 갑자기 병사하자, 이정란(李廷鸞)을 수성장으로 임명해 전주의 수비를 담당하게 하고, 이광은 여러 고을의 병사를 거느리고 남고산성으로 들어가 주둔했다. 웅치에서는 1진에 의병장 황박(黃璞)이, 2진은 나주판관 이복남이, 웅치 정상의 3진은 김제군수 정담이 방어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7월 7일에 웅치 방면으로 공격했으나,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이들의 침입을 물리쳤다. 이튿날인 8일 새벽부터 일본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이루어져 저녁 무렵에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해 황박과 이복남 등은 안덕원으로 후퇴했다. 해남현감 변응정도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그러나 정담은 아군들의 후퇴를 돕기 위해서 웅치 정상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다. 정담 외에도 종사관 이봉, 강운 등 많은 관군과 의병들이 전사했다. 웅치를 점령한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죽은 조선군의 시체를 모아 길가에 큰 무덤을 만들어 그 위에 ‘조조선국충간의담(弔朝鮮國忠肝義膽)’이라는 표목을 세</p>

워놓고, 전주성으로 향해 9일에는 안덕원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는 황진도 참여해서 결국 일본군을 물리쳤으며, 10일에는 일본군이 웅치를 넘어 진안 방면으로 후퇴했다. 그러므로 웅치전투는 웅치뿐만 아니라 안덕원전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정확할 것이다.

위치

웅치전투가 이루어진 장소는 좁게 보면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을 연결하는 웅치에서 벌어진 전투로 말할 수도 있으나, 넓게 보면 웅치전투와 안덕원전투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더 넓혀서 보면 안덕원전투가 벌어진 완주군 소양면과 전주시 금상동, 산정동 지역과 웅치전투가 발생하기 이전 황진 등이 일본군 선봉대를 공격한 진안 내 여러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이다. 웅치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세 가지 노선이 있다. 첫째는 적천치(笛川峙)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송정마을에서 부귀면 세동리 적천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둘째는 덕봉(德峯)길로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에서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셋째는 곰티[熊峙]재로 소양면 신촌리 웅리마을에서 부귀면 세동리 부암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두 번째 길이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에는 첫 번째 적천치길이 이용되고, 근대 이후에 곰티재로 도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웅치전적비가 세워진 지역은 근대에 만들어진 전주-진안 간의 대로가 지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전투는 덕봉길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변천

웅치전투는 금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1592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일대에서 벌어진 웅치전투를 비롯해, 7월 9일에 완주군 소양면 일대와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정동 일대에서 벌어진 안덕원전투를 포함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1976년에 완주와 진안을 잇는 구 신작로 상의 곰티재 부근인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원을 웅치전적지로 설정해서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했다.

현황

웅치전적지는 1976년 4월 2일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12월에 곰티재 정상에서 약 200m 되는 지점인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쪽에 웅치전적비(熊峙戰蹟碑)를 세웠다.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는 조선 전기 요광원 터로 비정되는 원터가 있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지명 등 전승 자료가 전해오고 있으며, 2012년에 웅치전투에서 순절한 사람들을 모시는 창렬사(彰烈祠)가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이형석, 『임진전란사』(신현실사, 1974)
- 『전북의병사』상(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0)
- 『웅치대첩전적지자료지』(전주문화원, 1992)
- 하태규 외,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그 전적지』(전라문화연구소, 2006)

- 『웅치·이치전적지 기초자료 정밀조사』(완주문화원·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2016)
-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완주군·전북사학회, 2017)
- 하태규, 「임란에 있어서 웅치전의 위상에 대하여」(『전라문화논총』5,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0)
-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 방어」(『한일관계사연구』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 하태규, 「웅치 전적지 위치에 대한 재론」(『전북사학』30, 전북사학회, 2007)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사진1</p>	<p>사진2 *웅치골 마을 입구 안내판</p>
	

<p>사진3 *웅치골 마을 입구 안내판</p>	<p>사진4</p>
	<p>해당 사항 없음</p>
<p>전경</p>	<p>특이사항</p>
	

(2) 이치전적지(梨峙戰蹟址)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이치전적지(梨峙戰蹟地)	소재지(주소)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12-15번지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76.04.02.
시대	조선시대	규모/수량/재질	3,318,357.83㎡
소유자	산림청, 건설부, 사유지	관리자	
GPS 정보	36.12562,127.34027	기타	기타 특이사항 작성
실태조사표			
주차장	√(대둔산 휴게소 이용가능)	화장실	√(대둔산 휴게소 이용가능)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X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공간 조성은 잘 되어 있으나 비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보임.
특이사항	카카오네비로 '이치전적지'를 치고 가면 캠프장 길로 안내함. 그 앞에는 차량 출입을 제한함. 따라서 그 옆 10분정도 더 가면 나오는 '대둔산 휴게소'에 가서 확인함. 확인 결과 휴게소 옆에 이치전투와 관련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음 그리고 조성된 공간 안에는 '무민공 황민장군 이현대첩비'가 있었음		

② 유적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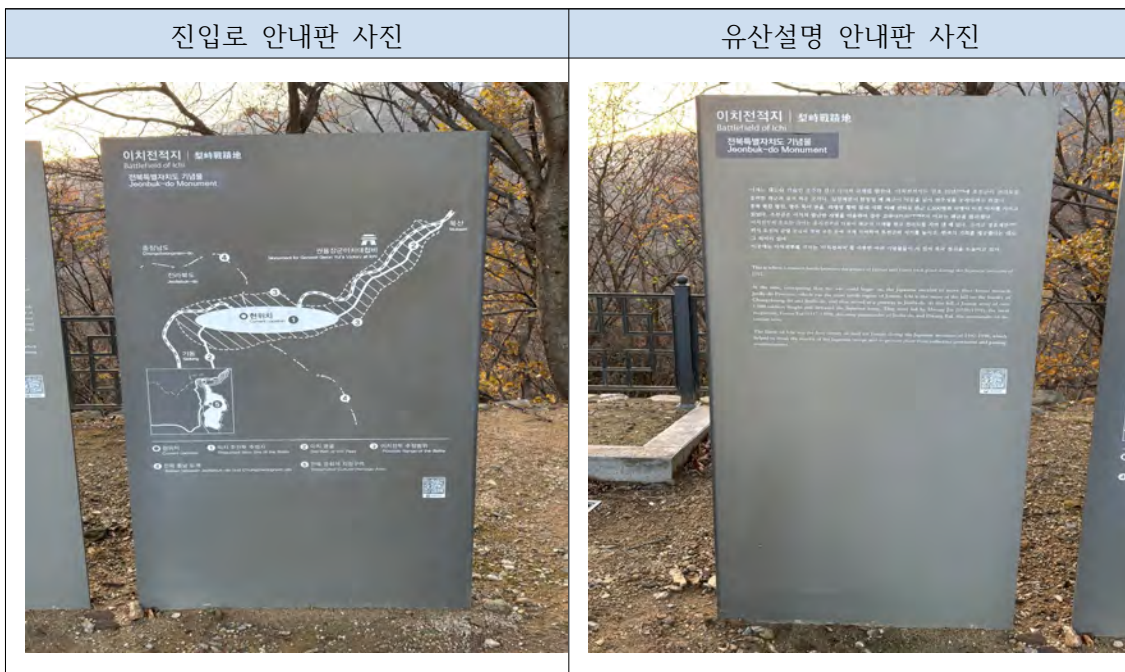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치는 대둔산 기슭인 운주와 진산 사이의 고개를 말한다. 이치전적지는 선조 25년1592에 조선군이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과 맞서 싸운 곳이다.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왜군이 이곳을 넘어 전주성을 공격하려고 하였다.</p> <p>동북 현감 황진, 광주 목사 권율, 의병장 황박 등의 지휘 아래 전라도 관군 1,500명과 의병이 이곳 이치를 지키고 있었다. 조선군은 이치의 험난한 지형을 이용하여 장수 고바야카와가 이끄는 왜군을 물리쳤다.</p> <p>이치전투의 중요한 의미는 웅치전투와 더불어 왜군의 기세를 꺾고 전라도를 지켜 낸 데 있다. 그리고 정유재란 1597 까지 조선의 군량 보급과 병력 보충 등에 크게 기여하여 조선군의 사기를 높이고,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p> <p>이곳에는 이치전투를 기리는 '이치전적비'를 비롯한 여러 기념물들이 서 있어 호국 정신을 드높이고 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문화유산/유형 유산 , 역사/전통 시대
유형 : 유적/터
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시대 : 조선/조선
문화재 지정 일시 : 1976. 4. 2. / 2021. 11. 19.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군산문화대전-이치전적지
<p>정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이치에서 1592년에 조선 관군과 왜군의 전투가 벌어진 장소.</p> <p>개설 :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의 이치에서 1592년 7월 10일 이후 일본군이 금산에서 철수하는 9월 17일 사이에 조선 관군과 왜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장소이다.</p> <p>위치 : 이치전적지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12-15번지 일대이며, 이치는 운주면 산북리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를 연결하는 고개이다.</p> <p>변천 : 이치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1592년 7월 7일과 8일에 이루어진 웅치전투에서 후퇴했던 조선 관군과 의병은 9일 안덕원전투에서 승리했다. 이에 일본군은 10일경에 웅치를 넘어 진안을 거쳐 금산으로 후퇴했다. 이에 조선 관군도 이치로 이동해서 그곳에 있던 군사와 합류했다. 이치에 주둔한</p>

<p>조선군의 총지휘관은 광주목사 권율(權慄)이었으며, 동북현감 황진(黃進) 등 관군 1,500명이 주변에서 방어망을 구축했다. 일본군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이끄는 부대였으며, 금산에 주둔하고서 주변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이 진산 방면으로 진출하자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전투 중 황진이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기절해 후퇴하자, 일본군은 이치 정상으로 공격했다. 이때 권율 등이 맞서 싸워 승리했고 일본군은 금산으로 철수했으며, 9월 17일에 금산에서 철수했다. 전라북도는 이치전적지를 1976년 4월 2일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p> <p>현황 : 이치전적지에는 1976년 4월 2일에 이치재 정상에 세운 기념비가 있으며, 이외에도 '무명용사비'를 비롯한 기념물들이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89번지[진산면 묵산리 산 79-34]에 이치대첩지를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형석, 『임진전란사』(신현실사, 1974) - 『전북의병사』상(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0) - 『웅치대첩전적지자료지』(전주문화원, 1992) - 하태규 외,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그 전적지』(전라문화연구소, 2006) - 『웅치·이치전적지 기초자료 정밀조사』(완주문화원·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2016) -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완주군·전북사학회, 2017) -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 방어」(『한일관계사연구』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④ 유적지 사진



<p>사진1</p>	<p>사진2</p>
	
<p>사진3</p>	<p>사진4</p>
	
<p>전경</p>	<p>특이사항</p>
	

(3) 추수경장군묘역(秋水鏡將軍墓域)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2024년 11월 30일)

기본정보			
명칭	추수경장군묘역 (秋水鏡將軍墓域)	소재지(주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103번지 외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98.01.09.
시대	조선시대	규모/수량/재질	11필지 232,329㎡
소유자	건설부, 완주군, 추수경장군묘역 성역화추진위원회	관리자	건설부, 완주군, 추수경장군묘역 성역화추진위원회
GPS 정보	35.95961, 127.15266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X	√	관리자가 유적지 근방에서 거주하 기 때문에 따로 감시카메라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별초가 되어 있었고, 묘 근처도 깔 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었음.
특이사항	방문 시 관리자에게 연락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음. 관리자가 유적지 근방 1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연락 또한 금방 달았음. 문이 잠겨 있어 서 연락드렸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내부 파악이 가능했음 마을 진입로에 추수경장군 하마비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설명문이나 안 내판은 보이지 않았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곳은 명나라의 장군 추수경(1530~1600)의 묘역과 장군의 영정을 모신 봉양사이다.</p> <p>추수경장군은 임진왜란(1592) 때 용호별군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 선조 25년(1592) 12월에 참전하여 아들 노, 적 형제를 선봉장으로 세워 곽산을 수복하고 평양, 개성, 한양, 동래에서 대승을 거둔 후 전주에 주둔 하였다.</p> <p>정유재란(1597)이 발발하자 장군은 전주 방어에 사력을 다하던 중 안덕원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선조 33년(1600) 9월에 71세의 일기로 이 땅에서 순국하였다. 추수경 장군은 명심보감을 펴낸 고려조의 재상 추적의 7세손이며, 명나라 건국 공신인 호부상서 추유의 5세손으로 시호를 충장 공이라 내리고 완산부원군이 증작되었으며, 호성공신으로 추서 되었다.</p> <p>장군은 명나라 군사들이 환국할 때 조상의 나라에 남기로 하고 전투에 참가한 5명의 아들과 함께 전주 북쪽 40리인 이곳 추동마을에 정착되었다.</p> <p>일제 강점기 때 묘역이 훼손되었다고 전하며, 봉양사는 2004년 11월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문화유산/유형 유산, 역사/전통 시대
유형 : 유적/고분
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814[추동안길 14-7]
시대 : 조선/조선 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8년 1월 9일/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군산문화대전-이추수경장군묘역
정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에 있는 조선 중기 명나라 무인 추수경 장군의 묘.
개설 : 추수경(秋水鏡) 장군은 명나라 신종 때의 사람으로 자는 청하(淸河), 호는 세심당(洗心堂)이다. 명나라 귀주성 성덕산하 오현군 칠성동에서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재예(才藝)가 뛰어나고 문무(文武)를 겸비해 16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1591년(선조 24)에는 중국 명나라의 무강자사(武康刺使)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의 신종에게 청원해서 이여송의 원군을 출병케 했고, 자신도 부장으로 두 아들인 추노(秋蘆)·추적(秋菝)과 더불어 참전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남원전투에 참전했고, 전주 방어에 사력을 다하던 중 안덕원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으나 전주사고(全州史庫)를 끝까지 지켰다. 이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1600년(선조 33) 9월에 71세의 일기로 사망했는데, 조정에서는 추수경의 공로

<p>를 인정해 죽은 뒤에 ‘호성공신·완산부원군’으로 봉했다.</p> <p>위치 : 전주-대전 간 17번 도로에서 봉동교를 지나 금마 방면 799번 지방도의 우측으로 추동마을의 이정표가 나온다. 추동마을로 진입하다 보면 약 800m에서 좌측도로로 가다 보면 추수경장군묘역이 자리하고 있다.</p> <p>형태 : 추수경장군묘역 봉분은 잔디가 깔린 원형으로 화강암을 이용한 면석이 둘러져 있고 묘역의 남쪽으로는 화사석(火舍石), 무인석(武人石), 망주석(望柱石), 양석(羊石), 신도비(神道碑)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추수경장군묘역의 서쪽으로는 봉양사(鳳陽祠)라는 제각이 있으며 소나무가 심겨 있다.</p> <p>현황 : 추수경장군묘역은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파괴되었다가 2004년 11월에 후손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묘역을 복원했으며, 1998년 1월 9일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9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p> <p>참고문헌 『문화유적분포지도』-완주군(완주군·전북대학교 박물관, 2006)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전라문화유산연구원·완주군, 2017)</p>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1</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2</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3</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4</p> 
<p style="text-align: center;">전경</p>	<p style="text-align: center;">특이사항</p>
	

5) 김제

■ 목록

연번	유적지명	지정 유형	지정일	비고
1	금산사(金山寺)	사적	2008.12.18.	
2	안위장군묘(安衛將軍墓)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1999.11.19.	

(1) 금산사(金山寺)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2월 07일)

기본정보			
명칭	금산사(金山寺)	소재지(주소)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일원(금산리)
지정 유형	사적	지정일	2008.12.18.
시대	조선	규모/수량/재질	202,304㎡
소유자	금산사 등	관리자	금산사
GPS 정보	35.7229, 127.0534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	화장실	√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하절기 : 06:00-19:00 동절기 : 06:00-18:00
전시관(실)	√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대부분 전각이 모두 잘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오층석탑의 경우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관람 할 수 없음

특이사항	관람 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19시까지 동절기는 18시까지임 주차장의 경우 무료 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이 있으며 유료주차장의 경우 일주문 주위에 2곳 보제루 앞 1곳이 있음
------	--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모악산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되었다. 통일신라 때 진표율사가 크게 중창하였다. 그 후 유가종찰(법상종찰)과 미륵성지로 명성을 구축하였고, 후백제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되기도 하였다. 고려 문종 33년(1079) 혜덕왕사 소현에 의해 대규모로 중창되었고,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불상을 모신 대사구, 경전의 판각과 편찬, 강의를 담당하는 광교원, 대중스님이 거주하는 봉천원의 3원 체제를 갖춘 대가람으로 일신되었다. 한국불교 역사상 불보*, 법보**, 승보***의 3보 사찰의 원형이 되었다.</p> <p>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뇌묵 처영대사는 1,000여 명의 승군을 훈련시키고,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행주산성, 독왕산성, 금산배 고개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남원 교룡산성을 수축하였다. 정유재란 당시 왜군의 보복으로 산내 전각이 모두 전소되었고, 인조 13년(1635) 수문대사와 문도들에 의해 대사구역이 재건되었다. 그 후 1961년 송월주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중건과 중수를 계속하였다. 1986년 12월 6일 문화재청의 실측과정 중에 보물 제 476호 대적광전이 화재로 전소되었으나, 송월주 대종사와 문도들에 의해 1990년 복원되었으며, 대대적인 도량 정비를 거쳐 호남제일의 가람으로 웅장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p> <p>문화재는 국보 1점, 보물 10점, 지방문화재 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사상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p> <p>*불보(佛寶): 석가모니불과 모든 부처를 높여 이르는 말 **법보(法寶): 깊고 오묘한 불교의 진리를 적은 불경을 보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승보(僧寶):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사찰
유형 : 유적/건물
지역 :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일월 (금산리)
시대 : 고대/삼국 - 조선
문화재 지정 일시 : 2008년 12월 18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사적

출처 : 디지털김제문화대전-금산사
<p>[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p>
<p>[개설] 금산사(金山寺)는 전라북도의 최대 사찰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창건에 관해서도 많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지만 『금산사지』를 근거로 백제 법왕 때 창건한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오랜 세월을 지내온 동안 수많은 고승을 배출하면서 불교계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유서 깊은 사찰이다.</p>
<p>[건립경위 및 변천]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데, 그것은 진표율사가 신라 오교(五敎) 가운데 하나인 법상종의 근본 도량으로 이룩해 놓았고 미륵전 등 수많은 불전을 세운 승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1884년(고종 21) 나기익(羅基翊)이 편찬한 『김제읍지』 등에는 후백제의 견훤(甄萱)이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진표 이전부터 금산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43년 김영수(金暎遂)가 펴낸 『금산사지』에 의하면 599년(법왕 1) 왕실의 자복사(資福寺)로 개대(開墾)되었다고 초창 연대를 밝히고 있다. 또 “초창 당시의 사양(寺樣)은 소규모로 대가람의 면모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가 762년(경덕왕 21) 진표율사가 개창에 착수하여 766년(혜공왕 2) 대사찰로서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산사는 진표율사 이전에 초창되었으며 진표율사에 의해서 그 면모가 일신되었고, 견훤의 후백제 왕실과 밀착되어 크게 번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중창은 혜덕왕사가 여러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이전의 당우를 크게 중수하였고, 선조 때 정유재란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자 1601년(선조 34)부터 1635년(인조 13)까지 약 35년에 걸쳐 수문대사 등이 재건하였다. 그리고 고종 연간에 용명화상이 미륵전 등 다수의 건물을 중수하였고, 1934년 황성열 주지가 주요 건물에 대한 보수를 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중수와 신축을 거듭하여 왔지만 지금의 금산사는 선조 이전의 모습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는 정유재란 이전 금산사의 규모를 말해 주는 1635년 편찬된 『금산사사적』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 글에 의하면 금산사 경내는 크게 대사구·봉천원구·광교원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총 80여 채가 넘는 건물이 있었다. 그리고 산내 암자만도 40여 개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유재란 후 경내의 건물 가운데 수문대사에 의해 재건된 건물은 3구역 중 대사구의 일부만 건립되었으며 나머지는 지금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금산사가 웅장한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진표율사의 힘이 컸다. 그런 이유로 진표율사를 금산사의 개산조(開山祖)라 부른다. 진표율사는 12세 때 금산사의 순제법사에게 입문하여 수도하던 중 스승으로부터 미륵(彌勒)과 지장(地藏) 두 성인 앞에 나아가 참회하며 계법을 구하라는 명을 받았다. 27세가 되던 해 보안현(保安縣)의 변산(邊山) 불사의방(不思議房)에 들어가 신명을 바쳐 수도에 정진하면서 계법을 구하였다.</p>

이에 감동한 지장과 미륵 두 보살은 진표에게 각각 계본(戒本)과 목간자(木簡子)를 내려 주었다. 두 보살로부터 교법을 전해 받은 진표율사는 산을 내려와 금산사를 중창하고 미륵장륙상(彌勒丈六像)을 주상하여 미륵전 내에 주존(主尊)으로 봉안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중생을 교화하면서 하나의 교단을 형성해 나갔다. 이 종파를 법상종(法相宗)이라고 하는데 유가종·유식종·자은종으로도 부른다.

진표율사 이후 금산사의 대표적인 승려 중 첫째로는 고려 문종 때의 혜덕왕사[1038~1095]이다. 혜덕의 속성은 이(李)씨이고, 이름은 소현(韶顯)이다. 11세 때 입산하여 해안사의 고승 해인국사의 제자가 되었다. 1061년(문종 15) 왕윤사에 실시된 오교대선(五教大選)에 합격하여 대덕의 법계를 받았다. 그 후 1069년(문종 23)에 중대사, 1071년에 삼중대사가 되었으며 1083년에는 수좌(首座)와 승통(僧統)의 자리에 올랐다.

혜덕왕사는 여러 사찰의 주지도 역임했는데 1079년(문종 33)에는 금산사의 주지로 취임하였다. 주지로 있으면서 절 남쪽에 광교원을 창건하여 규기(窺基)가 선술(選述)한 『법화현찬(法華玄贊)』, 『유식술기(唯識述記)』 등 장소(章疏) 32부 353권을 교정 개간(開刊)하였다. 1095년(숙종 즉위년) 금산사의 봉천원에서 귀적하니 왕이 그에게 시호를 내려주었다. 혜덕왕사가 입적한 후 금산사의 주지가 된 사람은 도생승통(道生僧統)이었다. 도생승통은 문종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동생이다.

금산사에서 배출된 고려시대의 고승으로는 원명대사[1262~1330]를 꼽을 수 있다. 속성은 조(趙)씨이고 이름은 해원인데, 12세에 출가하여 금산사 석광법사의 제자가 되었다. 원명대사의 승명이 널리 알려지자 원나라에서 그를 초청하여 승은복원사의 제1세 주지로 삼았다. 1328년 충숙왕은 그를 금산사의 주지로 임명하기 위하여 원나라 황제에게 원명대사를 본국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귀국하게 된 원명대사는 한동안 금산사 주지로 머물면서 당우를 중창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후 다시 원나라 승은복원사에 돌아가 그곳에서 귀적하였다. 조선시대의 고승으로는 먼저 뇌묵대사를 들 수 있다. 그는 20여 세에 금산사에 입문하였고, 후에 서산대사에게 조계(曹溪)의 선지(禪旨)를 전수받았다. 임진왜란 때는 금산사에서 승병 1,000여 명을 모집하여 거의부전(擧義赴戰)하니 조정에서 총섭(總攝)으로 임명하였다. 후에 조정에서 공로를 보상하여 국일도대선사부종수교보광현랑뇌묵(國一都大禪師扶宗敎葆光玄郎雷默)이라는 법호를 내려주었다.

다른 고승으로는 남악선사가 있다. 서산대사의 6세 법손으로 법명은 태우(泰宇), 호는 남악당(南岳堂)이다. 처음 지산(智山)의 용문사에서 득도하였으며 쌍봉사 쟁원선사, 월담사 운제선사, 직지사 모운대사 등에게 법을 전수받았다. 1725년(영조 1) 남악선사가 금산사에서 화엄대법회를 개강하였을 때 수업을 듣는 학생이 1,400여 명에 달할 만큼 성회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고려 충렬왕 때의 효정승통(孝禎僧統), 조선 선조 때의 소요선사, 숙종 때의 환성선사 같은 고승들이 금산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

[현황]

금산사의 말사로 김제시의 귀신사·망해사·문수사·청룡사·학선암·흥복사, 무주군에 관음사·백련사·북고사·안국사·월통사, 완주군에 단암사·대원사·송광사·안수사·안심사·옥련암·원각사·월등사·위봉사·정수사·학림사·화암사, 진안군에 고림사·금당사·옥천암·천황사가 있다. 군산시에

<p>불지사·상주사·은적사, 전주시에 극락암·금전암·남고사·법우사·서고사·자하원 포교당·진복사·천고사·칠성사·학소암, 남원시에 귀정사·대복사·덕음사·선국사·선원사·실상사, 익산시에 관음사·남원사·문수사·백운사·법성사·사자암·송림사·심곡사·연국사·자명사, 장수군에 신광사·영월암·팔성사, 대전광역시에 죽림정사 등이 있다.</p> <p>[관련 문화재] 김제 금산사 일원은 2008년 12월 18일 사적 제496호로 지정되었다. 금산사에는 국보 1점과 보물 10점 등 총 11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다. 국보로는 제62호 금산사 미륵전(金山寺彌勒殿)이 있다. 보물로는 제22호 금산사 노주(金山寺露柱), 제23호 금산사 석련대(金山寺石蓮臺), 제24호 금산사 혜덕왕사진응탑비(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제25호 금산사 오층석탑(金山寺五層石塔), 제26호 금산사 석종(金山寺石鐘), 제27호 금산사 육각다층석탑(金山寺六角多層石塔), 제28호 금산사 당간지주(金山寺幢竿支柱), 제29호 금산사 심원암 북강삼층석탑(金山寺深源庵北崗三層石塔), 제828호 금산사 석등(金山寺石燈), 제827호 금산사 대장전(金山寺大藏殿) 등이다.</p> <p>[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 - 『호남절의사(湖南節義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p>

④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금산사 조감도	금산사 일주문
	

<p>금산사 당간지주</p>	<p>금산사 금강문</p>
	
<p>금산사 천왕문</p>	<p>금산사 보제루</p>
	
<p>금산사 대광적전</p>	<p>금산사 미륵전</p>
	
<p>금산사 대장전</p>	<p>금산사 명부전</p>
	

금산사 대광적전과 미륵전	금산사 부도전
	
금산사 조사전	금산사 조사전 뇌묵대사 처영 영전과 위패
	

(2) 안위장군묘(安衛將軍墓)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이해원

조사일자(2024년 12월 08일)

기본정보			
명칭	안위장군묘(安衛將軍墓)	소재지(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4-5
지정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일	1999.11.19.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수량/재질	일원
소유자	안종래	관리자	안종래
GPS 정보	35.8723, 126.8877	기타	
실태조사표			
주차장	√	화장실	X
진입로 안내판	√	유산설명 안내판	√
입장료	X	관람시간	X
전시관(실)	X	보관장소	수장고() / 문서고()
인력배치	상근() / 비상근(√) / 기타()		
관리환경	감시카메라	소화장치	기타
		√	소화장치는 새로 건설된 사당에 있음
보존상태	상(√) / 중() / 하()		판단 이유
			현재는 봉분 등을 정비하고 제초 작업 등 주변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음
특이사항	현재 안위장군묘 아래로 새로 사당으로 보이는 건물을 지었으며 주차장도 있어 이용 가능하였음		

② 유적지 설명

유적지 설명 안내판 문구 작성
<p>이 무덤은 조선 중기의 장군 안위의 묘이다.</p> <p>무덤 앞에 있는 석등은 창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며, 좌우에는 1.5m 크기의 비교적 작은 문인석을 세웠다.</p> <p>안위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을 따라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워, 선조가 그의 공을 인정하여 <무경칠서>를 내려주고 <선무원종공신>에 이름을 올렸다. 뒤에 그는 전라 우수사, 평안도 방어사 등을 역임했다.</p>

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 : 역사/전통시대 / 문화유산/유형유산
유형 : 유적/능묘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4-5
시대 : 조선/조선 후기
문화재 지정 일시 : 1999년 11월 19일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출처 : 디지털김제문화대전-안위장군묘
<p>[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에 있는 조선 후기 무신 안위의 묘.</p> <p>[개설] 안위(安衛)[1563~1644]는 1592년(선조 25)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거제현령이 되었다. 1594년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이 지휘한 제2차 당포해전 때 전부장(前部將)으로 공을 세웠다. 1597년에는 부산의 왜군 화약고에 불을 질러 폭파하였으며, 이후 전라우수사를 거쳐 전라도병마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597년(선조 30)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통제사 이순신의 지휘 아래 왜선 20여 척을 격파하여 선조에게서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상으로 받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뽑혔다.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여 널리 알려지고 1598년 정월에 통정(通政)에 오르고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에 제수되었다. 1599년에는 가선(嘉善)에 올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고 이듬해 1600년에는 전라병사(全羅兵使)로 제수(除授)되었다. 1602년에는 전라수사로 임명되었고, 1604년에는 가의(嘉義)에 올라 이듬해 1605년에는 충청병사(忠淸兵使)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하였다. 1606년 경상수사(慶尙水使)가 되었다가 1608년에는 전라수사로서 수군을 통제하였다. 1612년에는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정온(鄭蘊)의 간곡한 상소로 1619년 평안방어사(平安防禦使)로 임명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되자 다시 대장으로 등용</p>

하러 하였으나 반대파의 시론(時論)에 부딪쳐 향리에 돌아와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74세의 고령으로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따라가기 위해 북상하던 중 은진(恩津)에 머물고 있었으나 길이 막힌 상황이어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강화(降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돌아와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1644년(인조 22년)에 향년 82세의 고령으로 별세하였다.

[위치]

안위장군묘는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대산마을 뒤편 야산에 있다.

[형태]

봉분의 직경은 7.3m, 높이는 1.4m, 반경 둘레는 23.2m로 타원형을 이루고, 주위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정면 중앙에 상석이 있다. 상석 전면에 장명등이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 장명등은 없고, 문인석만이 자리하고 있다.

[현황]

1999년 11월 19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봉분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참고문헌]

- 『김제시사』(김제시사편찬위원회,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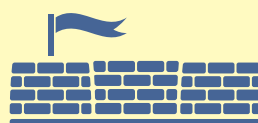
④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안위장군묘 전경</p>	<p>안위장군묘비</p>
	
<p>안위장군묘</p>	<p>안위장군묘</p>
	
<p>안위장군묘 문인석</p>	<p>특이사항</p>
	



비지정 유산

1. 동부권



1) 무주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죽계서원(竹溪書院)	
2	열부 박이항지처 전주원씨정려(烈婦 朴以恒之妻 全州元氏 旌閭)	

(1) 죽계서원(竹溪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4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죽계서원			
	명칭(한자)	竹溪書院			
	소재지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716-3			
	GPS 정보	35.845505, 127.645031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구례 장씨(求禮張氏)문중에서 관리			
관리상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
기타	· 개인 사유지 내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포가 찢어져 있으나 거의 다 찢어짐 · 개인 사용 중(양봉 등) · 상태 매우 불량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장지현</p> <p>①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25일 임오 벼슬을 올려 논상(論賞)도 하고 특별히 중한 가자(加資)를 주어 권장함을 보이기도 하소서. 장지현(張智賢)의 의열(義烈)은 옛사람에게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해조(該曹)에게 포증(褒贈)하게 하여 신하의 절의를 격려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② 『고종실록』 권27, 27년 3월 27일 병신 지난 임진왜란 때에 조방장(助防將) 장지현(張智賢)의 군사가 패전하고 자신도 죽었는데 만일 평소에 미리 방비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p> <p>③ 『일성록』 정조22년 2월 6일 경자 목천(木川)의 유학(幼學) 남준(南駿)의 상언에, 저의 7대조인 증(贈) 좌의정 남유(南瑜)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왜장(倭將)과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싸우다가 탄환(彈丸)을 맞고 운명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증직(贈職)되어 의정(議政)이 되었으나 아직 시호(諡號)를 내려 주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영묘(英廟) 계사년(1773, 영조49)에 삼남(三南)의 많은 선비들이 시호를 내려 주는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으나 예조가 저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장지현(張智賢)과 장필무(張弼武) 두 사람이 또한 같은 시대에 충렬(忠烈)의 공을 세웠다고 하여 아울러 시호를 내려 주는 은혜를 입었는데 저의 선조만 역명(易名 사시(賜諡))의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장필무에게 시호를 내려 준 예대로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하여, 전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상세히 상고한 다음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하였다.</p> <p>2. 장필무</p> <p>① 『선조수정실록』 권8, 7년 9월 1일 임신 전 병마사(兵馬使) 장필무(張弼武)가 죽었다. 필무는 보통 이상으로 청렴하여 무인(武人)답지 않았고, 또 강직하여 뜻이 높았기 때문에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다. 일찍이 탄식하기를</p>

‘육진(六鎭)의 병민(兵民)이 계속 유랑하고 도망가는 것은 초피(貂皮)를 진상하는 것이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다. 상이 그 지절(志節)을 높이 인정하여 여러 차례 장유(獎諭)를 내렸는데, 죽은 뒤에는 청백리(清白吏)에 추록(追錄)되었다. 명묘(明廟) 이후 무신으로서 청렴하고 개결한 자로는 필무를 제일로 꼽는다.

② 『선조수정실록』 권2, 1년 5월 1일 경술

수문은 위망(威望)이 있는 노련한 장수로서 그들을 섬멸하는 일에 예의 주력하여 부대를 나누어 편성하고 호인을 불의에 덮치기 위하여 밤을 이용하여 행군한 끝에, 새벽이 되기 전에 서해평에 닿았다. 그리하여 4면으로 에워싸고 합공(合攻)하려 했는데, 위장(衛將) 장필무(張弼武)가 성질이 조급하여 다 에워싸기도 전에 나팔을 불어댔다. 나팔소리를 들은 호인들이 고려(高麗) 군대가 왔다고 크게 고함을 질러 장정들은 모두 어둠을 타 도망쳐버렸다.

3. 김신

①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금산군

금산군(錦山郡) 본래 백제의 진내을군(進乃乙郡)이었는데, 신라에서는 진례군(進禮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는 현령(縣令)으로 강등하였다가, 충렬왕(忠烈王) 31년 을사에 고을 사람 김신(金僉)이 원(元)나라에 벼슬하여 요양 행성 참정(遼陽行省參政)이 되어서 본국(本國)에 공이 있었으므로 지금주군사(知錦州郡事)로 승격하였다.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금산군으로 고쳤다.

4. 장의현(張義賢)

① 『선조실록』 권17, 16년 2월 14일 정유

신립은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으니 교서를 지어 하유하도록 하고, 그의 어머니께 쌀과 콩을 합하여 20석을 내리라. 부령 부사(富寧府使) 장의현(張義賢)은 따로 건원(乾原)을 지키면서 반적이 와 포위하자 고군으로 혈전 끝에 적을 물리쳤고, ... 장의현은 가자할 것이며, 신상절은 4자급을 뛰어넘어 어모(禦侮)로 삼고 준직(準職)을 제수하라.

② 『선조실록』 권56, 27년 10월 11일 을묘

경상도 조방장(助防將) 곽재우(郭再祐)를 장수로 정하여 김응함(金應誠)·장의현(張義賢)·백사림(白士霖)·주몽룡(朱夢龍)·나승윤(羅承胤)·김덕령(金德齡)·한명련(韓明璉)과 승장(僧將) 신열(信悅) 등이 거느린 군사 6백 50명을 거느려 보내면서 기회를 보아 초격(勦擊)하여 기필코 큰 공을 세우도록 각별히 신칙(申勅)하고, 신은 전라 병사 이시언(李時言)과 직접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함안 등의 지역에 복병하여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2) 열부 박이항지처 전주원씨정려(烈婦 朴以恒之妻 全州元氏 旌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0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열부 박이항지처 전주원씨정려			
	명칭(한자)	烈婦 朴以恒之妻 全州元氏 旌閭			
	소재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96-1			
	GPS 정보	35.980637, 127.649087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정면 1칸, 측면 1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밀양박씨 문중에서 관리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려 앞 임시 주차 가능(4대) · 내부 현판 떨어짐 · 담장 한 쪽 무너짐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박이항 처 원씨</p> <p>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제6권 원씨반죽(元氏攀竹)</p> <p>원씨반죽(元氏攀竹) 원씨는 장수현 사람이니, 박이항(朴以恒)의 아내다. 그 지아비를 따라 왜적을 피하였는데, 도적이 이르자 원씨가 두 딸을 거느리고, 대나무 사이에 숨었더니, 도적이 먼저 작은 딸을 잡아, 더럽히려 하얀 칼날을 휘두르며 협박하여도, 따르지 않고 또 큰 딸을 잡아 목을 베는 형상을 보여도, 어미와 딸이 서로 함께 나무에 의지하고 화를 내며 꾸짖기를 더욱 모질게 하니, 도적이 크게 노하여 끌어내어, 원씨가 한 손에 아이를 붙들고, 한 손으로 대나무를 붙잡아, 살이 피로 물들어도 굴하지 않자, 도적이 먼저 두 딸을 죽이고, 다음 원씨에게 이르니, 목숨이 이미 끝나도, 손에서 대나무를 놓지 않았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2) 진안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충효사(忠孝祠)	
2	창렬사(彰烈祠)	
3	충비 열녀 이성난향비(忠婢 烈女 李姓蘭香碑)	

(1) 충효사(忠孝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4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효사			
	명칭(한자)	忠孝祠			
	소재지	진안군 백운면 원노길 26(노촌리 503)			
	GPS 정보	35.714875, 127.421274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9평. 맞배지붕/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m 아래 경로당 주차 가능(3대) · 진입로 임시 주차 가능(2대)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자료
<p>I. 관련인물</p> <p>1. 신의련</p> <p>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제8권 의련활부</p> <p>의련활부(義連活父) 정병 신의련은 사천현 사람이다. 임진왜란에 그 아버가 왜적에게 다쳐서 거의 죽게 되었거늘, 신의련이 밤낮으로 아버를 안고 우더니 뒤에 왜적이 와서 또 아버의 그 곁을 떠나지 않음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효자라” 하고, 죽이지 않고 가버렸다. 금상 때 정문을 내렸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p>해당 사항 없음</p>

(2) 창렬사(彰烈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5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창렬사			
	명칭(한자)	彰烈祠			
	소재지	부귀면 세동리 887			
	GPS 정보	35.809955, 127.306171			
	시대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1칸 / 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사) 웅치전적지 보존회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치 전적지 1.2km 금방 · 진입로가 있으나, 공사로 인해 막혀 있으므로 뒷 길을 통해 들어가야 함 · 금방에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음 · 담장 기와가 살짝 깨져 있음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p>이곳은 임진왜란(壬辰倭亂)때 호남을 지켜냄으로써 나라를 지켜낸 전투로 평가되는 웅치전적지(熊峙戰迹地)의 한복판이다.</p> <p>당시 왜군(倭軍)은 조선 전역을 거의 장악한 뒤 호남 공략을 위해 금산에서 일만여 명의 병력으로 용담, 진안을 거쳐 전주성을 공략하고자 했다.</p> <p>이를 막고자 1592(壬辰)년 8월 13~14일 이틀간 전주 의병장 황박(黃璞), 나주판관 이복남(李福男), 김제군수 정담(鄭湛), 해남현감 변응정(邊應井)과 함께 진안 출신 창의사(倡義使) 김수(金粹)와 그 동생 김정(金精)등의 의병이 연합하여 이곳 웅치에서 죽기로써 싸웠으나 무기의 열세와 중과부적으로 김제군수 정담과 김수, 김정 등을 포함하여 상당수 장렬히 전사하였다.</p> <p>이후 왜군은 전주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전주 안덕원까지 진출하였으나 이곳 웅치전에서 막대한 전력의 손실을 입었기에 전주성을 제대로 공략도 못해보고 패주(敗走)하고 말았다. 이에 웅치전은 곡창 호남을 지켜내고 국가를 지켜낸 사실상 대첩(大捷)으로 평가되고 있다.</p> <p>이후 이곳 덕봉마을에서는 웅치전에서 순국하신 영령들의 충혼을 기리고자 420여 년간 면면히 추모제를 모셔왔다. 진안군은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2012년 창렬사(彰烈祠)를 건립하고 매년 8월 13일에 (사)웅치전적지보존회 주관으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추모제(追募祭)를 봉행하고 있다.</p>
관련 사료
<p>I. 관련 인물</p> <p>1. 황박(黃璞)</p> <p>①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1일 기축</p> <p>왜적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군현(郡縣)을 침범하였다. 처음에 호남의 군사가 패하여 본도로 돌아오니 여러 고을의 인심이 흉흉하여 보전할 수 없었는데, 오직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만이 고을의 군사를 단속하고 이웃 고을에 격문을 전하여 수어(守禦)할 계획을 하였으므로, 이광(李洸)이 즉시 첩보하여 권율을 도절제사로 삼아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나아가 수비하게 하였다. 이에 방어사 곽영(郭嶸), 동북 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 전주(全州) 의병장 황박(黃璞), 나주 판관(羅州判官) 이복남(李福男),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을 웅현(熊峴)과 이현(梨峴) 등 요해처에 나누어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지하게 하였다.</p> <p>②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7월 1일 무오</p> <p>전라 절제사 권율(權慄)이 군사를 보내어 왜적을 웅치(熊峙)에서 물리쳤는데 김제 군수 정담(鄭湛)이 전사하였다. 왜병이 또 이치(梨峙)를 침범하니 동북 현감 황진(黃進)이 패배시켰다. … 황박(黃璞)·정담 등과 요해지에 웅거하여 적을 맞아 공격하였으므로 감사 이광(李洸)이 군사를 보내어 싸움을 돕게 하였다. 왜적의 선봉(先鋒) 수천 명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돌진해 왔는데, 복남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활로 쏘아 죽인 것이 헤아릴 수 없었으며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 이튿날 새벽에 적이 병력을 총동원하여 산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총포 소리가 우레처럼 쏟아졌다. 복남 등이 적의 일진(一陣)을 맞아 싸웠으나 결국 당해내지 못하고 퇴각하였으며, 황박의 군사도 패하여 복남의 진으로 들어갔다.</p>

2. 이복남

① 『선조수정실록』 권27, 26년 5월 1일 갑인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순변사 이빈(李贛),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는 적을 추격하여 영남에 내려가고, 충청 병사 황진(黃進)과 전라 방어사 이복남(李福男)은 각각 그들의 군사를 인솔하고 모였으며, 권율(權慄)은 신병(新兵)을 거느리고 운봉(雲峯)을 넘어 영남으로 달려갔다. 모두 창녕(昌寧)·의령(宜寧) 등 읍에 벌여 둔을 치고 적경(賊境)에 임하였다.

3. 정담

① 『선조실록』 권50, 27년 4월 3일 신해
 신들이 전해 들은 바로 말하면, 전라도(全羅道) 웅치(熊峙) 싸움에서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澗)이 온종일 힘을 다하여 적을 무수히 죽이고 결국 화살이 떨어져 군대는 패하고 자신은 죽었으나 전주를 보수(保守)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담이 역전하여 적을 꺾은 공이 큼니다.

② 『선조실록』 권73, 29년 3월 4일 신미
 상이 권율에게 이르기를, … 웅치(熊峙)의 싸움에서 자신이 먼저 퇴패(退北)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웅치의 싸움에서 정담(鄭澗)이 죽자 신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장수(長水)와 임실(任實) 사이를 수비하고, 이광(李洸)은 전주(全州)를 수비하였는데 화살이 다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물러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사가 이에 이른 것은 모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경은 어서 내려가서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흥적을 토평하라. 하고, 이어 태복마(太僕馬) 및 마장(馬粧)을 하사하니, 권율이 재배하고 나갔다.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3) 충비 열녀 이성난향비(忠婢 烈女 李姓蘭香碑)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9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비 열녀 이성난향비			
	명칭(한자)	忠婢 烈女 李姓蘭香碑			
	소재지	상전망향의광장(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173-7)			
	GPS 정보	35.865348, 127.480364			
	시대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높이 113cm, 넓이 67cm / 석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전 망향의 광장 내 위치 · 주차 가능(20대) · 공용 화장실 있음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이난향(李蘭香)</p> <p>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제8권 난향사적(蘭香死賊)</p> <p>난향사적(蘭香死賊) 사비 난향(蘭香)은 진안현 사람이니, 나이 열여섯에 왜란을 만나, 번번이 말하되 만일에 적을 곧 만나면, 마땅히 스스로 죽을 것이라 하더니, 도적을 만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3) 장수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금곡영당(金谷影堂)	
2	원씨부인 정려(元氏夫人 旌閭)	

(1) 금곡영당(金谷影堂)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5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금곡영당			
	명칭(한자)	金谷影堂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413-1			
	GPS 정보	35.748942, 127.570572			
	시대	확인 불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1칸 / 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 / 무),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 / 무)				
	1	2	3	4	5
			√	√	
기타	· 공사로 인한 진입로 250m 가량 서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아래 마을회고나 앞 주차 공간(15대) 및 화장실 이용 가능 · 소화전 有 · 내부 폐쇄중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정충신(정충신[鄭忠信])</p> <p>① 『선조실록』 권74, 29년 4월 22일 무오 이항복에게 올라온 연유를 물으니, 적중(賊中)의 사정과 정사(正使)가 탈출한 곡절을 조정이 자세히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그것을 아뢰고자 올라왔다고 하며, 정충신(鄭忠信)이 적중에 왕래하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p> <p>② 『선조실록』 권74, 29년 4월 23일 기미 항복이 아뢰기를, 정충신이 평조신(平調臣)에게 적의 정세를 물으니, 조신의 말이 ‘나 역시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은자(銀子)를 가지고 조신과 가까운 하인을 달래기를 ‘밀고하면 은자를 주겠다.’ 하니, 그가 고하기를, ‘관백(關白)이 크게 기뻐하면서 관사(館舍)를 수리하고 천사를 맞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사의 말이 「이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하였다. 모자(謀者)의 【이른바 밀고자다.】 말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면서 나아가 고하기를 「봉사(封事)가 이루어져 천사가 바다를 건너면 필시 곤욕을 받을 것이다.」 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천사가 도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빨리 도주한 것은 오로지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p> <p>④ 『선조실록』 권75, 29년 5월 20일 병술 이항복(李恒福)이 서장을 올렸다. 군관(軍官) 정충신(鄭忠信)이 부산의 왜영에서 돌아와 고하기를 ‘정사(正使) 일행의 원역(員役) 중 위내(圍內)에 있는 자를 여전히 포위하여 지키고, 부사(副使)가 있는 곳의 바깥도 여전히 포위하여 지키고 철수하지 않았다. 적의 정상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는 부사가 어질다고 늘 말하기는 하나 속으로는 실로 의심하여 엿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1</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2</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3</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4</p>
	

전경	특이사항
	

(2) 원씨부인 정려(元氏夫人 旌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3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원씨부인 정려			
	명칭(한자)	元氏夫人 旌閭			
	소재지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771 /절부전주원씨정려각			
	GPS 정보	35.598082, 127.418993			
	시대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1동/목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밀양박씨 국당공파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유적 안내판(현장)(<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군 향토 문화재 제16호 · 주차 공간(15대) · 내부 공간 폐쇄 중 · 소화기 핀 빠져 있음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p>전주원씨는 조선 중기 유학자인 박이항의 처로 1598년(선조 31)에 명정을 받았다. 중수기에는 1710년(숙종 36)에 정문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93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건축적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나 명정연대가 비교적 빠른 편이고, 중수 기록도 잘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p>
관련 사료
<p>무주 박이항 처 참고</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4) 임실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학정서원(鶴亭書院)	
2	효충서원(孝忠書院)	
3	백운암(白雲庵)	

(1) 학정서원(鶴亭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6일

기본 정 보	명칭(한글)	학정서원			
	명칭(한자)	鶴亭書院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8길 36-3 (구고리 573)			
	GPS 정보	35.576065, 127.201351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1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 리 실 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상태 부실 (현판, 바닥, 안내문 등) · 문이 잠겨있으나 움직이지 않게 자물쇠로 고정된 상태 · 진입로 매우 협소 (일반통행) 특히, 서원 앞 진입로 급 커프 · 주차공간이 넓진 않으나 서원 앞 길에 주차는 가능함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자료
<p>I. 관련인물</p> <p>1. 박번(朴蕃)</p> <p>① 『중종실록』 권15, 7년 5월 9일 임자 임실현(任實縣) 생원(生員) 박번(朴蕃)은 그 아버가 병으로 고생하자 그 대변을 맛보아 사생(死生)을 징험하였으며, 아버가 오리를 먹고 싶다 하자 그는 형제들을 거느리고 며칠 동안 물가에 가 구하되 얻지 못하자 팔뚝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난데없는 오리가 물에 떠 나오므로 그것을 가져다가 공궤하였으며, 아버가 죽어서는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습니다.</p> <p>②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제3권 박번득압(朴蕃得鴨) 박번득압(朴蕃得鴨) 생원 박번은 임실현 사람이다. 성품이 효성스러웠다. 아버가 병에 걸려 오리를 먹고자 하여 물가로 가서 구하되 가슴 두드리고 서러워 울었더니, 문득 죽은 오리가 떠오르거늘 갖다가 드렸다. 이어 돌아가매 곧 삼 년 동안 시묘를 하였다. 공희대왕 시절 정려를 받았다.</p> <p>2. 박훈(朴薰)</p> <p>① 『중종실록』 권99, 37년 11월 10일 병진 임실(任實) 사는 진사(進士) 박훈(朴薰)은 모친상을 당하여 빈전(殯奠)·제사 등을 모두 《가례(家禮)》에 따랐으니, 여막에 거처하던 삼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고, 상을 마친 후에는 아무리 여역(癘疫)을 만났을 때라 하더라도 시제(時祭)·기제(忌祭)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아침마다 가묘(家廟)에 배알하고 청소하는 일은 생시나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예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70세에 추복(追服)하였고, 또 삼년 동안 여막에 거처하며 조석의 제사를 초상 때처럼 하였습니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전경	특이사항
	

(2) 효충서원(孝忠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8일

기본 정보	명칭(한글)	효충서원			
	명칭(한자)	孝忠書院			
	소재지	전북 임실군 임삼로 1590-20 (임실읍 정월리 561)			
	GPS 정보	35.564607, 127.263170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정면 5칸 측면 3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 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는 가능하나 효충서원과 정려비를 포함하여 문중 개인 사택 내부에 있음(관리인 상주) · 김복규, 김기종 효자 정려비 및 정판, 효충묘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3) 백운암(白雲庵)

① 실태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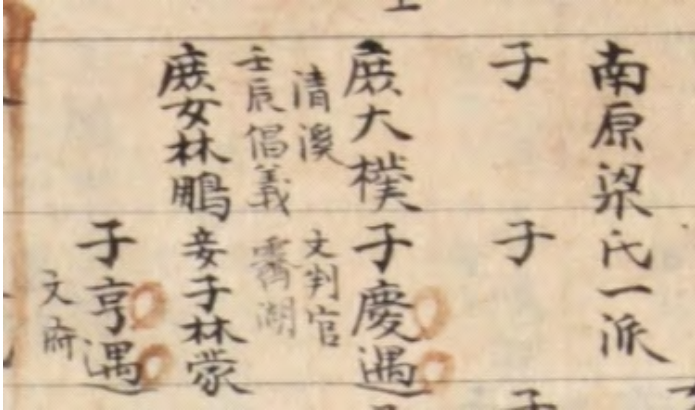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4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백운암			
	명칭(한자)	白雲庵			
	소재지	전북 임실군 강운로 900-31 (운암면 운암리 25-5)			
	GPS 정보	35.588674, 127.135805			
	시대	확인 불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 조계종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경사가 심하여 차량 이동이 어려움 · 50m 아래 주차 가능(10대) · 화장실이 있으나 사용 금지되어 있음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양대박(남원 총렬사 양대박 참고)</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양씨 만가보</p>  <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p> <p>2. 양경우(梁慶遇)</p> <p>① 『정조실록』 권45, 20년 8월 9일 신사</p> <p>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임진년의 의병장 양대박(梁大樸)과 그 아들 양경우(梁慶遇)에 대하여 사후 포상하는 은전이 베풀어지지 못하였으니, 증직을 더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 증 호조 참판 양대박에게 정경(正卿)을 증직하고 시제(諡祭)를 내려주라. 그리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청계집(靑溪集)》 및 《창의록(倡義錄)》을 내각으로 하여금 도신에게 내려보내어 판본을 만들어 인쇄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 아들 태상시 정 양경우도 충성스럽고 용감하며 군세고 곧으니 바로 그 아비를 닮은 사람이라 하겠다. 문장과 필한(筆翰)은 오히려 여사에 속한다. 더구나 무자년에 관직을 버리고 계축년에 은둔하여 절의가 아주 완전하니 어찌 흑시라도 민멸되겠는가. 한 품계를 더하여 주고 그가 지은 《제호집(霽湖集)》도 똑같이 인쇄하여 올리도록 하라.</p>

③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전경	특이사항
	

5) 남원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충렬사(忠烈祠)	
2	황진 부조묘(黃進 不祧廟)	
3	충신 황진정려(忠臣 黃進旌閭)	

(1) 충렬사(忠烈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6일

기본 정보	명칭(한글)	충렬사			
	명칭(한자)	忠烈祠			
	소재지	남원시 향교동 636 (만인의총)			
	GPS 정보	35.420410, 127.377636			
	시대	1612년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팔작지붕의 형태			
	소유자/관리자	남원시/남원향교			
관리 실태	감시카메라(☞ / 무),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인의 총 내부에 위치 · 주차장 이용가능(50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1월 29일까지 공사중이므로 변동 가능성 있음 · 만인의총 기념관 화장실 이용 가능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충렬사</p> <p>① 『정조실록』 권22, 10년 9월 27일 정유</p> <p>전라도 유학 김익현(金翼賢) 등이 글을 올려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芬)을 충렬사(忠烈祠)에 다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예조에서 복계하여 아뢰기를, 정분의 공은 충성과 큰 기개는 단종 때 세 정승 중의 하나입니다. 두 정승과 여섯 신하에게 모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정분만 영령을 모시는 한 칸의 집도 없으니, 실로 결여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한 것은 창설이 아니라, 그의 손자 사당에 배향하는 것에 불과하니, 관례를 초월하여 시행을 허락하는 것도 넉넉히 선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올려 호소함으로써 상규(常規)를 어기었으니, 그냥 두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살아서는 지조를 똑같이 지켰고 죽어서는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두 정승과 여섯 신하는 모두 제사를 지낼 곳이 있으나, 오직 충장공(忠莊公) 한 사람만 지금까지 빠졌으니 어찌 결여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충장공 정분을 충렬사에 배향하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전라도 진사 이진희(李鎭熙) 등이 글을 올려 증 병조 참의 양대박(梁大樸)의 관작을 가증(加贈)할 것을 청하였다. 예조에서 복계하여 아뢰기를 양대박의 절의는 매우 뛰어났으므로 성상께서 특별히 정문(旌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이 또 그의 아들로 인해 증직되었다는 이유로 정문을 세우고 비석을 세울 때에 관작을 올려 주라고 청하였습니다. 선비들이 호소한 것은 격례(格例)에 어긋나니, 그냥 두소서하니, 하교하기를, 증직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비록 1품에 이르더라도 괜찮지만 자신으로 인한 것이면 비록 한 품계에 그쳐도 괜찮다. 고 충신 증 참의 양대박에게 병조 참판을 더 증직하라.하였다.</p> <p>② 『영조실록』 권64, 22년 8월 30일 계사</p> <p>우참찬 원경하(元景夏)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남원성(南原城)이 함락될 적에 명나라 총병(摠兵) 중군(中軍) 이신방(李新芳)·천총(千摠) 장표(蔣表)·모승선(毛承先)이 우리 나라 접반사 정기원(鄭期遠)·병사 구복남(丘福男) 등과 동시에 전사하였는데, 충렬사(忠烈祠)에는 다만 우</p>

리 조정의 순절 제신(殉節諸臣)들만을 향사(享祀)하고 명(明)나라 장수는 향사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흠전(欠典)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명나라 장수를 주향(主享)으로 하고 우리 조정의 순절 제신들은 배향(配享)으로 하라 하였다.

II. 관련인물

1. 양대박

① 『영조실록』 권87, 32년 4월 14일 신해

유팽로는 곧 본현(本縣)의 사람으로서 임진년 난리 때 성균 학유(成均學諭)로서 어가(御駕)를 호위하여 서행(西行)했는데, 집정 재신(執政宰臣)이 말을 빼앗아 달려가 버리자, 유팽로는 도보로 고향에 돌아와 이웃 고을의 의사(義士) 안영(安瑛)·양대박(梁大樸)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전(前) 참의 신(臣) 고경명(高敬命)을 장수(將帥)로 추대해 문열공(文烈公) 신(臣) 조헌(趙憲)과 함께 금산(錦山)에서 죽었으니, 선묘(宣廟)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좌승지를 추증하고 정려(旌閭)하였으며, 광주(光州)의 포충사(褒忠祀)에 사액하였습니다.

② 『정조실록』 권45, 20년 8월 9일 신사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임진년의 의병장 양대박(梁大樸)과 그 아들 양경우(梁慶遇)에 대하여 사후 포상하는 은전이 베풀어지지 못하였으니, 증직을 더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이 의를 부르짖은 것은 증 영상 고경명(高敬命)보다 앞서고 그 용단은 충무공 이순신보다도 뛰어났으며 자기 몸을 던져 충성을 바친 것은 이 두 사람과 같았다. 유집(遺集)을 한 번 보니, 빼어난 바가 드러나, 마치 말을 올라타서는 적을 토벌하고 말에서 내려서는 격문을 짓던 그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지난번에 예조 판서가 입시하였을 때에, 조정에서 높여 보답하는 바에 있어 아직까지 알맞게 하지 않았고 그 유집의 판본까지 화재를 조심하지 아니하여 태워버린 데 대하여 안석 위의 조각난 등편(膽編)을 가리키며 한탄한 바가 있었다. 경이 아뢴 바가 바로 나의 뜻과 합치되니, 증 호조 참판 양대박에게 정경(正卿)을 증직하고 시제(諡祭)를 내려주라.

③ 『정조실록』 권48, 22년 2월 6일 경자

전라도 유생 이태규(李台奎) 등이 상언하기를, 고 영광 군수(靈光郡守) 김익복(金益福)은 능성 현령(綾城縣令)으로 있을 때 왜구들의 대거 침입을 당하여 열읍에 격문(檄文)을 돌리고 누차 전공을 세웠는데, 이 사실이 문정공(文靖公) 이식(李植)이 찬수한 국사(國史)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의병장 양대박(梁大樸)의 제문(祭文)에는 ‘살아서는 의당 적을 토벌하여 복수를 할 것이고, 죽어서는 여귀(厲鬼)가 되어 적을 섬멸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글은 양대박의 《창의록(倡義錄)》에 실려 있습니다. 그가 정유 재란 때에 이르러서는 임시로 영광 군수에 보직되어 많은 적을 초토하였는데, 유시(流矢)에 맞아 죽었습니다.

④ 『정조실록』 권22, 10년 11월 11일 신사

효자들에게 정문을 하사하였는데, 충신 증 병조 참의 양대박(梁大樸)의 집과 효자 학생 최도관(崔道觀)·최적관(崔迪觀)과 현감 이지로(李之老), 진도(珍島) 무부(巫夫) 강천복(姜天福)에게 모두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었다.

2. 정기원(鄭期遠)

① 『선조실록』 권88, 30년 5월 25일 을묘

양 총병의 접반사인 정기원(鄭期遠)의 서장에 아뢰기를, 신이 남원의 성곽을 개축하는 일로 도원수 권을, 순찰사 박홍로(朴弘老)와 상의하였더니, 권을은 '이 성은 매우 견고하며 해자도 깊고 가파르다. ... 지금 당장 삼태기와 가래들을 준비시키고 돌덩이들을 주워 모아 총병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② 『속종실록』 권57, 42년 윤3월 22일 임오
 남원현(南原縣)에 사당을 세워 임진년에 전사한 천장(天將) 이신방(李新芳)·모영선(毛永先)·장표(蔣表) 등 세 사람을 제사하고, 또 오흥업(吳興業)을 칠충신(七忠臣) 정기원(鄭期遠) 등의 사우(祠宇)에 추향(追享)하라고 명하였다.

3. 이복남(李福男)

① 『영조실록』 권66, 23년 10월 2일 기미
 신이 일신(一新)을 지나다가 그 이른바 충렬사(忠烈祠)라는 곳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이복남(李福男) 등 7인의 충신(忠臣)을 여기에서 제사하는 데 의사(義士) 임박(林樸)을 배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을의 부로(父老)들이 신을 향하여 크게 한숨쉬며 말하기를, '여러 공(公)들이 순국(殉國)한 절개는 진실로 모두 뛰어나지만, 의사의 죽음은 더욱 기이합니다.'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사항 없음</p>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2) 황진 부조묘(黃進 不祧廟)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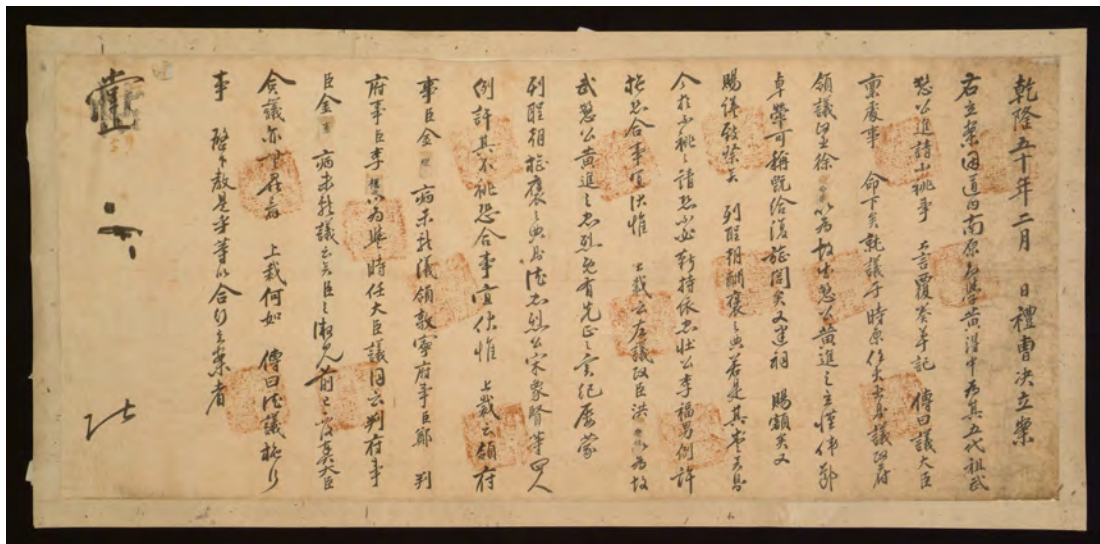
기본 정보	명칭(한글)	황진 부조묘			
	명칭(한자)	黃進 不祧廟			
	소재지	전북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85			
	GPS 정보	35.410823, 127.310676			
	시대	1785년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장수황씨 호안공파 무민공종중			
관리 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 관리상태 매우 좋음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I. 황진(黃進) 부조묘(不祧廟)

① 정조 9년(1785) 황득중(黃得中) 예조 입안(立案)



출처 : 한국학자료센터

II. 관련인물

1. 황진(黃進)

① 『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12월 1일 기사

이정암(李廷菡)을 대사간으로 삼고, 황진(黃進)을 동북 현감(同福縣監)으로 삼았다. 황진은 무인으로 문자는 알지 못했으나 용략(勇略)이 있었다. 그는 김성일(金誠一)을 따라 일본에 다녀와 왜변이 장차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일 공무가 끝나면 곧바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부지런히 익혔다.

②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1일 기축

왜적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군현(郡縣)을 침범하였다. 처음에 호남의 군사가 패하여 본도로 돌아오니 여러 고을의 인심이 흉흉하여 보전할 수 없었는데, 오직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울(權慄)만이 고을의 군사를 단속하고 이웃 고을에 격문을 전하여 수어(守禦)할 계획을 하였으므로, 이광(李洸)이 즉시 첩보하여 권울을 도절제사로 삼아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나아가 수비하게 하였다. 이에 방어사 광영(郭嶸), 동북 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 전주(全州) 의병장 황박(黃璞), 나주 판관(羅州判官) 이복남(李福男),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을 웅현(熊峴)과 이현(梨峴) 등 요해처에 나누어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지하게 하였다.

③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7월 1일 무오

왜병이 또 이치(梨峙)를 침범하니 동북 현감 황진(黃進)이 패배시켰다. … 왜장(倭將)이 또 대군(大軍)을 출동시켜 이치(梨峙)를 침범하자 권율이 황진을 독려하여 동북현의 군사를 거느리고 편비(偏裨) 위대기(魏大奇)·공시역(孔時億) 등과 함께 재를 점거하여 크게 싸웠다. 적이 낭떠러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황진이 나무를 의지하여 총탄을 막으며 활을 쏘았는데 쏘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하였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草木)까지 피비린내가 났다. 이날 황진이 탄환에 맞아 조금 사기가 저하되자 권율이 장사들을 독려하여 계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를 일컬을 때에 이치(梨峙)의 전투를 첫째로 쳤다. 이복남·황진은 이 전투로 이름이 드러났다. 왜적이 웅치(熊峙)의 전진(戰陣)에서 죽은 시체를 모아 길가에 묻어 몇 개의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조선의 충간의담을 조위한단다[吊朝鮮國忠肝義膽].’라고 썼다.

④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8월 1일 무자

동북 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을 익산 군수(益山郡守)·조방장으로 승진시키고 통정 대부에 가자(加資)하였는데, 이는 이치(梨峙)의 공로를 포상한 것이었다.

⑤ 『효종실록』 권7, 2년 9월 20일 갑오

전남도 남원(南原)의 진사 김지명(金之鳴) 등이 상소하기를, 임진란에 순절한 사람 증찬성(贈贊成) 황진(黃進)과 증판서(贈判書) 이복남(李福男)에 대하여 이미 사당을 세웠으니, 사당의 이름을 내려 주소서. 구례 현감(求禮縣監) 이원춘(李元春)은 유독 포증(褒贈)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전(贈典)을 내려 주소서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아뢰기를, 황진과 이복남의 사당은 김천일(金千鎰)·최경회(崔慶會)의 예에 의하여 해조로 하여금 사당의 이름을 내려 주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고, 이원춘은 본래 미관(微官)인데다가 또 자손도 없어서 유독 포록(褒錄)의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성세의 흠전(欠典)입니다. 이제 마땅히 격려하여 권장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⑥ 『숙종실록』 권4, 1년 12월 16일 기사

증(贈) 우찬성(右贊成) 황진(黃進)의 시호를 무민(武愨)으로 추증(追贈)하였다.

⑦ 『숙종실록』 권17, 12년 윤4월 14일 정묘

시독관(侍讀官) 김창협(金昌協)이 글 뜻을 풀이하며 진계(陳戒)에 갖추고, 또 아뢰기를, 지난 임진 왜란에 진주(晋州)의 한 성에서 절의에 죽은 사람이 매우 많은데, 김천일(金千鎰)·황진(黃進)·최경회(崔慶會)는 더욱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 이 사람들이 동심 협력하여 굳게 지키면서 힘껏 싸우다가 황진은 탄환을 맞아 죽고 … 고을 사람들이 그 의열(義烈)을 사모하여 사당을 세웠고 조정에서 또 사액(賜額)하여 포장까지 하였으나, 신이 영남의 사명을 받들고 갔을 적에 진주를 지났는데 사당도 퇴폐하였고, 청소할 사람조차 없었으며 봄 가을의 향사(享祀)도 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근의 중이 아직도 그 의열(義烈)을 사모하여 해마다 성이 함락된 날이면 고을 마을에서 쌀을 빌어다가 재(齋)를 올린다고 하는데, 들고 나니 참으로 측은했습니다. 매년 한재(旱災) 때면 조정에서 근시(近侍)를 보내어 향과 축문을 가지고 가서 본고을의 전쟁에 죽은 사람에게 치제(致祭)하고 있으나, 상시의 제사는 도리어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조정에서 그 충절을 마음 아파하는 뜻이 되겠습니까? 조정에서 별달리 신칙을 더하여 제사가 전처럼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⑧ 『고종실록』 권41, 38년 8월 6일 양력
 충청 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과 의병장(義兵將) 장운(張潤)이 탄환에 맞아 죽고 적들이 성으로 달려들어 성이 그만 함락되자 서예원은 북쪽을 향해 네 번 절을 하고 남쪽 문에 가서 앉았습니다. 적들이 항복시키려고 하니 이에 예원은 꾸짖으면서 항복하지 않았으며, 적들이 칼로 찌르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 항상께서는 속히 고 충신 서예원에게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훌륭한 시호를 주는 동시에 진주의 충렬사(忠烈祠)에서 추향(追享)하도록 하여 같은 때에 목숨 바쳐 절개를 지킨 충신 김천일(金千鎰), 황진(黃進), 최경회(崔慶會)와 함께 경건히 봉안하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억울하게 되었던 충성스러운 넋을 위로하고 한 시대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하소서.

⑨ 『비변사등록』 권221, 순조 33년 6월 20일
 금년 봄 진양에 치제(致祭)한 일은 특별히 구갑(舊甲)을 맞이하여 감흥이 일어난 거룩한 뜻에서 나왔으니, 무릇 보고 듣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 진양의 일은 바로 왜변(倭變) 가운데 가장 혹독하고 심한 일로, 그때 의(義)를 위하여 죽은 여러 신하는 또한 모두 불꽃처럼 밝고 뛰어나 햇빛이나 별빛과 그 밝음을 다룰 만한데, 가장 두드러진 이로 말하면 바로 고 문열공(故文烈公) 신 김천일(金千鎰)·충의공(忠毅公) 신 최경회(崔慶會)·무민공(武愍公) 신 황진(黃進)입니다.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3) 충신 황진정려(忠臣 黃進旌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3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신 황진정려			
	명칭(한자)	忠臣 黃進旌閭			
	소재지	전북 남원시 대신면 하대길 22			
	GPS 정보	35.410626, 127.310841			
	시대	1611년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장수황씨 호안공파 무민공종중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려 앞 임시 주차 가능(4대) · 내부 현판 떨어짐 · 담장 한 쪽 무너짐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항진 부조묘 참고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6) 순창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옥산사(玉山祠)	
2	화산서원(花山書院)	

(1) 옥산사(玉山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1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옥산사			
	명칭(한자)	玉山祠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1길 25-34			
	GPS 정보	35.349172, 127.169600			
	시대	1612년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팔작지붕의 형태			
	소유자/관리자	남원시/남원향교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 옥산사의 한자 ‘玉山寺’는 오기(誤記)로, ‘玉山祠’가 옳은 표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가 농토 사이의 외길 · 주차 가능하나, 길에 해야함 · 내부 폐쇄 중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2) 화산서원(花山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박찬양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2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화산서원			
	명칭(한자)	花山書院			
	소재지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산 15-2			
	GPS 정보	확인 불가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확인 불가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p>· 화산 서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위치는 순창군 유등면 저탄(猪灘) 상(上)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신경준 묘역 근처에 화산 서원이 있었다고 한다. 유적지로 가는 길은 순창군청에서 대강면·유등면 방면 지방도 730호선을 가다 유등면 행정복지센터와 유등 초등학교를 지나 내이 삼거리에서 적성면·오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광주 대구 고속 도로 아래 굴다리가 나온다. 그 굴다리를 지나 2 km 정도 가서 나오는 오교 마을에서 적성 방면으로 500m 가면 오른쪽 야산으로 들어가는 농로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1712~1781]의 묘라는 이정표가 보인다.</p> <p>· 현재 터만 존재함, 신경준 묘역과 같이 있음</p>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고경명</p> <p>①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23일 경진 비변사가 아뢰기를, 곤수(閔帥)는 손을 움츠리고 열읍(列邑)의 수령은 방관만 하고 있으니, 민을 것은 의병뿐입니다.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등이 창의(倡義)한 뒤에 반드시 잇달아 일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p> <p>②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29일 병술 적병이 벌써 전라도를 침범하였다."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듣건대 고경명(高敬命)이 그의 아들 고종후(高從厚)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어 방어하는데 적세가 호대(浩大)하다 합니다. 전하께서는 압록강을 건넌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p> <p>③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7일 갑오 고경명(高敬命)의 군사가 가장 정예(精銳)로운데 경명은 전투에서 패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헌은 적의 수가 3백 30명일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전주(全州)에 당도하여 들으니 4백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경록(李景祿)은 웅치(熊峙)에 결진(結陣)하였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적이 크게 밀어닥치자 정담(鄭湛)이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다가 끝내 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전주는 군사가 전부 들어가서 지키고 있고 감사(監司)도 만경대(萬景臺)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병세(兵勢)가 크게 떨친다고 합니다."</p> <p>④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26일 계축 "고경명(高敬命)은 죽었는가?" 하니, 주가 아뢰기를, 곽영(郭嶸)은 군사를 싸움터로 보내는 자신은 홀로 고산원(高山院) 속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경명이 이를 보고 군령으로 머리를 베려고 하였으나 왕인(王人)이기 때문에 우선 선봉을 삼아 행군하게 하였다가 불의에 왜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살되었다고 합니다.</p> <p>⑤ 『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5일 정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전일 금산(錦山)에 들어왔던 왜적의 수가 거의 만여 명에 이르는데 사납고 용감함이 비길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의 병력(兵力)은 다른 도와는 달라 웅치(熊峙)의 싸움과 이치(梨峙)의 공수(攻守)에서 맹장(猛將)과 경졸(勁卒)이 많이 전사하였는데도, 퇴각(退却)하지 않고 끝내 조헌(趙憲)·고경명(高敬命) 등의 의병과 연합하여 왜적을 무찔러 일시에 섬멸하였으니, 그 충성과 용맹이 가상합니다. 남원(南原)은 성이 완고(完固)하여 수어(守禦)하기에 충분하지만, 패전한 뒤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니, 과연 전번과 같은 전과(戰果)를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p>

⑥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7월 1일 무오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이 금산(錦山)의 적을 토벌하다가 패하여 전사하였다. 경명이 모집한 병사 6천~7천 명을 단속해서 북상하여 여산(礪山)에 주둔하였는데 왜적이 호남 지역을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휘하 장사들이 본도를 염려하여 먼저 도내의 적을 토벌한 뒤에 북쪽으로 정벌할 것을 다투어 청하자 경명이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군사를 진산(珍山)으로 옮겼는데 당시 왜적은 금산으로 퇴각하여 진을 두터이 치고 견고하게 하고 있었다. 경명이 방어사 곽영(郭嶸)과 함께 재를 넘어 험한 곳으로 들어가 곧장 금산성 밖에 육박하였는데 곽영이 먼저 날랜 장사 수백 명을 보내어 적을 시험하다가 적에게 패하여 물러나자 경명이 북을 울리며 전투를 독려하여 도로 적병을 성 밖에서 위축시키고 성 안에서는 화포를 쏘아 적이 주둔하던 관사(館舍)를 불태우니 적이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 처음에 상이 경명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공조 참의 겸 초토사에 제수하도록 명하고, 글을 내려 칭찬하고 위로하였다. 공조 좌랑 양산숙(梁山燾)이 행재소에서 남쪽으로 돌아올 적에 상이 면유(面諭)하기를 ‘돌아가 고경명과 김천일(金千鎰)에게 말하라. 그대들이 빨리 수복하여 나로 하여금 그대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라.’ 하였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 명이 이르지도 않아서 경명이 패하여 전사하였는데 예조 판서에 추증하였다. 그뒤에 광주(光州)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포충사(褒忠祠)라고 사액하였다. 경명의 자(字)는 이순(而順), 호(號)는 제봉(霽峯)이다. 풍류와 문재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바였으며 중년에는 벼슬길이 막혔으나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난리에 임해서 절개를 드러냈으므로 조정에서는 그를 일찍 기용하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의 시(詩)는 대가(大家)로 불리워졌으며 유고(遺稿)가 세상에 전한다.

2. 김천일(金千鎰)

①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29일 정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듣건대 나주(羅州)에 거주하는 부사(府使) 김천일(金千鎰)도 역시 의병 7백여 명을 모아 곧장 경성(京城)을 수복하기 위해 이달 13일 천안(天安)에 당도하였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도 급히 관직을 제수하여 권장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② 『선조실록』 권30, 25년 9월 15일 임신

요동에 자문을 보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라도 병마 절도사 최원(崔遠)이 8월 6일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강화 부사(江華府使) 윤담(尹湛), 월곶진 첨절제사(月串鎭僉節制使) 이빈(李蘋) 등과 배를 타고 진격하니 적이 퇴각하여 토성(土城)으로 들어갔는데, 제군(諸軍)이 2백여 명을 사살하고 수급 92과(顆)를 얻었습니다.

③ 『선조실록』 권41, 26년 8월 4일 을유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자에 전후의 장계를 상고하고 계문을 참고해 보건대, 판결사(判決事) 김천일(金千鎰)은 몸소 성을 순행하면서 눈물로 사졸들을 위무하였고 성이 함락될 때 좌우가 부축해 일으켜서 피하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은 채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이나 피하라.’ 하고서 최영회(崔永會)와 더불어 촉석루(矗石樓) 위에서 통곡을 하고는 이내 스스로 벼랑 밑으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④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1일 기축

호남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였다. 삼도(三道)의 군사가 무너진 뒤

로부터 기내(畿內)가 완전히 살육과 노략질을 당했는데, 적에게 붙좃아 도성에 들어간 자도 많았다. 천일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니, 상이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임명하는 동시에 창의사(倡義使)라는 칭호를 내렸다. 천일의 군사가 수원(水原)에 이르러 독산(禿山) 고성(古城)에 웅거하여 적에게 붙좃은 간민(奸民)을 찾아내어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기내의 사민(士民)이 많았다.

⑤ 『선조수정실록』 권27, 26년 6월 1일 갑신

김천일(金千鎰)은 자(字)가 사중(士重)으로 이항(李恒)에 사사(師事)하여 학문으로 명성이 있었으며, 강방(剛方)하고 엄직(廉直)하였다. 입대(入對)할 때마다 할 말을 다하면서도 임금의 뜻에 맞았는데, 정성을 다해 관직을 수행하여 남다른 치적을 세웠다. 그러나 체질이 허약해 병이 많았는데, 군대 내에서 세월을 지내다 보니 고생으로 몸이 야위어 옷의 무게도 이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나 지기(志氣)가 견정(堅貞)하고, 충성(忠誠)이 분개(奮慨)하였다. 그래서 못사람들로 하여금 적과 대치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3. 고경명 & 김천일

① 『인조실록』 권14, 4년 9월 12일 신사

지사 김상용(金尙容)이 아뢰기를, 임진년에 왜구(倭寇)가 갑자기 나와 선묘(宣廟)께서는 도성을 버리셨고, 팔도가 결단이 났을 적에 고경명(高敬命)과 김천일(金千鎰)은 창의병을 일으켰고 두 사람이 다 전사하였으니, 그들의 뛰어난 충절은 칭송할 만합니다. 지난번 남쪽의 유생들이 사당을 세우고 사액(賜額)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고경명에게 표충(表忠), 김천일에게 정충(旌忠)이라는 액호를 하사하였으나 사제(賜祭)의 은전이 없으니 매우 부족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상용이 아뢰기를, 고경명의 아들 고용후(高用厚)와 손자 고부천(高傅川)은 모두 벼슬을 하고 있으나, 김천일은 손자 하나뿐인데 떠돌면서 구걸하고 있다 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그의 사람됨이 쓸만한지의 여부는 감히 알 수 없으나, 혹 복호(復戶)해 주거나 녹용해도 불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녹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③ 유적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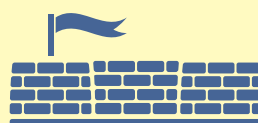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사항 없음</p>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비지정 유산

2. 서남권



1) 부안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효충사(效忠祠)	
2	사산사(士山祠)	
3	충신 무장공 신호정려(忠臣 武壯公 申浩旌閭)	

(1) 효충사(效忠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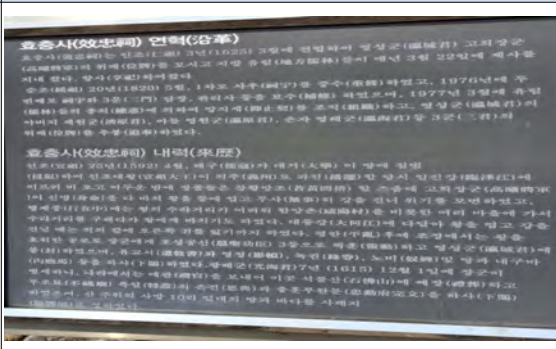
기본 정보	명칭(한글)	효충사			
	명칭(한자)	效忠祠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석불산길 156-6			
	GPS 정보	35.72736, 126.6405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제주 고씨 종중			
관리 실태	감시카메라(☞ / 무),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관리가 매우 양호(고씨 가문 유물관도 함께 관리 중) · 주차 가능(70대, 장애인 6개) <li style="padding-left: 20px;">- 주차장에서 200-300—가량 도보 이동 · 내부 폐쇄 중 · 반송, 고흥건 신도비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p>효충사(效忠祠)는 인조(仁祖) 3년(1625) 3월에 건립하여 영성군(瀛城君) 고희장군(高曦將軍)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지방 유림(地方儒林)들이 매년 3월 22일에 제사를 지내 왔다. 향사(享祀)하여왔다.</p> <p>순조(純祖) 20년(1820) 5월, 1차로 사우(祠宇)를 중수(重修)하였고, 1976년에 두 번째로 祠宇와 3문(三門) 담장, 관리사 등을 보수(補修)하였으며, 1977년 3월에 유림(儒林)들의 총의(總意)에 의하여 양지계(仰止契)를 조직(組織)하고, 영성군(瀛城君)의 아버지 제원군(濟原君), 아들 영원군(瀛原君), 손자 영해군(瀛海君) 등 3군(三君)의 위패(位牌)를 추봉(追奉)하였다.</p>
관련 자료
<p>I. 관련인물</p> <p>1. 고흥(高曦)</p> <p>①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18일 병오</p> <p>이른 아침에 상이 정주를 떠나 광산을 지나 선천(宣川)에 도착하였다. 광산 군수(郭山郡守) 이경준(李慶濬)이 호종하겠다고 주청하니, 상이 하교하였다. 광산 군수 이경준은 대가를 수행할 것이니 체차하고 그 대신 선전관 고흥(高曦)을 광산 군수로 삼으라. [이때에 도로에 떠도는 말에, 왜적들이 반드시 대가를 뒤쫓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니, 대가가 지나간 여러 고을이 일제히 비고 난민들이 창고를 불사르며 약탈해 갔으므로 고흥이 그 임무를 강력히 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2) 사산사(士山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2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사산사			
	명칭(한자)	士山祠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331-3			
	GPS 정보	35.66682, 126.7035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강당: 정면4칸 측면3칸, 사당: 정면 3칸 측면1칸/ 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 / 무),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가 매우 잘되어 있음 · 내부(사산사) 폐쇄 중 · 주차 가능(5대) · 성암 채선생 추모비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3) 충신 무장공 신호정려(忠臣 武壯公 申浩旌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8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신 무장공 신호정려			
	명칭(한자)	忠臣 武壯公 申浩旌閭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외하리 198			
	GPS 정보	35.688391, 126.749381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높이145cm×너비54cm×두께 24cm/석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상태는 양호하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음 - 비석 바로 뒤까지 농지로 이용 중 · 소화기, 화장실, 주차장 없음 - 정려 앞에 임시 주차 가능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신호(申浩)</p> <p>①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16일 계묘 낙안 군수(樂安郡守) 신호(申浩)를 겸 내자시 정(兼內資寺正)으로 ... 삼았다</p> <p>② 『선조실록』 권92, 30년 9월 2일 기축 총독 경략 군문(總督經略軍門) 및 경리 조선 군무 도찰원(經理朝鮮軍務都察院)에 자문(咨文)을 보냈다.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남원(南原)이 함락당한 연유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양 총병(楊總兵)의 근수 통사(跟隨通事) 박의성(朴義成)이 남원으로부터 달려와 말하기를 ‘성이 함락될 때에 총병은 1백여 기(騎)를 대동하고 여러 겹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다. 본도(本道)의 병마사(兵馬使) 이복남(李福男), 별장(別將) 신호(申浩), 구례 현감(求禮縣監) 이원춘(李原春) 등이 성안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지탱하지 못하여 총병 사후(總兵伺候) 정기원(鄭期遠), 부사(府使) 임현(任鉉), 판관(判官) 이덕회(李德恢), 통관(通官) 이춘란(李春蘭) 및 관군(官軍)들과 더불어 총 7백여 명이 모조리 피살되었다.’ 하였습니다.</p> <p>③ 『선조수정실록』 권31, 30년 9월 1일 기축 적이 남원을 함락시키니, 총병(總兵) 양원(楊元)은 도망하여 돌아왔고, 총병 중군(總兵中軍) 이신방(李新芳), 천총(千總) 장표(蔣表)·모승선(毛承先), 접반사(接伴使) 정기원(鄭期遠), 병사(兵使) 이복남(李福男), 방어사(防禦使) 오응정(吳應井), 조방장(助防將) 김경로(金敬老), 별장(別將) 신호(申浩), 부사(府使) 임현(任鉉), 판관(判官) 이덕회(李德恢), 구례 현감 이원춘(李元春) 등이 모두 죽었다. 처음에 적장 평행장(平行長)과 평의지(平義智) 등이 군사를 나누어 진격해 와 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이때 양원과 이신방은 동문에 있고 천총 장표는 남문에 있고, 모승선은 서문에 있고 이복남은 북문에 있으면서 서로 여러 날 동안 버티었다. 적병이 나무와 풀로 참호를 메우고 밤을 틈타 육박해 올라와 어지러이 탄환을 쏘아 대니, 성안이 크게 혼란하였다. 이에 양원은 휘하 몇 사람과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 겨우 죽음을 면하였고, 중국 군사와 우리 군사는 모두 죽었다. 이신방·장표·모승선·정기원·이복남·오응정·김경로·신호·임현·이덕회·이원춘도 모두 전사하였다. 남원이 함락되자 전주(全州) 이북이 한꺼번에 와해되어 어찌 해볼 수가 없게 되었다. 후에 중국에서는 양원을 죽여 우리 나라에 조리돌리었다.</p> <p>④ 『효종실록』 권18, 8년 2월 21일 갑오 고부(古阜)의 유학(幼學) 김양기(金良器) 등이 상소하기를, 충신(忠臣)과 절사(節士)에 대해 그 고향에 사당(祠堂)을 세워주는 것은 고금의 통의(通誼)이며, 사액(賜額)하여 포장(褒獎)하는 것은 국가의 법도입니다. 충신(忠臣) 증 이조 판서 송상현(宋象賢)과 증 형조 판서 신호</p>

(申浩)와 증 우찬성 김준(金浚)은 본군 사람입니다. … 신호는 젊은 나이에 붓을 던지고 나라를 위할 뿐 죽음도 잊고서 두 번이나 해전(海戰)에 나가 문득 기이한 계책을 내더니, 끝내는 명나라 장수와 함께 남원(南原)을 지킬 때 미리 이름을 써서 의대(衣帶) 속에 넣어 자기 집 사람에게 보내고, 그 성이 함락될 때 힘껏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⑤ 『속종실록』 권11, 7년 3월 16일 기사

전라도(全羅道)의 유생(儒生)들이 상소(上疏)하기를, 고부인(古阜人) 신호(申浩)·김준(金浚)은 송상현(宋象賢)을 따라 임진년(205)에 죽었는데, 한 사당(祠堂)에 같이 향사(享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상현(宋象賢)은 이미 증시(贈諡)하였으나, 두 신하(臣下)만 오직 역명(易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송상현과 똑같이 증시하게 하소서. 하니, 소장(疏章)을 예조(禮曹)에 내렸다. 뒤에 연신(筵臣)이 아뢴 것으로 인해서 임금이 특별히 증시(贈諡)하도록 하여, 신호는 ‘무장(武壯)’, 김준(金浚)은 ‘장무(壯武)’라고 시호를 내렸다.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2) 정읍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충렬사(忠烈祀)	
2	송산사(松山祠)	
3	충신선교랑 예빈시 직장 고흥 유경인지려(忠臣宣敎郎 禮賓寺 直長 高興 柳景仁之間)	

(1) 충렬사(忠烈祀)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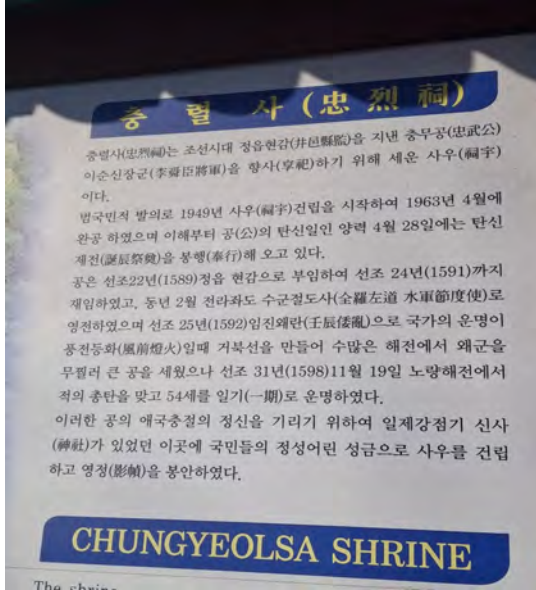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렬사			
	명칭(한자)	忠烈祀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28-13			
	GPS 정보	35.5699, 126.8575			
	시대	1948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 / 무),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무공원 내 위치 · 정읍 시청 옆 주차 1시간 이용 가능(20대) 및 주위 주차장 이용 가능 · 화장실, 관리인 모두 있음 · 매주 월, 목 휴무 · 박중순 선생 묘소, 충훈탑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자료
<p>I. 충렬사 & 정읍</p> <p>① 『일성록』 정조 10년 2월 26일 경자</p> <p>정읍의 유학 유택규(柳宅奎)의 상언에, ‘고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유애사(遺愛祠)가 정읍에 있으니 바라건대 현액(顯額)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유애사의 사체는 충렬사(忠烈祠)와 같지 않아서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두소서.”</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2) 송산사(松山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4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송산사			
	명칭(한자)	松山祠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14-10			
	GPS 정보	35.604152, 126.985500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산 선비문화사료관에 주차 가능(7대) · 무성 서원 둘레 길 중 첫 번째 언덕에 있음 · 한정, 필양사, 시산사, 송정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p>1788년 창건하였으며 1868년 정부의 영에 의하여 헐렸다가 1954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였다. 갠대립, 김응빈, 김정, 김감, 김급, 송치중 등 6인의 조선중기 인물을 향사하였다. 송산사에 모신 김대립과 김응빈은 7광, 김감과 김급은 10현에 속했던 인물이다.</p> <p>*7광 10현 광해군 재위기간재위1608~1623 시절 왕의 폭정이 극에 이르러 세상이 어지러웠다. 이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세상에 연연하기 않고 세월을 보내는 이들을 가리켜 7광 10현이라 일컬었다. 7광은 김대립, 김응빈, 김감, 송치중, 송민고, 이상형, 이탁을 가리키며 10현은 7광 중 김응빈, 김감, 송치중, 송민고, 이탁 5인과 김관, 기금렴, 김급, 김우직, 양몽우라는 5인을 추가하여 열명의 어진 선비를 가리킨다.</p>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3) 충신선교랑 예빈시 직장 고흥 유경인지려
(忠臣宣敎郎 禮賓寺 直長 高興 柳景仁之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5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신선교랑 예빈시 직장 고흥 유경인지려			
	명칭(한자)	忠臣宣敎郎 禮賓寺 直長 高興 柳景仁之閭			
	소재지	정읍 송산동 송령마을 369-1			
	GPS 정보	35.541620, 126.874262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란 때 현판이 사라져서 새로 생김 · 문중 상시 대기 중 · 소화 장치 상태 불량 · 5M 앞 마을 회관 주차장 및 화장실 이용 가능(10대)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3) 고창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옥제사(玉堤祠)	
2	죽산사(竹山祠)	
3	충신 채홍국 정려(忠臣 蔡弘國 旌閭)	

(1) 옥제사(玉堤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7일

기본 정보	명칭(한글)	옥제사			
	명칭(한자)	玉堤祠			
	소재지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산 89-1			
	GPS 정보	35.414861, 126.732650			
	시대	1829년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장흥고씨 문중			
관리 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가능(150대) · 소화기 오래됨 · 문 한쪽 떨어짐 · 내부 폐쇄 중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자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2) 죽산사(竹山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4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죽산사			
	명칭(한자)	竹山祠			
	소재지	고창군 아산면 죽산길 23			
	GPS 정보	35.432259, 126.586632			
	시대	1713년 조선시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1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2010년 기준 함양오씨 사호공파 종중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매우 양호 · 내부 폐쇄 중 · 근처 마을 회관 및 정자 앞에 임시 주차 가능(5개) · 사호공신도비, 수산오선생강학비, 오씨공동무덤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오전(吳暎)</p> <p>① 『인조실록』 권43, 20년 1월 18일 무자 무장(茂長)에 사는 고 현령 오전(吳暎)은 늙은 아비와 계모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섬겼으며, 부모의 상을 만나 예를 다하다가 끝내 슬픔으로 병이 들어 죽었다. … 모두 정려(旌閭)할 것을 명하였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3) 충신 채홍국 정려(忠臣 蔡弘國 旌閣)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준혁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0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신 채홍국 정려		
	명칭(한자)	忠臣 蔡弘國 旌閣		
	소재지	고창 흥덕면 용반리 460		
	GPS 정보	35.574135, 126.708647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려각만 있고 정려 없음 · 근처 도로에 임시 주차 가능(3대) · 남당 회맹당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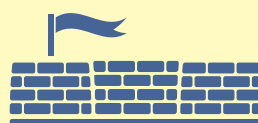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II

비지정 유산

3. 북부권



1) 전주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증통정대부공조참의 양국걸지처 열녀 인동장씨정려 (贈通政大夫工曹參議 梁國傑之妻 烈女 仁同張氏旌閭)	
2	한계사(寒溪祠)	

(1) 증통정대부공조참의 양국걸지처 열녀 인동장씨정려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9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증통정대부공조참의 양국걸지처 열녀 인동장씨정려			
	명칭(한자)	贈通政大夫工曹參議 梁國傑之妻 烈女 仁同張氏旌閭			
	소재지	전주시 완주군 중인1길 257-58			
	GPS 정보	35.75602, 127.08684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1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계마을 경로당 옆 노거수 건너편 위치 · 도로변 임시주차가능하나 옆에 식당 운영중으로 오랜시간은 불가 · 정려 입구 비석은 풍화마모로 글자 인식 어려움 · 양씨 집안에서 관리하다가 최근 토지 판매 후 관리인 없음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장씨</p> <p>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제5권 _장씨자액(張氏自縊)</p> <p>장씨는 전주 사람이니, 유학 양국걸(梁國傑)의 아내다. 왜적이 핍박하자,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張氏全州人 幼學梁國傑妻也 倭賊將迫 知不免 自縊而死 今上朝 旌門)</p> <p>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장씨자액」 각주에 의하면 양국걸(梁國傑)은 정유재란 때 의병장 이정란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으며, 벽사도찰방·삼가현감·해미현감·강계판관·흥덕현감 등을 역임한 조선 중기 문신인 양몽열의 아버지이다. 본관은 남원(南原)이다.</p> <p>2. 양국걸 처제 장씨</p> <p>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제5권 장씨견살(張氏見殺)</p> <p>장씨는 전주 사람이니, 주부 김언철(金彦哲)의 아내이고 열녀 양국걸(梁國傑)의 처제이다. 왜적을 만나 범해지려 하자, 죽기로 굳게 거스르니, 도적이 오른손을 잘라도 따르지 않자 죽었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張氏全州人 主簿金彦哲之妻 烈女梁國傑之妻弟也 遇倭賊將犯之以 死堅拒 賊斷右手竟 不從殺之 今上朝旌門)</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2) 한계사(寒溪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4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한계사			
	명칭(한자)	寒溪祠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55 아래			
	GPS 정보	확인 불가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확인 불가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유 / <input type="checkbox"/>), 진입로(유 / <input type="checkbox"/>)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사(寒溪祠)가 아니라 한계서원(寒溪書院)으로 보여짐. · 한옥마을 주차장 이용가능 · 한벽당 뒤편 산이 발계봉 자락으로 추정됨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학봉사우(鶴峯祠宇)</p> <p>①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학봉사우(鶴峯祠宇)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이정란(李廷鸞)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지냈다. 신중경(申重慶) 호는 금서당(琴書堂)이다. 이상진(李尙眞) 숙종 때의 정승이다.</p> <p>II. 관련인물</p> <p>1. 이정란(李廷鸞)</p> <p>① 『선조실록』 권30, 25년 9월 12일 기사 금산의 왜적이 세력이 매우 치성하였다 하고, 또 듣건대 웅치(熊峙)에서 막아 싸울 때 적군 2백여 명을 살해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전주성(全州城)을 수비할 때 감사 이광(李洸)은 용암대(龍巖臺)에다 진을 치고 방어사 곽영(郭嶸)과 수성장(守城將) 이정란(李廷鸞)은 성으로 들어가 지키면서 안팎에서 협공하였는데 그 지대가 평원이어서 적들이 바라만 보고 돌아갔다 합니다.</p> <p>② 『선조실록』 권30, 25년 9월 13일 경오 처음에 전주성(全州城)을 지키고 적을 퇴각시킨 것을 최철견(崔鐵堅)의 공으로 알고 포상(褒賞)을 계청하여 당상에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적의 기병(騎兵)이 많지 않았었고 성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 지방 사람인 이정란(李廷鸞)의 공이었는데 최철견도 힘을 합하여 막아낸 도움이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중가(重加)하여 초승(超陞)시킨다면 요행심만 열어주게 될 뿐이니 이정란·최철견의 당상 가자를 개정하고 직만 높여 서용하소서.</p> <p>③ 『선조실록』 권47, 27년 1월 15일 갑오 무군사(撫軍司)가 장계하기를, 전주성(全州城)을 지키는 것은 전부 정난(李廷鸞)의 공이었습니다. 당초 왜적이 금산(錦山)을 공격, 함몰시키고 웅치(熊峙)가 무너져 버리자 적이 동문(東門) 밖에 이르렀고 성황산(城隍山)으로도 올라갔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때 정난이 처자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와서는 성중의 사서(士庶)들로 하여금 피하여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대열을 정비하여 성을 지키게 하고 군위(軍威)를 엄하게 하였으므로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마침내 물러갔습니다. 이곳 전주부 사람들은 모두들 정난의 공은 많은데 상이 적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동궁께서 이곳에 주가(駐駕)하고 계신데 특별히 포상(褒賞)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해체되겠기에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당초 성을 지키는 공에 대해 물의(物議)가 모두들 정난의 공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난은 바로 준직(准職)에 있는 사람이니 중한 가자(加資)로 올려주는 것은 아래에서 감히 마음</p>

대로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정란의 일은 포위된 성에서 적을 퇴치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아래에서 이미 아뢰었으니 위에서 선뜻 응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서운해 할 것이고 인심도 해이될 것이다. 한 자급(資級)은 그리 중한 것이 아니니 가자하라.하였다.

④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7월 1일 무오

왜병이 전주(全州)에 침입하였다가 퇴각하였다. 적이 이미 이치(梨峙)에서 패하고 나서 다시 상로(上路)를 따라 재를 넘어 전주를 침입하였다. 이에 본 고을 사람인 전 전적 이정란(李廷鸞)이 주민(州民)을 이끌고 주성(州城)에 들어가 지켰으며, 감사 이광(李洸)은 주성 밖 용함대(龍函臺)에 진을 치고서, 낮에는 의병(疑兵)을 설치하여 기치(旗幟)가 산골짜기에 가득하게 하고 밤이면 횃불을 줄지어 세워 서로 응하게 하였다. 정란이 군사를 엄히 단속하며 주성에 웅거하니 왜적이 고군(孤軍)으로 깊이 들어와서 대적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는데, 이로부터 다시 침입하지 못하였다.

⑤ 『일성록』 정조 23년(1799) 8월 22일 기미

고(故) 전주인(全州人)인 전주부윤 겸 삼도소모사(全州府尹兼三道召募使) 증(贈) 이조 판서 이정란(李廷鸞)은 집안에서는 효성과 우애가 천성에서 우리나라 온 듯하였고 조정에서는 강직하고 방정하고자 스스로 책려하였습니다. 일찍이 적신(賊臣) 정여립(鄭汝立)과 같은 성내(城內)에 살았는데 그의 흉포하고 무도한 것을 미워하여서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온 뒤로 그로부터 독사 같은 중상모략을 당하였으나, 역적이 주살되기에 이르자 온 세상이 모두 그의 밝은 선견에 탄복하였습니다.

⑥ 『일성록』 정조 23년(1799) 12월 14일 정유

전라 감사 조종현(趙宗鉉)이 조사하여 보고한 계본(啓本)으로 인하여 증 이조 판서 이정란에게 시호를 하사하는 일에 대해 대신(大臣)에게 문의하여 상계 여쭙어 처리하는 것으로 본조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대신에게 문의하니, 좌의정 심환지(沈煥之)는 ‘고(故) 소모사(召募使) 이정란이 하나의 성(城)을 지켜 대규모의 왜구를 막아 호남 천리를 온전하게 지켜 내서 마침내 중흥(中興)의 위대한 공적을 세운 것은 고 상신(相臣) 이정귀(李廷龜)이 지은 비문과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묘지(墓誌)의 글에서 상고할 수가 있으니, 어찌 다만 고을 사람과 노인들이 예로부터 전해 온 탄식하는 설만 가지고 그 큰 공적의 징험을 취하겠습니까.’

⑦ 『일성록』 순조 11년(1811) 7월 3일 기묘

완산부(完山府)의 고사(故事)를 살펴보면, 소모사(召募使) 이정란(李廷鸞)이 임진왜란 때에 세력이 약하고 고립되어 적과 맞서 싸울 수 없게 되자 부내(府內)의 백성과 재물을 모두 이만마동으로 옮기고 만마동의 남쪽과 북쪽에서 늘 끊임없이 연기를 피우게 하여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것을 적이 보게 하였습니다. 적이 과연 우리가 매복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하여 끝내 감히 부성을 침범하여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③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p>해당 사항 없음</p>	

2) 익산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은천사(隱泉祠)	
2	충렬사(忠烈祠)	
3	좌랑공 소행진 자부민씨 정려(佐郎公 蘇行震 子婦閔氏 旌閭)	

(1) 은천사(隱泉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8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은천사			
	명칭(한자)	隱泉祠			
	소재지	익산시 은기동 64			
	GPS 정보	35.986435, 127.012809			
	시대	조선후기, 현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4칸 측면 2칸/목재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 / 무),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 / 무), 진입로(유 / ☉)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천사 앞 공터 주차 가능(30대) · 내부 폐쇄중 · 관리상태 양호 · 근처 유적 : 이보정려각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이보(李寶)</p> <p>① 『인조실록』 권14, 4년 9월 10일 기묘</p> <p>“익산군(益山郡)의 소행(蘇行)과 이보(李寶)는 모두 어릴 때부터 강개한 뜻을 품었었는데, 지난 임진란에 도성이 함락되고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행행하게 되자 두 사람은 통곡하며 서로 이르기를, ‘나라가 위급하고 임금께서 옥을 당하시는 이때에 어찌 차마 죽지 않고 왜적들과 같이 살겠는가.’ 하고 의병을 모집하고 피를 마시며 함께 맹세하고서 집안 사람들과 결별하기를 ‘나는 기필코 목숨을 바칠 것이고 맹세코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시다. 그리고는 마침내 출전하여 적을 맞아 싸우면서 곧바로 금산(錦山) 지역에 이르러 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과 합세하여 진(陣)을 쳤는데, 여러 군영 중에서도 가장 사기가 엄숙하고 군용이 정돈되었으며, 적병 수백 급을 참수하였으나 며칠 동안 적병이 계속해서 진격해와 몇겹으로 포위하자 두 사람은 혈전을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p> <p>② 『일성록』 정조 7년(1783) 1월 23일 을묘</p> <p>“충신인 전라도 익산 소행진(蘇行震)은 이보(李寶)의 전례에 따라 증직과 정려를 하고, 운봉고 진사 오상복(吳尙福)은 증직하라.”</p> <p>2. 이귀(李貴)</p> <p>① 『선조실록』 권46, 26년 12월 3일 임자</p> <p>입암 산성은 장성 현감 이귀(李貴)가 거의 다 수축했습니다. 건달 산성과 수인 산성 또한 이 예에 의해 수축하게 하고 미리 근처의 인민들에게 알려 만일 적변이 발생하면 제때에 들어가 보전하여 기필코 지키도록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에 민력(民力)이 바야흐로 고갈되어 성을 수축하는 역사에 다시 민력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귀가 도내의 승려들을 동원하여 편의에 따라 역사를 끝마치려 한다는데 이 계책이 매우 온편합니다.</p> <p>3. 소행진(蘇行震)</p> <p>① 『일성록』 정조 7년(1783) 1월 23일 을묘</p>

또 익산(益山)의 충신 소행진(蘇行震)의 일을 읽어 아뢰었다. 내가 이르기를, “그의 충렬이 이실(李實)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혼자만 표창하는 은전이 없었으니 참으로 딱하고 애처롭다. 이실의 예대로 증직하고 정려하라.”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2) 충렬사(忠烈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8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렬사			
	명칭(한자)	忠烈祠			
	소재지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산76-69			
	GPS 정보	35.986216, 127.092646			
	시대	현대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렬사 앞 주차 가능(3대) · 내부 폐쇄 중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자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3) 좌랑공 소행진 자부민씨 정려(佐郎公 蘇行震 子婦閔氏 旌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8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좌랑공 소행진 자부민씨 정려			
	명칭(한자)	佐郎公 蘇行震 子婦閔氏 旌閭			
	소재지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13번지			
	GPS 정보	35.986216, 127.092646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단칸형, 정면1칸 측면 1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마 도토성 및 마석정 입구 앞 도로에 임시주차 가능(2대) · 소화기 마지막 점검 : 2024년 10월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전경	특이사항
	

3) 완주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단암사(丹岩寺)	

(1) 단암사(丹岩寺)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1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단암사				
	명칭(한자)	丹岩寺				
	소재지	전북 완주군 소양로 15-5(소양면 죽절리 688)				
	GPS 정보	35.856376, 127.210843				
	시대	확인 불가				
	규모/재질/수량	미륵전, 대웅전, 요사 2동으로 구성/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조계종				
관리상태	감시카메라(☉ / 무), 소화장치(☉ / 무),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벽을 파서 지은 암자 ·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어 있으나, 소화기 핀이 빠져있으며 점검 날짜 기재가 안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가능(5대) · 화장실 없음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진 1	사진 2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4) 김제

■ 목록

연번	유적명	비고
1	학당서원(學堂書院)	
2	청곡사(靑谷祠)	
3	충신 통정대부 행군수 박영란지려(忠臣 通政大夫 行郡守 朴英蘭之閭)	

(1) 학당서원(學堂書院)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3일

기본 정보	명칭(한글)	학당서원			
	명칭(한자)	學堂書院			
	소재지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생건길 48(하정리 287)			
	GPS 정보	35.831688, 126.890125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 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30m 앞 주차장 있음(30대) · 내부 폐쇄 중 · 관리 상태 좋음 · 700m 근처 삼현서원 있음
----	--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인물</p> <p>1. 정담(鄭湛)</p> <p>①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7월 1일 무오</p> <p>전라 절제사 권율(權慄)이 군사를 보내어 왜적을 웅치(熊峙)에서 물리쳤는데 김제 군수 정담(鄭湛)이 전사하였다. … 정담은 처음부터 힘을 다해 싸웠는데 붉은 기 아래 백마(白馬)를 타고 있는 적장을 쏘아 죽이니 적이 와해되어 물러갔다. 조금 뒤에 나주(羅州) 군사가 퇴각하자, 정담이 고군(孤軍)으로 포위당했는데 부하 장수가 정담에게 후퇴시키기를 권하니 정담이 말하기를 ‘차라리 적병 한 놈을 더 죽이고 죽을지언정 차마 내 몸을 위해 도망하여 적으로 하여금 기세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하고 곳곳이 서서 동요하지 않고 활을 쏘아 빠짐없이 적을 맞추었다. 이윽고 적병이 사방으로 포위하자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정담 혼자서 힘이 다하여 전사하였다.</p> <p>②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7일 갑오</p> <p>“나주 목사(羅州牧使) 이경록(李景祿)은 웅치(熊峙)에 결진(結陣)하였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적이 크게 밀어닥치자 정담(鄭湛)이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다가 끝내 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전주는 군사가 전부 들어가서 지키고 있고 감사(監司)도 만경대(萬景臺)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병세(兵勢)가 크게 떨친다고 합니다.”</p> <p>③ 『선조실록』 권50, 27년 4월 3일 신해</p> <p>“신들이 전해 들은 바로 말하면, 전라도(全羅道) 웅치(熊峙) 싸움에서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이 온종일 힘을 다하여 적을 무수히 죽이고 결국 화살이 떨어져 군대는 패하고 자신은 죽었으나 전주를 보수(保守)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담이 역전하여 적을 꺾은 공이 큼니다. … 바라건대, 경상(慶尙)·전라(全羅)·충청(忠淸) 3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널리 방문하여 공문에 따라 아뢰게 한 후 일일이 포록(褒錄)하고 그들의 처자(妻子)를 구휼하게 함으로써 충의(忠義)를 권장하소서.”</p>

<p>③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1일 기축 “왜적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군현(郡縣)을 침범하였다. …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을 웅현(熊峴)과 이현(梨峴) 등 요해처에 나누어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지하게 하였다.”</p> <p>④ 『속종실록』 권22, 16년 9월 3일 기사 “고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은 임진년의 난 때에 웅치(熊峙)의 싸움에서 종일 힘껏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죽었으니, 모두 정려(旌閭)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p> <p>2. 안위(安衛)</p> <p>① 『선조실록』 권139, 34년 7월 30일 을축 전라도 병사(全羅道兵使) 안위(安衛)를 면직시켰다. 안위는 김제(金堤) 사람으로 역적 정여립(鄭汝立)의 5촌 조카인데 기축년의 변란 때 평안도(平安道)로 장류(杖流)되었다가 임진난을 인하여 방면되었다. 그후에 전공(戰功)을 많이 세워 마침내 병사(兵使)가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역적에 연루되어 대간이 논했기 때문에 면직시킨 것이다.</p> <p>3. 안철(安徹)</p> <p>① 『비변사등록』 12책, 인조 26년(1648) 2월 5일 통제사 천망 구오, ○ 변사기, 안철. (統制使薦 具整 ○邊士紀 安徹)</p>
--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p>해당 사항 없음</p>

(2) 청곡사(靑谷祠)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14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청곡사			
	명칭(한자)	靑谷祠			
	소재지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211(백석로 249-21)			
	GPS 정보	35.840068, 126.859230			
	시대	조선/조선후기			
	규모/재질/수량	정면 3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 소화장치(유 / ☑), 유적 안내판(현장)(유 / ☑), 진입로(☑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상태 좋음 · 파평윤씨 문중 사유지 내에 위치 · 최근 보수 흔적 있음 · 사유지 내 CCTV 존재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사료
<p>I. 관련인물</p> <p>1. 백선남(白善男)</p> <p>② 『승정원일기』 고종 4년(1867) 9월 15일 을축 병자년 등에 전사한 사람의 성명과 사연을 일일이 조사하여 들인다는 홍문관의 계 홍문관이 아뢰기를, “병자년·정묘년에 전사한 사람들을 홍문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들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병자록(丙子錄)》 및 《존주휘편(尊周彙編)》의 배신전(陪臣傳) 등 책을 조사하였습니다. … 창원 부사(昌原府使) 백선남(白善男)은 삼영(三營)의 군사가 모두 궤산되자 오랑캐 진영으로 달려가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를 따르다가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창원의 아전 황시헌(黃是憲)은 흩어진 졸개들을 불러 모아 힘껏 싸우다가 백선남의 곁에서 죽었는데, 그에게 병조 좌랑을 추증하였습니다.</p> <p>③ 『일성록』 순조 11년(1811) 3월 20일 무진 전라도 유생인 유학 김재원(金在元) 등의 상언에 ‘김제군(金堤郡)의 고 영장(營將) 윤여임(尹汝任)과 고 부사 백선남(白善男)에 대해 정문(旌門)으로써 기리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윤여임과 백선남은 병자년(1636)의 난리에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함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 추가로 시행하는 은전을 내려 주어야 마땅할 것이나 시행하도록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실제 사적을 자세히 탐문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상께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윤허하였다.</p> <p>3. 윤여임(尹汝任)</p> <p>① 『승정원일기』 고종 4년(1867) 9월 15일 을축 상주(尙州)의 영장 윤여임(尹汝任)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근왕(勤王)하여 앞장서서 적을 향해 총을 쏘아 세 손가락이 다 해졌으며, 오랑캐가 이르자 죽고 말았는데, 배에 꼽힌 화살촉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조 판서를 추증하고 영원군(鈴原君)에 봉하였습니다.</p>

③ 유적지 사진

<p>진입로 안내판 사진</p>	<p>유산설명 안내판 사진</p>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전경	특이사항
	

(3) 충신 통정대부 행군수 박영란지려(忠臣通政大夫行郡守朴英蘭之閭)

① 실태조사표

조사자 : 정상희

조사일자 : 2025년 03월 25일

기본정보	명칭(한글)	충신 통정대부 행군수 박영란지려			
	명칭(한자)	忠臣 通政大夫 行郡守 朴英蘭之閭			
	소재지	김제시 검산동 197-3			
	GPS 정보	35.801617, 126.913429			
	시대	조선			
	규모/재질/수량	정면 1칸 측면 1칸/목조 건물			
	소유자/관리자	확인 불가			
관리실태	감시카메라(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화장치(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적 안내판(현장)(<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진입로(<input checked="" type="checkbox"/> / 무)				
	1	2	3	4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 앞 주차 가능(3대) · 마을회관 옆 공중화장실 이용 가능 · 보존상태 좋음 · 마을회관 앞 감시카메라 존재 				

② 유적 관련 설명

유적(또는 안내판) 설명
<p>본 정려각(旌閭閣)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왜장(倭將)과 싸우다 전사한 당시 영월군수 박영란의 애국(愛國) 충정심(忠誠心)을 높게 치하(致賀) 하기 위하여,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시호(諡號)를 내려 주시고 정려각을 세워 주셨으며, 각문(閣門)은 가선대부(嘉善大夫) 황해도관찰사이익회(黃海道觀察使李翊會)께서 쓰셨고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기념식수 하였다. 충신 박영란(朴英蘭)의 묘소는 김제시 용지면 도리실에 있다.</p>
관련 사료
<p>I 박영란(朴英蘭) ① 『순조실록』 권30, 28년 12월 17일 임오 예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김제(金堤)의 고(故) 주부(主簿) 박영란(朴英蘭)은 충절로써 정려(旌閭)하고, 무신년에 군공(軍功)을 세운 송재태(宋載泰)는 증직(贈職)하게 하소서."하니, 그 대로 따랐다.</p>

③ 유적지 사진

진입로 안내판 사진	유산설명 안내판 사진
<p>해당 사항 없음</p>	

<p>사진 1</p>	<p>사진 2</p>
	
<p>사진 3</p>	<p>사진 4</p>
	
<p>전경</p>	<p>특이사항</p>
	<p>해당 사항 없음</p>